

2019
대입
성공전략

EBS가
답이다!

가 / 이 / 드 / 북

이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은 최신 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 입학 요강은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학별 최신 전형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차례

I. 2019학년도 대입 전형의 이해

- 1.1 2019학년도 수능 개요 / 6
- 1.2 2019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 / 8

II. 2019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

- 2.1 2019학년도 대학입시의 이해 / 12
- 2.2 2019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가기 / 15
- 2.3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가기 / 18
- 2.4 논술 전형으로 대학가기 / 23
- 2.5 적성고사 전형으로 대학가기 / 29

III. 2019학년도 정시 합격 전략

- 3.1 2019학년도 대입 정시 합격 전략 / 34
- 3.2 정시 전형 선발 방법 / 35

IV. 2019학년도 영역별 고득점 전략

- 4.1 국어 / 38
- 4.2 수학 / 53
- 4.3 영어 / 64
- 4.4 한국사 / 75
- 4.5 사회탐구 / 77
- 4.6 과학탐구 / 84

V. EBS 수능강의 활용

- 5.1 2019 수능 대비 EBS 대표 시리즈 안내 / 94
- 5.2 EBS 수능관련 서비스 / 99



2019학년도
대입 전형의
이해



2019학년도 대입 전형의 이해

1.1 2019학년도 수능 개요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

영역(과목)	주요 내용
국어	공통(45문항, 100점), 상대평가
수학	문·이과 구분(나/가형, 30문항, 100점), 상대평가
영어	공통(45문항, 100점), 절대평가
한국사	필수(20문항, 100점), 절대평가
사회/과학/직업탐구	선택한 영역에서 2과목 응시(20문항, 50점) 상대평가(사회: 9과목 중 택 2 / 과학: 8과목 중 택 2 / 직업: 10과목 중 택 2)
제2외국어/한문	선택한 1과목 응시(30문항, 50점), 상대평가

가. 기본방향

- 1)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방안(2014년 12월)에 따른 2019학년도 수능 개편사항을 반영
: 한국사 영역 필수화, 국어 및 수학영역 수준별 시험 폐지 등 2017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개선사항은 동일하게 적용
- 2) 영어 영역의 성적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9개 등급으로 결정
- 3) 영어 영역의 만점은 현재와 동일하게 100점이며, 등급 간 점수 차이는 10점으로 설정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

- 1) 시험일 : 2018. 11. 15(목)
- 2) 성적 통지일 : 2018. 12. 5(수)

다. 시험 영역 및 출제형식

- 1) 시험영역 및 응시과목 선택: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구성되며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을 필수로 응시하고, 한국사 이외 시험영역(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 2) 출제 형식: 객관식 5지 선다형(단, 수학영역은 문항 수의 30%를 단답형으로 출제)
- 3) 영역별 출제 문항 수 및 시험시간

교시	영역	문항 수	시험시간(분)	비고
1	국어	45	80	• 수준별 시험 폐지
2	수학	30	100	• 가형, 나형 중 택 1 • 단답형 30% 출제
3	영어	45	70	• 듣기평가: 17문항
4	한국사	20	30	• 모든 수험생 응시
	사회/과학/직업탐구	과목당 20	과목당 30	• 최대 2과목 선택
5	제2외국어/한문	과목당 30	과목당 40	• 제2외국어 8개 과목 및 한문 중 택 1

라. 성적 통지

- 1) 수험생이 응시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표기
- 2) 한국사는 등급만을 기재하며, 한국사 이외의 시험영역(과목)은 각각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예시) 〉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연도)		
구분	한국사 영역	국어영역	수학 영역 나형	영어 영역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일본어 I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 2019학년도 수능 영역별 문항 수, 시험시간 및 선택과목 〉

영역	구분	문항 수	문항유형	배점		시험 시간	출제범위(선택과목)
				문항	전체		
국어		45	5지선다형	2,3	100점	80분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수학 (택 1)	가형	30	1~21번 5지선다형, 22~30번 단답형	2,3,4	100점	100분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나형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영어		45	5지선다형 (듣기17문항)	2,3	100점	70분	영어Ⅰ, 영어Ⅱ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한국사(필수)		20	5지선다형	2,3	50점	30분	한국사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내용 중심으로 출제
탐구 (택 1)	사회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3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9개 과목 중 최대 택 2
	과학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3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물리Ⅰ, 화학Ⅰ, 생명 과학Ⅰ, 지구 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 과학Ⅱ, 지구 과학Ⅱ 8개 과목 중 최대 택 2
	직업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3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10개 과목 중 택 2
제2외국어/한문		과목당 30	5지선다형	1,2	과목당 50점	과목당 40분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9개 과목 중 택 1

나. 정시모집

구분	내용	
원서접수	2018. 12. 29(토) ~ 2019. 1. 3(목)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가군	2019. 1. 4(금) ~ 1. 11(금) (8일)
	나군	2019. 1. 12(토) ~ 1. 19(토) (8일)
	다군	2019. 1. 20(일) ~ 1. 27(일) (8일)
합격자 발표	2019. 1. 29(화) 까지	
합격자 등록	2019. 1. 30(수) ~ 2. 1(금) (3일)	
수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마감	2019. 2. 14(목) 21:00 까지	
수시 미등록 총원 등록마감	2019. 2. 15(금)	

다. 추가모집

구분	내용
원서접수 & 전형일 & 합격자 발표	2019. 2. 17(일) ~ 2. 24(일) 21:00 까지
등록 기간	2019. 2. 25(월)

1.2 2019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

가. 수시모집

구분	내용
원서접수	2018. 9. 10(월) ~ 9. 14(금) 중 3일 이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2018. 7. 5(목) ~ 7. 11(수)
전형기간	2018. 9. 10(월) ~ 12. 12(수) (94일) (다만,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7~8월 중 전형 권장)
합격자 발표	2018. 12. 14(금) 까지
합격자 등록	2018. 12. 17(월) ~ 12. 19(수) (3일)
수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마감	2018. 12. 26(수) 21:00 까지
수시 미등록 총원 등록마감	2018. 12. 27(목)



MEMO

EBS 진로 진학 전문가 선생님의 1:1 맞춤 상담

EBS 진학 상담실

정보입력 ▶ 상담글 작성 ▶ 답변확인 ▶ 평가하기

EBS 상담위원 선생님 소개 정보확인 기본정보/성적확인

2019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



2019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

2.1 2019학년도 대학입시의 이해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 위원회는 전국 196개 4년제 대학교의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4월 28일 발표하였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전체 모집인원은 감소, 수시모집 선발비중은 소폭 증가

전체 모집인원은 348,834명으로 2018학년도보다 3,491명 감소(2017학년도 355,745명 → 2018학년도 352,325명 → 2019학년도 348,834명)했고, 수시모집은 전년 대비 2.5%p 증가한 76.2% 선발한다.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계(명)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2019학년도	265,862	76.2	82,972	23.8	348,834
2018학년도	259,673	73.7	92,652	26.3	352,325
2017학년도	248,669	69.9	107,076	30.1	355,745

나.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학년도 60.3% 보다 2.0%p 증가하여, 전체 모집인원의 65.9%인 229,881명을 선발한다.

구분	전형유형	2019학년도	2018학년도	2017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144,340명(41.4%)	140,935명(40.0%)	141,292명(39.7%)
	학생부(종합)	84,764명(24.3%)	83,231명(23.6%)	72,101명(20.3%)
정시	학생부(교과)	332명(0.1%)	491명(0.1%)	437명(0.1%)
	학생부(종합)	445명(0.1%)	435명(0.1%)	671명(0.2%)
합계		229,881명(65.9%)	225,092명(63.8%)	214,501명(60.3%)

다.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전형,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 선발 안착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입전형 체계에 따라 수시는 학생부 위주의 모집인원이 229,104명으로 수시 총 모집인원 265,862명의 86.2%를 선발한다, 정시는 수능 위주의 선발인원이 72,251명으로 정시 모집인원인 82,972명의 87.1%를 선발한다.

구분	전형유형	2019학년도		2018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144,340명(54.3%)	41.4%	140,935명(54.3%)	40.0%
	학생부(종합)	84,764명(31.9%)	24.3%	83,231명(32.0%)	23.6%
	논술 위주	13,310명(5.0%)	3.8%	13,120명(5.1%)	3.7%
	실기 위주	19,383명(7.3%)	5.6%	18,466명(7.1%)	5.3%
	기타	4,065명(1.5%)	1.2%	3,921명(1.5%)	1.1%
소계		265,862명(100.0%)	76.2%	259,673명(100.0%)	73.7%
정시	수능 위주	72,251명(87.1%)	20.7%	80,311명(86.7%)	22.8%
	실기 위주	9,819명(11.8%)	2.8%	11,334명(12.2%)	3.2%
	학생부(교과)	332명(0.4%)	0.1%	491명(0.5%)	0.1%
	학생부(종합)	445명(0.5%)	0.1%	435명(0.5%)	0.1%
	기타	125명(0.2%)	0.0%	81명(0.1%)	0.0%
소계		82,972명(100.0%)	23.8%	92,652명(100.0%)	26.3%
합계		348,834명	100.0%	352,325명	100.0%

라. 대학별 논술 전형 평균 모집인원 지속 감소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은 성신여자대학교 311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41명의 신설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각 대학교별 평균 모집인원은 2018학년도 423.2명에서 2019학년도 403.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구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2017학년도	
	대학 수	모집인원	대학 수	모집인원	대학 수	모집인원
수시	33개교	13,310명	31개교	13,120명	30개교	14,861명
합계	33개교	13,310명	31개교	13,120명	30개교	14,861명

마.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 지속 증가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2018학년도 40,306명에서 2019학년도 43,371명으로 2,065명 증가한다.

구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2017학년도
정원내	19,337명(5.5%)	16,500명(4.6%)	15,005명(4.2%)
정원외	24,034명(6.9%)	23,806명(6.8%)	24,078명(6.8%)
합계	43,371명(12.4%)	40,306명(11.4%)	39,083명(11.0%)



바.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 지속적으로 증가

구분	대학수	모집인원	총 모집인원 대비 비율(%)
2019학년도	81개교	13,299명	3.8%
2018학년도	81개교	10,931명	3.1%
2017학년도	81개교	10,120명	2.8%

사. 대수능 영어영역 반영방식 대학별로 다양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사용하는 대학은 수시 83개교, 정시 12개교이고, 정시에서 비율 반영하는 대학은 180개교로 가장 많고 14개교는 가점 또는 감점 형식으로 반영한다.

모집시기	반영방법	대학수
수시	최저학력기준	83개교
정시		12개교
정시	비율반영	180개교
	가점부여	10개교
	감점부여	4개교

※ 일반전형 기준, 같은 대학 내 모집단위별 반영방법 중복 산정

아. 전형일정

대학입학전형은 크게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으로 구분하며, 각 전형일정은 아래와 같다.

1) 수시모집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18. 9. 10(월) ~ 9. 14(금)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전형기간은 2018. 9. 10(월) ~ 12. 12(수) 사이에 실시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2018. 7. 5(목)~ 7. 11(수) 사이에 원서접수를 실시하며, 재외 한국학교 및 해외 소재 고등학교 등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7~8월 중 전형 실시를 권장함

구분	내용
원서 접수	접수 기간 : 2018. 9. 10(월) ~ 14(금) 중 3일 이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2018.7.5(목)~7.11(수)
전형기간	2018. 9. 10(월) ~ 12. 12(수)(94일) (다만,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7~8월 중 전형 권장)
합격자 발표	2018. 12. 14(금) 까지
합격자 등록	2018. 12. 17(월) ~ 19(수)(3일)
수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018. 12. 26(수) 21:00 까지
수시 미등록총원 등록 마감	2018. 12. 27(목)

2) 정시모집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18. 12. 29(토) ~ 2019. 1. 3(목)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전형기간은 2019. 1. 4(금) ~ 1. 27(일) 사이에 모집 군별로 실시함

구분	내용	
원서접수	2018. 12. 29(토) ~ 2019. 1. 3(목)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가군	2019. 1. 4(금) ~ 11(금)(8일)
	나군	2019. 1. 12(토) ~ 19(토)(8일)
	다군	2019. 1. 20(일) ~ 27(일)(8일)
합격자 발표	2019. 1. 29(화) 까지	
합격자 등록	2019. 1. 30(수) ~ 2. 1(금)(3일)	
정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마감	2019. 2. 14(목) 21:00 까지	
정시 미등록총원 등록마감	2019. 2. 15(금)	

3) 추가모집

추가모집은 2019. 2. 17(일) ~ 24(일) 사이에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를 진행하며, 2019. 2. 25(월) 등록까지 진행함

구분	내용
원서 접수 & 전형일 & 합격자 발표	2019. 2. 17(일) ~ 24(일) 21:00 까지
등록 기간	2019. 2. 25(월)

2.2 2019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가기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 성적을 수치화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출결사항이나 봉사활동 등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

가. 학생부 교과전형 : 선발인원으로 분석하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전국 196개 대학에서 2019학년도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14만4340명으로 전체 수시 모집인원(재외국민전형 제외)의 55.1%를 차지한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은 32.4% 정도로 학생부 교과전형보다 인원이 훨씬 적다.

학생부교과전형 모집인원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통틀어 가장 많다. 그러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해야할까? 그렇지 않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인원이 2만585명으로 전체 수시 모집인원의 61.0%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6,928명을 선발하는 논술전형으로 전체 수시 선발 인원의 20.5%를 차지했으며 특기자(실기)전형이 3,384명으로 10.0%의 비중을 보였다. 학생부교과전형의 선발인원은 2,830명으로 전체 수시 모집인원의 8.4% 정도에 불과하다.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이 아닌 범위에서 대학에 진학하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서울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학생부교과전형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적극 대비해야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 성적 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보다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하면 된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일부 상위권 대학보다 대부분 중하위권 대학에 많이 몰려 있는 편이며,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적정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내신등급 커트라인도 높게 형성되는 편이다. 결국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는지?,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 최근의 합격자 평균등급 또는 컷은 어떻게 형성 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이 없는 대학도 있으므로 자신이 목표하는 대학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지 않는 대학은 서울권에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한 명도 안 뽑는 대학도 많다. 지난해 폐지한 연세대·동국대를 비롯해 건국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 등으로 아무리 내신 성적이 우수해도 이들 대학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다.

아래 표에서 상위 15개 대학에서도 정시 모집인원이 거의 30%에 육박한다. 이는 수시모집 인원 2위인 논술전형보다도 많은 숫자를 뽑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수시에 올인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학	수시	정시	모집 인원	수시 전형별 모집인원				정시 군별 모집인원		
				교과	종합	논술	특기 실기	기군	나군	다군
건국대	2,126	1,172	3,298		1,613	465	48	512	528	
경희대	3,354	1,398	4,752		2,223	770	361	696	702	
고려대	3,199	600	3,799		2,757		442		600	
동국대	2,142	856	2,998		1,526	474	142	572	284	
서강대	1,262	320	1,582		882	346	34	320		
서울대	2,498	684	3,182		2,498			684		
서울시립대	1,095	613	1,708	189	729	154	23	581	32	
성균관대	2,654	705	3,359		1,596	895	163	330	375	
숙명여대	1,576	756	2,332	315	765	302	194	180	576	
연세대	2,419	1,011	3,430		971	643	805		1,011	
이화여대	2,340	694	3,034	400	843	670	427	694		
중앙대	3,199	1,145	4,344	567	1,333	886	413	384	434	327
한국외대	2,208	1,185	3,407	546	994	546	122	285	600	300
한양대	1,962	852	2,814	298	1,076	378	210	287	565	
홍익대	1,693	1,022	2,715	515	779	399			136	886
총계	33,727 (72.16%)	13,013 (27.84%)	46,740 (100%)	2,830 (6.05%)	20,585 (44.04%)	6,928 (14.82%)	3,384 (7.24%)	5,526	5,843	1,645

하위권 대학 중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많다.

나. 학생부 교과 전형 : 자신의 강한 전형요소를 감안하여 지원하라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 면접,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 등에 따라서 합불의 결과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강한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시행된 학생부 교과전형의 전형 수는 281개인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의 전형 수는 97개이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의 전형 수는 184개이다.

〈 2019학년도 학생부 교과전형 〉

전형방법(%)	수능최저(o)	수능최저(x)
학생부 100	가천대, 가톨릭대, 경기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상명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성대, 홍익대, 인천대, 인하대, 한양대(에), 한국항공대, 경북대, 부산대, 공주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등	한양대, 광운대, 서경대, 삼육대,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상지대, 경남대, 영산대, 인제대, 건양대, 대전대, 배재대 등
단계별	[1단계] 학생부 [2단계] 면접	고려대(추천1), 한림대, 영남대, 서울교대(학추), 공주교대, 청주교대 등
일괄합산	학생부+면접	안동대, 동명대, 조선대, 서원대 등
	교과 + 기타	부경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등
		강원대, 연세대, 국민대, 명지대, 울산대, 인천대, 호서대, 동서대 등
		영산대, 동양대, 광주대, 호남대, 우송대, 이화여대(학추) 등
		가천대(서류), 건국대(학추-서류), 경희대(고교연계-서류), 아주대(비교과), 중앙대(학추-서류), 남서울대(봉사시간), 서원대(출결) 등

다. 학생부 교과 전형 :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확실히 숙지하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충족 여부가 당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서울시내 16개 대학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자의 40~50% 정도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실질 경쟁률은 거의 반토막이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때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수능 때 통과할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한다.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반영영역에서 영어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한국사의 최저등급을 요구하는지 탐구과목은 1과목을 사용하는지 2과목 평균을 사용하는지 마지막으로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과목 대체(숙명여대, 숭실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경영) 대체가능)가 되는지 등을 철저히 알고 준비해야 한다. 이 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면 실질 경쟁률도 낮아지고, 충원 합격 가능성도 다른 전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모 대학 수의에 합격자 평균이 학생부종합전형 1.18등급, 학생부교과전형 1.60등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 성적이 더 좋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라. 학생부 교과 전형 : 면접으로 승부하라

면접이 있는 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로 몇 배수를 거르고, 2단계에서 면접이 30~100% 적용된다. 이런 단계별 전형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우수한 수험생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면접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에 자신 없는 수험생에게 적합하다. 면접고사는 기초소양을 확인하는 면접과 학업 역량을 확인하는 면접이 있다. 인문·사회계열 수험생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여러 번 토론하고, 자연계열 수험생은 자연현상에 관심을 갖고 수학·과학적 원리 등에 대해 토론해 보면 유리하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이 지원할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를 찾아보면 지난해를 비롯해서 최근의 직접 출제된 면접 문항을 볼 수 있으므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출제 의도는 어떠한지 채점방식은 어떤 것인지 등을 볼 수 있으므로 면접이 있는 전형에서는 준비 전에 대학 홈페이지 방문은 필수



이다.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민대·명지대처럼 기초소양 확인 면접만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지만, 인천대처럼 제시문을 주고 문제 풀이식 구술형 면접평가를 실시해 학업 역량 확인 면접을 하는 대학도 있으니 면접 유형을 잘 파악해야 한다.

마. 학생부 교과 전형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반영 방법에 주의하라

대학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다양하므로 반영교과(교과·과목, 선택과목 수), 반영비율(학년별, 교과·비교과, 과목별), 산출지표(등급, 표준점수, 등급+표준점수), 이수단위 반영 여부, 등급 간 점수 차이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경북대, 고려대(고교추천1), 서울교대(학추), 공주교대, 청주 교대 등은 전 교과 전 과목으로 성적을 산출하고 가천대는 인/자 국,수,영,사/과 4개 교과에서 상위 4과목을 반영한다.

희망대학의 입학처를 방문하여 자신의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반드시 체크해보자.

또 석차등급·표준점수, 이수단위 등의 반영과 내신등급 간 감점의 차이에 따라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 과목별 반영비율에 따라서 유불 리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내신등급 평균이 똑같더라도 자연계열 지원학생은 수학등급이 높은 쪽이 유리한 것이다.내신 성적 학년별 반영 비율이 100%로 동일한 대학도 많지만, 광운대·성신여대·인하대·안양대처럼 20%(1학년)·40%(2학년)·40%(3학년) 등으로 적용하는 대학도 있다. 여기에서 3학년 40%는 대단히 높은 반영비율이다. 왜냐하면 한 학기인데 40%이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즉 2학년 40%는 두 학기를 합해서이므로 각 학기로 보면 20%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3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가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학이 지원자의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과 외 활동 참여를 통해 학생이 갖춘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인재상과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224,166명을 선발하는데 전국 198개 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144,340명으로 41.4%를 차지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84,764명으로 24.3%를 차지한다. 그러나 주요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전형 7.0%, 논술전형 15.2%, 학생부 종합전형이 42.2%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선발하고 있어 인 서울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종합전형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구분	전형유형	2019학년도	2018학년도	증감
수시	학생부(종합)	84,764명(24.3%)	83,231명(23.6%)	1,533명 (▲ 0.7%)

〈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인원의 변화〉

대학명	모집인원		대학명	모집인원	
	2019	2018 대비증감		2019	2018 대비증감
고려대	2,357	0	이화여대	843	▽61
서울대	1,742	▲3	동국대	836	0
성균관대	1,596	▲20	부산대	792	▽87
중앙대	1,333	▽21	서울시립대	729	▲57
경희대	1,323	▲40	충북대	727	▲34
한양대	1,076	▽23	연세대	711	▲162
전남대	941	▽68	홍익대	591	▲62
경북대	899	▲70	숙명여대	573	▲61
서강대	882	▲9	전북대	525	▲57
부경대	854	▲196	충남대	498	▽259
건국대	853	▲73	한국외대	460	▲44

가. 대학별 학생부 종합 전형의 유형

대학	전형방법	수능최저
경기대, 한양대, 한양대(에리카)	학생부종합평가100	×
단국대, 성균관대, 서강대	서류100	×
부산대 학종 I, 서강대, 이화여대, 충북대 학종 II	서류100	○
건국대, 경희대, 국민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교과+서류	×
홍익대(캠퍼스자율전공)	교과+서류	○
서울대	서류+면접	○
시립대	1단계(2배수) : 서류100 2단계 : 면접100	×
한국교원대	1단계(일정배수) : 교과+서류 2단계 : 교과+서류+면접	○
서울과기대	1단계(3배수) : 학생부+서류 2단계 : 1단계성적+면접	×
가천대, 가톨릭대, 경북대, 경인교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부경대, 부산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서울여대, 성균관대(의예,사범,영상),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학종 I,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성대	1단계(일정배수) : 서류100 2단계 : 1단계 성적+면접	×
고려대, 연세대	1단계(3배수) : 서류100 2단계 : 1단계 성적+면접	○
홍익대(미술계열)	1단계(6배수) : 교과100 2단계(3배수) : 교과+서류 3단계 : 학생부+서류+면접	○



나.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최저등급

자연		인문	
수능최저	대학	수능최저	대학
4개 합 5	고려대(학교추천 I, II, 일반전형, 영어 포함)(의예), 이화여대(미래인재)(의예)	4개 합 6	고려대(일반전형, 탐1, 영어포함)
3개 1등급	가톨릭대(학교장추천/가톨릭지도자추천)(의예), 가천대(의예), 연세대(학교활동우수자, 과탐1, 과탐2, 영어 2등급)(의예/치 의예)	3개 합 4	이화여대(스크랜튼)
3개 합 5	이화여대(스크랜튼, 뇌인지과학)	3개 합 5	고려대(학교추천 II, 영어포함), 이화여대(미래인재)
3개 2등급	서울대(지역균형)	3개 2등급	서울대(지역균형)
3개 합 6	서강대(일반형, 탐1)	3개 합 6	고려대(학교추천 I 영어포함), 서강대(일반형, 탐구), 홍익대
3개 합 7	홍익대		
2개 합 4	연세대(학교활동우수자, 탐1, 탐2, 영어 2 등급)(의예/치의예 제외), 이화여대(미래인재)	2개 합 4	연세대(학교활동우수자, 탐1, 탐2, 영어 2 등급),
4개 등급 합 11	서울교대	4개 등급 합 9	서울교대

다.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 시 유의사항

- 1)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수능) 성적보다 좋고 비교과 활동이 많은 학생, 전 교과 성적이 높지 않지만 전공 관련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 비교과 활동이 많고 중상위권 교과 성적을 유지해온 학생, 진로와 관련된 학습 계획을 세워 일관되고 꾸준히 노력해 온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 2) 수시 6회 지원 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종합전형으로만 6번을 지원할 수 있다. 대다수 대학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지 않지만, 일부 상위권 대학(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일부 의예과)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한다. 수능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수능최저 충족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 본 후 지원할 대학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에 자신이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서류100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에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면접이 없는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면접 포기의 기회가 없어 수능이 잘 나왔을 때에 수시에 납치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3)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교과목 성적이 낮으면 합격이 어려울 수 있다.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교과목 성적뿐만 아니라 전 과목 성적을 모두 평가하는 대학도 있다. 따라서 지원 희망 대학의 전형방법과 평가요소를 살펴보고 유·불리를 판단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9월에 수시 지원을 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자기소개서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자기소개서는 첨삭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3학년 학기 초부터 작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 자기소개서는 대교협 공통문항에 적합한 활동을 학생부에서 선별하여 작성한다. 각 문항의 질문에 맞는 내용으로 배우고 느낀 점 위주로 작성한다. 미래의 이야기나, 희망사항을 추상적으로 쓰기보다 객관적인 과거 사실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실례나 일화를 들어 자신의 장점과 개성, 단점 극복 노력 등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한다. 2번 문항에서 교내활동 내용을 적을 때는 활동을 하게 된 동기, 상황에서의 어려움, 과정 속에서 배운 점과 느낀 점, 결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이외에 자율문항이 있는지 확인 후 자율문항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독특한 특성과 능력, 경험과 체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느낀 점, 배울 점),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자신의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글 솜씨보다는 내용과 구성력이 중요하다. 자기소개서 내용을 추후 면접에서 확인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첨삭하면서 면접 대비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면접문제를 예상해 보면서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5)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은 대학의 전형에 따라 한 명의 수험생에 대하여 2~3명의 면접관이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제출 서류 확인 면접과 면접 시작 전 수험생에게 제시문을 주고 준비하는 시간을 주어 진행하는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서류 확인 면접에서는 면접관들이 주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추가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므로 자신의 서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활동결과를 강조하기보다는 활동 과정에서 느낀 소감과 교훈, 활동 후 변화와 성장에 중점을 두어 대답하는 것이 좋다. 인성 면접의 경우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학교 모의면접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연습하면 좋다. 심층 면접의 경우에는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전공학과와 관련된 교과 지식 활용 연습과 특정한 상황 속에서의 문제해결력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연습을 사전에 충분히 하고 면접에 임하는 것이 좋다.

라. 자기소개서 작성

1) 자기소개서 문항별 평가항목

번호	공통문항	평가가능항목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학업의지와 성취도, 전공적합성(학업), 자기주도성 등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1,500자 이내).	리더십, 창의성,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학교생활 충실도, 발전가능성 등
3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타인과의 관계능력을 중심으로 한 인성

2) 자기소개서 문항별 많이 쓰는 활동 내용

번호	공통문항	많이 쓰는 활동 내용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방과 후 학습, 수행평가 준비, 자신만의 노트법, 학습 동아리, 멘토멘티활동, 플래너 작성 공부법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1,500자 이내).	정규 동아리, 자율 동아리 토론대회, 경시대회, 탐구대회 과학반 과학실험, 거점학교 활동 동아리 축제참여 활동
3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임원활동, 봉사활동

3) 대학별 자율문항 (2018 대입 기준)

대학명	자율문항 내용
서울대	고등학교 재학 기간(또는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고려대	해당 모집단위 지원 동기를 포함하여 고려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성균관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본인의 성장환경 및 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 지원 동기 및 진로를 위해 노력한 부분 -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 유·무형의 콘텐츠(인물, 책, 영화, 음악, 사진, 공연 등)
서강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지원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대학 입학 후 학업 또는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하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과,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나 지원자의 교육 환경(가정, 환경, 지역 등)이 성장에 미친 영향 등을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1,500자 이내).

마. 학생부 주요 항목별 교육부 기재 개선 사항

항목	표준 가이드라인
수상경력	학교별로 사전 등록된 교내상만을 기재하며, 수상 사실은 수상 경력 란에만 기재
진로희망사항	'진로희망'은 학생의 진로설계 및 변경 등을 고려하여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을 기재하고, '희망사유'에는 충분한 상담과 관찰을 통해 진로 희망 사유를 기재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
교과학습발달상황	학생의 수업 참여의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하며, 방과후학교 활동 내용은 강좌명(주요내용)과 이수시간만을 기재
자율탐구활동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된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만을 기재
독서활동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 제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의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2.4 논술 전형으로 대학가기

수시 논술 위주 2018학년도 모집인원 13,120명으로 비율은 3.7%에서 2019학년도 13,310명, 비율 3.8%로 모집인원은 190 증가, 비율은 1.4% 증가를 보인다. 2019학년도에도 논술의 비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019학년도 논술 전형의 선발 비율을 보면 전체 대학 기준으로 3.8%로 비중이 가장 낮다. 그러나 중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요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대비 190명이 늘었고, 논술 전형의 선발 비율도 14.3%로 상승한 편이다. 이는 주요 15개의 수시 전형 중 학생부 종합 전형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증감 인원(명)
모집 인원(명)	비율(%)	모집 인원(명)	비율(%)	
13,120	3.7	13,310	3.8	+190

논술 전형은 내신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종합전형을 위한 학생부 준비가 부담스럽거나 수능을 위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전형이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에서 많은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시모집에서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전형이다. 각 학교마다 요구하는 문항의 특징에 따른 글을 쓰는 능력과 수능 최저 전략에 따라 당락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논술 전형의 특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2018, 2019학년도 모집 인원과 비율에 주목하라!

2019학년도에는 논술 전형 규모가 1.4% 증가되었고, 주요 대학의 논술 선발 인원이 여전히 많다.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수는 2018학년도보다 2개교 증가한 33개교이다. 성신여대와 한국기술교대가 2019학년도 논술 전형을 신설하여 논술 전형 시행 대학 수가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2019학년도 논술 전형의 선발 규모를 유지하거나 축소했지만, 이화여대는 125명, 한국항공대는 82명 확대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울산대는 지역인재 전형 의예과 4명을 논술 전형으로 선발했는데 2019학년도에는 논술로 선발하지 않고 종합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은 2018학년도까지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2019학년도에는 추천제를 폐지하여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

구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대학 수	모집인원	대학 수	모집인원
합계	33개교	13,310명	31개교	13,120명

1) 2018학년도 대비 2019학년도 논술 전형 모집 인원 증감 대학

증가 대학(증가 인원)	감소 대학(감소 인원)
덕성여대(4), 성신여대(311, 신설) 이화여대(125), 인하대(2), 한국기술교대(241, 신설), 한국항공대(82), 홍익대(4)	경기대(2), 경북대(31), 경희대(50), 광운대(3), 단국대(10), 부산대(17), 서강대(2), 서울과학기술대(32), 서울시립대(14), 성균관대(15), 세종대(42), 숙명여대(15), 송실대(27), 아주대(5), 연세대(40), 연세대_원주(10), 울산대(의예-8), 울산대(의예-지역인재, 폐지), 중앙대(16), 한국외대(8), 한국외대_글로벌(6), 한양대(18), 한양대_에리카(42)

※ 신설 : 성신여대, 한국기술교대
※ 폐지 : 울산대 (의예-지역인재)



논술 전형은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전형이다. 상위 주요 15개 대학 중 서울대, 고려대를 제외한 13개 대학이 논술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성균관대(895명), 중앙대(886명)가 800명 이상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그리고 경희대(770명), 이화여대(670명), 연세대(643명)가 600명 이상 선발하며, 동국대(474명), 건국대(465명), 한국외대(442명)가 400명 이상을 선발한다. 이 외 홍익대(399명), 한양대(378명), 서강대(346명), 숙명여대(302명)가 300명 이상을 선발하고, 서울시립대(154명)를 선발한다. 지역 거점 대학인 경북대(825명), 부산대(727명)를 선발한다.

2) 2018, 2019학년도 주요대 논술 전형 모집 인원 및 선발 증감 (정원 내 기준)

대학	모집인원		증감 인원(명)
	2018	2019	
건국대	465	465	0
경희대	820	770	-50
동국대	474	474	0
서강대	348	346	-2
서울시립대	168	154	-14
성균관대	910	895	-15
숙명여대	317	302	-15
연세대	683	643	-40
이화여대	545	670	+125
중앙대	902	886	-16
한국외대	450	442	-8
한양대	396	378	-18
홍익대	395	399	+4
경북대	856	825	31
부산대	744	727	-17
총원	8,473	8,376	-97

※ 각 대학의 모집 인원은 2018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2019학년도 전형계획안의 정원 내 인원 기준임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은 감소된 반면, 논술 반영 비율을 늘린 대학은 늘어 논술고사의 영향력은 여전 할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대, 아주대, 한국항공대는 2018학년도보다 논술 반영 비율을 각각 10%씩 확대 했다. 연세대(서울)는 2018학년도에 논술 반영 비율이 70%였으나 2019학년도에는 논술 100%로 선발한다. 이에 비해, 경북대는 80% 반영에서 70% 반영으로 축소됐고, 덕성여대는 2018학년도에 논술 100% 선발에서 2019학년도에 논술 80%로 축소됐다. 2019학년도에 논술 전형을 신설한 성신여대는 논술 70%, 한국기술교대는 논술 60%를 반영할 예정이다. 울산대 의예과에서 지역인재 논술 전형은 폐지할 예정이다.

3)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논술 반영 비율 비교

반영 비율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00%	덕성여대	연세대(서울)
80%	경북대, 서강대	덕성여대, 서강대, 아주대
70%	경희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아주대, 연세대(서울/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대(서울/글로벌), 한양대(서울/에리카)	가톨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대(서울/글로벌), 한국항공대, 한양대(서울/에리카)

반영 비율	2018학년도	2019학년도
60%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2단계),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울산대(의예), 중앙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홍익대	건국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2단계),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울산대(의예), 중앙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산업기술대, 홍익대

나. 논술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 유무를 공략하라!

논술 전형은 대부분 논술과 학생부 성적을 반영해 선발한다. 2019학년도부터 연세대는 논술 100%로 선발 방법을 변경하였다. 논술 전형의 합격은 대부분 논술 실력에 의해 결정되며 학생부 성적의 실제 변별력은 낮다. 그 이유는 대학이 설정한 학생부의 교과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작고 교과 점수에 기본점수를 주는 대학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학생부 교과 등 급 간의 점수 차이가 큰 대학도 있지만 논술전형에서는 논술의 영향력이 학생부보다 크다는 점이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참고할 부분이다. 논술 전형은 논술 시험이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해하면 된다.

〈2019학년도 논술전형 실시 대학 및 선발 방법〉

대학명	전형명	인원	선발방법	수능최저
가톨릭대	논술	175	논술70+교과30	O(의예관과 간호학과)
건국대	KU논술우수자	465	논술 60 + 교과 40	X
경기대	논술고사우수자	177	논술60+교과40	X
경희대	논술우수자	770	논술 70 + 교과 21 + 비교과 9	O
광운대	논술우수자	206	논술60+학생부40	X
덕성여대	논술	303	논술80 + 교과20	O
단국대	논술우수자	350	논술60+교과40	X
동국대	논술우수자	474	논술 60 + 교과 20 + 비교과 20	O
서강대	논술	346	논술 80 + 교과 10 + 비교과 10	O
서울과기대	논술위주	271	논술70+학생부30	X
서울시립대	논술	154	1단계 : 논술 100 (4배수) 2단계 : 1단계 성적 60 + 교과 40	X
서울여대	논술우수자	150	논술70+교과30	O
성균관대	논술우수자	895	논술 60 + 교과 30 + 비교과 10	O
성신여대	논술우수자(신설)	311	논술70+교과27+출결3	O
세종대	논술우수자	392	논술60+교과40	O
숙명여대	논술우수자	302	논술 60 + 교과 40	O
숭실대	논술우수자	322	논술60+교과40	O
아주대	논술우수자	221	논술80+교과20	X(의학O)
연세대	논술	643	논술 100	O
울산대	일반(의예)	16	논술60+교과40	O
이화여대	논술	670	논술 70 + 교과 30	O
인하대	논술우수자	564	논술70+교과30	X
중앙대	논술	886	논술 60 + 교과 20 + 비교과 20	O
한국산업기술대	일반전형(논술)	150	논술 60+교과 40	X
한국외대	논술	546	논술 70 + 교과 30	O



한국항공대	논술우수자	215	논술70+교과30	X
한양대	논술	378	논술 70 + 학생부종합평가 30	X
한양대(에리카)	논술	419	논술70+교과30	o
홍익대	논술	399	논술 60 + 교과 40	o
경북대	논술(AAT)	825	논술(AAT) 70 + 교과 20 + 비교과 10	o
부산대	논술	727	논술 70 + 교과 20 + 비교과 10	o

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준비하라!

논술 전형은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등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사실상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그 용어와는 반대로 최저라고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최저학력기준 충족이 어려워,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하는 학생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논술 전형의 높은 경쟁률 또한 최저 충족을 이후의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라고 봐야 한다. 경희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6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 전형에서 수능최저 충족률이 인문 48%, 자연 50%(이상 서울캠퍼스), 인문 22%, 자연 34%(국제캠퍼스)에 불과했다. 또한 서강대의 경우 전체 지원자 대비 실질평가 대상자는 31~32%에 불과했다. 2017학년도에도 수시모집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률은 과마다 최저 28.1%~최대 67.1%에 불과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목표 대학에 맞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수능 역량이 있는 학생은 최저학력기준이 높은 대학과 학과를 전략적으로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논술 전형을 하는 학교의 최저 학력기준을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학교와 학과를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19학년도 주요 대학 및 지역 논술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

대학명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가톨릭대	[간호/인문] 국, 수(나), 영, 사탐(1) 중 2개 각 2등급 이내 [간호/자연] 국, 수(가), 영, 과탐(1) 중 2개 각 2등급 이내 [의예] 국, 수(가), 영, 과탐2 중 3개 영역 1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
경희대	[인문] 국, 수, 영, 탐(1) 중 2개 합 4등급 이내 [자연] 국, 수(가), 영, 과탐(1) 중 2개 합 5등급 이내 [의예] 국, 수(가), 영, 과탐(1) 중 3개 합 4등급 이내 <한국사 5등급 이내>
덕성여대	[인문] 필수 (국, 영), 선택(수, 탐2) 필수영역 포함한 3개 합 8등급 이내 [자연] 수학(가)반영 - 필수 (수(가), 영), 선택(국, 과탐2) 필수영역 포함한 3개 합 9등급 이내 [자연] 수학(나)반영 - 필수 (수(나), 영), 선택(국, 과탐) 필수영역 포함한 3개 합 8등급 이내
동국대	[인문] 국, 수, 영, 탐2 중 3개 합 6등급 이내 [자연] 국, 수(가), 영, 과탐2 중 2개 2등급 이내 <반드시 수가 또는 과탐 포함> [경찰행정] 국, 수, 영 3개 등급 합 5
서강대	[인문/자연] 국, 수, 영, 탐(1) 중 3개 합 6등급 이내 (한국사 4이내)

대학명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서울여대	[인문/자연] 국, 수(가/나), 영, 탐2 중 2개 합 7등급 이내 (각 4등급 이내) <단, 영어영역 포함 시 2개 합 5등급 이내>
성균관대	[인문] 국, 수, 탐2 중 2개 합 4등급 이내 [자연] 국, 수(가), 과탐2 중 2개 합 4등급 이내 (영어2, 한국사 4이내)
성신여대	[인문] 국, 수, 영, 탐(1) 중 2개 합 5등급 이내 [자연] 국, 수, 영, 탐(1) 중 2개 합 6등급 이내
세종대	[인문] 국, 수(나), 영, 사탐2 중 영어를 포함한 3개 합 6등급 이내 [자연] 국, 수(가), 영, 과탐2 중 영어를 포함한 3개 합 7등급 이내 <단, 한국사 필수 응시>
숙명여대	[인문] 국, 수, 영, 탐(1) 중 3개 합 6등급 이내 [자연] 국, 수, 영, 탐(1) 중 2개 합 4등급 이내
송실대	[인문] 국, 수(나), 영, 탐2 중 2개 합 6등급 이내 [자연] 국, 수(가), 영, 과탐2 중 2개 합 7등급 이내 <영어, 한국사 영역 반드시 응시>
아주대	[의학] 국, 수(가), 영, 과탐2 등급 합 5등급 이내
연세대	[인문] 국, 수, 탐1, 탐2 4개 등급 합 7등급 이내 [자연] 국, 수(가), 과1, 과2 4개 합 8등급 이내 (영어 2, 한국사 4이내) [의예, 치의예] 국, 수(가), 과1, 과2 중 3과목 이상 1등급
울산대	[의예과] 국, 수(가), 영, 과탐2 4개 합 5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이화여대	[인문] 국, 수(나), 영, 탐2 중 3개 합 5등급 이내 [자연] 국, 수(가), 영, 과탐2 중 3개 합 6등급 이내 [의예] 국, 수, 영, 탐 4개 영역 등급 합 5등급 이내
중앙대	[인문] 국, 수, 영, 탐(1) 중 3개 합 5등급 이내 [자연] 국, 수(가), 영, 과탐(1) 중 3개 합 5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한국외대	[Language&Diplomacy학부 / Language&Trade학부] 국, 수, 영, 사탐(1) 중 3개 합 4등급 이내 [전 모집단위] (Language&Diplomacy학부, Language&Trade학부 제외) 국, 수, 영, 사탐2 중 2개 합 4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홍익대	[인문] 국, 수, 영, 탐(1) 중 3개 합 6등급 이내 [자연] 국, 수(가), 영, 과탐(1) 중 3개 합 7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경북대	[의예, 치의예] 국, 수, 영, 탐 4개 합 5등급 이내 [경상, 사법, 수의, 행정] 국, 수, 영, 탐 중 3개 합 6등급 이내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과, 농업, 생활과학, 간호, IT, 자율] 국, 수, 영, 탐 중 3개 합 8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부산대	[인문] 국, 수, 영, 탐 중 3개 합 7등급 이내 [자연] 국, 수(가), 영, 과탐 중 수(가)를 포함 2개 합 5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라. 자신에게 유리한 논술 출제 유형을 선택하라!

논술고사를 대비는 자신에게 유리한 논술 출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술고사 출제 방침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는 것이지만, 대학에 따라 세부적인 출제 경향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018학년도 기준을 인문계를 예로 들면 중앙대 경영경제 모집단위는 일반적인 인문계 논술 외에도 수학이 출제된다. 또, 이화여대는 영어 제시 문이 출제되어 학생들의 영어 독해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자연계는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등의 대학은 수학만 출제되며 성균관대, 중앙대 등은 수학과 과학이 선택형으로 함께 출제된다. 준비 방법은 대학 입학처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논술 동영상, 논술 평가 가이드북(논술백서) 등을 반복 학습하면서 문제 유형과 유의 사항을 익혀야 한다. 또한 대학 기출 문제와 모의 논술시험에도 관심을 갖고 꼼꼼하게 반복 학습 하고, 대학별 모의 논술시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자연계열 논술은 수능 고난도 문항의 주관식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수학에서 강점을 보인다면 자연계열 논술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또한 수학은 모든 대학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수학 우수자는 일단 논술 전형의 지원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다. 대학에 따라 과학 문항이 출제되기도 하는데 이 때 과학 점수가 높고 서술형으로 풀어낼 능력을 훈련해서 대학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인문계열은 수능 국어와 같이 지문 및 자료를 독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기에, 수능 국어에서 강점을 보이면 유리하다. 하지만, 논술에서는 추가로 표현력과 구성력이 필요해서 이에 따른 훈련과 학습이 필요하다.

〈논술전형 대학별 출제 유형(2018학년도 기준)〉

◆ 인문계열

출제영역	대학
언어	부산대, 서울과기대, 경희대(인문), 동국대, 중앙대(인문/사회), 한양대(인문), 홍익대, 서강대(경영, 경제 제외), 세종대, 숙명여대, 연세대(원주), 덕성여대(인문), 가톨릭대
언어 + 통계	건국대(인문사회 I), 서강대(경영, 경제),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연세대, 한국외대, 경희대(사회), 광운대, 단국대, 덕성여대(사회), 동국대(인문 II), 서울여대, 송실대, 아주대, 인하대, 한국항공대, 한양대(에리카)
언어 + 수학	건국대(인문사회 II), 이화여대(인문 II), 중앙대(경영경제), 한양대(상경), 경북대
언어 + 영어 제시문	이화여대(인문 I), 한국외대, 부산대(국제학부), 경희대(사회), 울산대(의예, 과학)

◆ 자연계열

출제영역	대학
수학	서울과기대, 경북대(의예, 치의예, 수의예 제외),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가톨릭대, 광운대, 단국대, 세종대, 아주대, 연세대(원주), 인하대
수학+과학 선택형	건국대, 경북대(의예, 치의예, 수의예), 경희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수학+과학 통합형	동국대, 숙명여대, 한국항공대(공학), 송실대, 아주대(의학), 울산대(의예)
수학+인문 통합형	한국항공대(이학), 가톨릭대(생활과학, 미디어, 의예)

2.5 적성고사 전형으로 대학가기

2019학년도에 적성고사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총 12개교로 2018학년도 입시와 동일하지만 선발인원이 4,885명에서 4,636명으로 249명이 감소하였다. 2019학년도에는 가천대 특성화고교 전형(56명), 삼육대 SDA 추천 전형(112명), 수원대 농어촌전형(87명), 특성화고출신자 전형(32명) 등의 특별전형으로 실시했던 적성고사 전형의 폐지로 총 287명이 감소하였으나, 대학별 적성고사 선발인원의 증가로 총 249명이 감소하였다. 적성고사 전형은 학생부 내신 평균 등급이 3등급 중 후반 대이고 비교과 준비가 안 되어 있고,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이 4~5등급 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비교적 낮은 내신과 모의고사의 불리함을 적성시험으로 극복하기 위해 지원을 고려하게 되는 전형이다.

가. 2019학년도 적성시험 전형 실시 대학

지역	2019학년도
서울(3개교)	서경대, 삼육대, 한성대
경기(7개교)	가천대, 성결대, 수원대, 을지대(성남, 의정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신대
세종(2개교)	고려대(세종), 홍익대(세종)

나. 2019 적성고사 전형 실시 대학 및 전형방법

대학명	전형명	모집 인원		반영비율(%)		수능최저
		2019	2018	학생부	적성	
가천대	적성우수자	1,012	999	60	40	-
	농어촌(적성)	51	51	60	40	
고려대(세종)	학업능력고사전형	470	481	60	40	있음
삼육대	교과성적우수자	215	207	60	40	-
서경대	일반학생①	235	277	60	40	-
	농어촌학생(정원외)	50	56	60	40	
성결대	적성우수자	249	249	60	40	-
수원대	일반전형(적성)	555	575	58.8	41.2	-
	사회배려대상자전형	35	35	58.8	41.2	
	국가보훈대상자전형	16	12	58.8	41.2	
을지대(성남)	교과적성우수자	302	315	60	40	-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49	50	60	40	
	농어촌학생	24	24	60	40	
	을지사랑드림	17	17	60	40	
을지대(의정부)	특성화고교 졸업자	6	7	60	40	-
	교과적성우수자	47	47	60	40	
평택대	PTU적성	136	25	60	40	-
한국산업기술대	일반전형(적성)	300	300	60	40	-
	농어촌학생	55	55	60	40	



대학명	전형명	모집 인원		반영비율(%)		수능최저
		2019	2018	학생부	적성	
한성대	적성우수자	382	325	60	40	-
한신대	일반전형	262	253	60	40	-
홍익대(세종)	학생부적성전형	168	177	60	40	있음
합계		4,636		4,537 (특별전형 포함 : 4,885)		

다. 적성고사 전형 수능최저 적용 대학

대학명	전형명	수능최저
고려대(세종)	일반	(인)국수탐 중 1개 3등급 또는 영어 2등급 (자)국수과 중 1개 3등급 또는 영어 2등급
홍익대(세종)	학생부적성전형	(인) 국수영탐(1과목) 중 2개 합 8 (자) 국수(가)영과(1과목) 중 2개 합 9

라. 대학별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

대학명	전형명	수능최저
가천대	[인문계] 국영수사 [자연계] 국영수과 교과별 이수단위 합 20단위 이상	학년 구분 없음
고려대(세종)	[인문계] 국영수사 전 과목 [자연계] 국영수과 전 과목	학년 구분 없음
삼육대	국어/수학/영어/사회 or 과학교과 중 3교과 반영	20 : 40 : 40
서경대	[인문계] 국영사 [자연계] 수영과 교과별 상위 3과목씩 총 9과목	학년 구분 없음
성결대	[공과대]수영사/과, [기타]국/수 택1, 영/사/과 택1, 학년별 1과목씩 총 9과목	30 : 30 : 40
수원대	[인문계] 국영수사 전 과목 [자연계] 국영수과 전 과목	학년 구분 없음
울지대	국영수사과 교과 전 과목	학년 구분 없음
평택대	국어/수학교과, 영어교과, 사회/과학 교과 중 상위 3과목 총 9개 과목	학년 구분 없음
한국산업기술대	[자연계] 국영수과 교과별 상위 5과목 [경영/디자인] 국수영사/과 교과별 상위 5과목 (사/과 중 이수단위 많은 교과)	학년 구분 없음
한성대	[인문계] 국영수사 전 과목 [자연계] 국영수과 전 과목	학년 구분 없음
한신대	[인문계] 국,영,사 각 상위 3과목 [자연계] 수영,과 중 각 상위 3과목	학년 구분 없음
홍익대(세종)	국수영탐 전과목 (사회/과학 중 이수단위 합이 많은 교과 반영)	학년 구분 없음

마. 대학별 학생부 교과 석차 등급 간 점수

대학명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가천대		100	99.5	99	98.5	98	95	85	60	30
고려대(세종)		600	580	560	540	520	500	400	200	0
삼육대		100	99	98	96.5	95	92	85	75	60
서경대		100	98	96	94	92	90	80	60	0
성결대		600	593	586	579	572	565	430	210	0
수원대		600	591	582	573	564	546	486	426	300
울지대		100	98	96	94	92	90	70	40	10

대학명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한국산업기술대		100	99	98	97	96	94	80	60	20
한성대(신설)		600	592	584	576	564	540	440	340	150
한신대		100	99	98	97	96	95	94	80	50

바. 대학별 적성시험 출제범위(2017학년도 기준)

대학명	문항수/시간	국어	영어	고교수학	수학	미적분	확률통계	자연계열	
								수학II	기하벡터
가천대	50문항/60분	○	○	○	○	○	○	×	×
고려대(세종)-인문	40문항/80분	○	○	×	×	×	×	×	×
고려대(세종)-자연	40문항/80분	×	○	○	○	○	○	×	×
서경대	60문항/60분	○	×	○	○	×	○	×	×
성결대	50문항/60분	○	×	○	○	○	○	×	×
수원대	60문항/60분	○	×	○	○	○	○	×	×
울지대	60문항/60분	○	○	○	○	○	○	×	×
한국산업기술대	75문항/80분	○	○	○	○	○	○	×	×
한신대	80문항/60분	○	×	○	○	○	○	×	×
홍익대(세종)	50문항/100분	×	○	○	○	○	○	○	△

사. 적성고사 전형 대비방안

- 1) 적성고사는 대학에 따라 수능과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쉬워 수능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준비가 가능한 시험이다. 적성고사 기출문제 및 모의문제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한다.
- 2) 대학별 적성고사 출제 유형, 학생부 교과 성적의 실질반영률,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유무, 수능 전, 후의 적성고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3)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이 낮아 대학에 따라 적성시험 문제를 1~2문제만 더 맞혀도 학생부 1등급의 차이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내신 5등급 대라 하더라도 계열에 따라 배점이 높은 과목인 수학에서 적성고사 성적을 잘 받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



Ⅲ

2019학년도 정시 합격 전략

EBS 자기소개서 상담실

- ✓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 다양한 내용을 넣는 것이 좋은가요? 일관된 활동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STEP 01 정보입력 STEP 02 상담글작성 STEP 03 답변확인 STEP 04 답변평가 EBS 상담위원

Ⅲ. 2019학년도 정시 합격 전략

2019학년도 정시 합격 전략

3.1 2019학년도 대입 정시 합격 전략

2019학년도는 전체 대입 정원이 2018학년도보다 3,491명이 감소한 348,83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와 수시가 증가하는 영향으로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전체 정원을 기준으로 2018학년도 26.3%에서 2019학년도에는 23.8%로 축소, 선발 인원이 9,680명 감소했다. 이로 인한 정시는 경쟁률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 정시모집 전형별 모집인원 증감 〉

구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증감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수능 위주	80,311	22.8	72,251	20.7	-8,060
실기 위주	11,334	3.2	9,819	2.8	-1,515
학생부(교과)	491	0.1	332	0.1	-159
학생부(종합)	435	0.1	445	0.1	+10
기타	81	0.0	125	0.0	+44
소계	92,652	26.3	82,972	23.8	-9,680

2019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29일(토)부터 시작된다. 전형기간이 2018학년도에는 9일 동안 진행된 것에 비해, 2019학년도에는 8일간 진행이 된다. 충원 합격 일정과 시간을 확인해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정시	원서접수		2018. 12. 29(토) ~ 2019. 1. 3(목)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가군	2019. 1. 4(금) ~ 11(금)(8일)
나군		2019. 1. 12(토) ~ 19(토)(8일)	
다군		2019. 1. 20(일) ~ 27(일)(8일)	
합격자 발표		2019. 1. 29(화) 까지	
합격자 등록		2019. 1. 30(수) ~ 2. 1(금)(3일)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2019. 2. 14(목) 21:00 까지	
정시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2019. 2. 15(금)	

2019학년도 수능 전형은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모집 정원의 20.7%를 선발한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전체 전형 유형 중 학생부 위주 전형의 뒤를 잇는 모집 규모가 큰 전형이다. 정시 수능 전형은 대학들이 학업 역량이 좋은 학생을 선점하기 위해 수시모집을 확대하면서 예전에 비해 모집 규모가 계속 줄고 있다. 그러나 수시모집에서 주요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두고 있는 전형이 대부분이고, 수시에서 합격하지 못했을 때 정시로 대학을 진학해야하기 때문에 수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한다. 또한 모집 규모도 수시모집 미 충원된 인원이 정시모집으로 이월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정시모집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좀 더 커지게 된다.

〈 수능 위주 전형 선발 인원 〉

구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증감
모집 인원	80,311명	72,251명	-8,060명
전체 모집 인원 대비 비율	22.8%	20.7%	-10.0%

대학의 2019학년도 수능 전형 선발 규모는 대부분 20~30% 내외이나 대학별로 모집 정원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선발 인원에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대학별 선발 인원을 살펴보면 경희대(1,105명)가 1,000명 이상을 선발해 가장 모집 규모가 크다. 다음으로 홍익대(940명), 건국대(935명), 연세대(846명), 중앙대(841명), 동국대(829명)가 800명 이상을 선발하며, 한양대(716명), 서울대(684명), 고려대(600명)가 600명 이상을 선발한다. 이 외 숙명여대(553명), 한국외대(514명), 서울시립대(512명), 이화여대(433명), 서강대(320명) 순으로 많은 학생을 선발한다.

3.2 정시 전형 선발 방법

수능 전형은 일부 대학 또는 사범대, 교대, 의대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 면접 등을 실시하기도 하나 대부분 수능 100% 또는 수능+학생부로 선발한다. 대학을 기준으로 수능 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주요 대학은 건국대, 동국대, 서강대, 한양대(나군) 4개 대학뿐이며, 전국 단위에서도 많지 않다. 서강대는 교과 영역이 아닌 출결, 봉사의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고, 교과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도 반영 비율이 10%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학생부 석차등급별 점수 차이도 매우 작아 실제 영향력은 미미하다. 정시 수능 전형에서 학생부는 반영 비중도, 실제 점수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 주요 대학 2019학년도 수능 전형 선발 방법 〉

대학명	선발 인원			선발 방법
	가군	나군	다군	
건국대	362	461	112	수능 90 + 교과 10
경희대	540	565	X	수능 100
고려대	X	600	X	수능 100
동국대	559	270	X	수능 90 + 교과 5 + 비교과 5



대학명	선발 인원			선발 방법
	가군	나군	다군	
서강대	320	X	X	수능 90 + 비교과 10
서울대	684	X	X	수능 100
서울시립대	480	32	X	수능 100
성균관대	330	375	X	수능 100
숙명여대	X	553	X	수능 100
연세대	X	846	X	수능 100
이화여대	433	X	X	수능 100
중앙대	239	275	327	수능 100
한국외대	168	346	X	수능 100
한양대	187	529	X	가군 : 수능 100 나군 : 수능 90 + 교과 10
홍익대	X	124	816	다군 : 수능 100
경북대	803	785	X	수능 100
부경대	503	452	X	수능 100
부산대	745	572	X	수능 100
전남대	461	382	X	수능 100
전북대	686	619	X	수능 100
충남대	517	575	X	수능 100
충북대	578	246	X	수능 100

수시모집 비중이 높아지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정시모집보다는 수시모집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수시모집은 100%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전형이다. 따라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함께 준비해야 수시의 최저학력기준도 맞추면서, 안정된 전형 전략을 만들 수 있다. 수능 학습은 보통 고3이 되면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3이 되면 본격적인 대입 준비와 함께 매달 치르는 모의고사 등으로 수능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수능에서 다소 우위에 있는 N수생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도 고등학교 1~2학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하여 3학년이 되기 전에 수능에 대한 대비를 미리 어느 정도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수험생 중에서 수시 6회만이 아니라 정시까지 넓게 바라본다면, 특히 수능 위주의 대입의 합격 전략을 짤다면 탐구 과목에서 확실한 유불리를 찾아 빠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신이 5등급 이하라고 한다면, 대입을 위한 반전은 결국 수능에서 찾아야 한다. 이때 탐구 중심의 학습과 성적을 올린다면 의외로 다양한 입시 전략을 짜볼 수 있다.

IV

2019학년도 영역별 고득점 전략

2019학년도 영역별 고득점 전략

4.1 국어

국어는 대학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과목이지만 수능 성적을 효과적으로 올리는 올바른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수험생은 거의 없다. 대개의 수험생은 '기출이 진리'라는, 전략 아닌 전략만 손에 쥔 채 국어의 망망대해를 허망하게 떠돌다가 절망하곤 한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국어 공부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 '단계별 학습 전략', '과목별 학습 전략', '시기별 학습 전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수능 만점을 위한 국어 공부의 길을 익혀 보자.

가. 단계별 학습 전략

수능 국어를 완벽하게 정복하기 위해서는 대개의 수험생이 하듯 무턱대고 문제에 덤벼드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우선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각 과목별로 필수적인 개념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기출 문제를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출제 요소와 빈출 문제 유형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EBS 수능 연계 교재 중심의 실전 문제 풀이를 해 나가야만 효과적으로 성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1) 개념을 확립하라!

1단계는 '개념 확립'이다. 수능 국어 시험의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방금 읽은 글에 대한 진술로 적절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골라 볼 수 있겠니?'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물음과 진술을 구성하는 개념이나 용어의 뜻을 모른다면 적절성 여부를 판단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문제 풀이만을 반복하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누각을 쌓는 일과 같다.

개념 확립을 위해서는 EBS의 <수능 개념> 강좌 시리즈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시리즈의 강의와 그 교재들은 수능 대비를 위한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의 필수 개념들을 모두 정리한 것이므로, <수능 특강> 등 연계 교재의 개념 정리 부분과 병행하여 공부해 가면서 수능 때까지 항상 가까이 두고 참고해야 한다.

참고로, 평가원이 출제한 문법 문제와 함께, 이에 관한 개념을 담고 있는 개념 교재의 일부분을 예로 제시한다. 이를 보면 개념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학습이 수능 시험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알 수 있다.

<문법>의 문항 예시

평가원이 출제한 문법 문제(201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EBS 개념 교재 '개기일식'의 내용
<p>1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어근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눌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사적 합성어: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 ○ ㉠ 비통사적 합성어: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른 합성어 <p>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② 서로 몰라볼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다. ③ 저마디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지난날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자신감이 생겼다. ⑤ 망치질을 자주 하다 보니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혔다.</p>	<p>㉠ 어근의 배열 방식에 따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사적 합성어: 어근의 배열 방식이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부합하는 합성어 [예] 둘다리 새해 작은형 손쉽다 알아보다 ○ 비통사적 합성어: 어근의 배열 방식이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위배되는 합성어 [예] 늦더위 곱푸르다 부술비 독서

2) 기출을 분석하라!

2단계는 '기출 분석'이다. 기출 문제, 특히 평가원이 출제한 최근 수능과 모의 평가 문제들이 실력을 기르기에 좋은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그 기출 문제로 해야 할 공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수험생이 오해하고 있다. 기출 문제들은 시간 재고 풀어서 답 맞춰 보고 오답 노트를 만들 대상, 혹은 자기 실력을 측정할 때 쓰는 도구가 아니다. 기출 문제는 수능에서 항상 반복되고 있는 패턴을 학습하는 도구이어야 한다.

'화법'이나 '작문'에서 주로 어떤 개념과 유형을 활용하는가, '문법'에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독서'에서 지문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구성은 어떤 것이며 항상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무엇인가, '문학'에서 지문으로 제시되는 작품은 주로 어떤 것들이며 장르별로 항상 출제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등등을 파악함으로써 수능의 패턴을 익히는 것이야말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우선은 EBS 연계 교재의 기출 문제 해설 부분이나 <기출의 미래>, <수능 기출 특강> 등을 통해 선생님들



의 분석 시범을 일단 잘 봐 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지문과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스스로 더 많은 기출 문제를 풀어 보면서 차차 유익한 정보들을 발견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3) 실전에 대비하라

1단계와 2단계가 잘 다져진 뒤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 바로 3단계인 '실전 대비'이다. 이는 물론 수능에 연계 출제되는 EBS 교재에 대한 학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EBS 연계 교재는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수를 받음은 물론, 수능 출제에 준하는 복잡하고 치밀한 과정을 거쳐 제작되므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지문과 문항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양질의 글과 문제로 실력을 기르고 다지는 것은 실전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EBS 교재와 연계된 수능 출제 자체가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객관적 조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EBS 교재의 수능 연계가 강력한 상황에서 그 이외의 작품이나 지문들부터 우선 공부해 두겠다는 전략은 결코 현명하다고 볼 수 없다. 또 수능 시험 때 시간에 쫓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계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철저히 학습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계 출제된 지문을 수능 시험장에서야 비로소 이해 및 감상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수능 연계에서 특히 중요한 분야인 '문학'과 '독서'에서 지문이나 문제가 연계된 사례를 제시한다. 이를 보면 연계 교재의 철저한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문학'의 연계 예시〉

2017학년도 수능 27~32번	2017 수능특강 '문학' 277쪽
<p>(서연, 장난스럽게 개울물을 마치 눈덩이처럼 뭉치는 동작을 한다.)</p> <p>함이정: 오빠…… 뭘 하는 거죠? 서연: 물부처를 만든다. 함이정: 물부처요? 서연: 돌로도 부처님을 만드는데, 물이라고 안 될 건 없지.</p> <p>(서연, 흐르는 물 속으로 들어가 물로 만든 부처를 세워 놓는다. 부처의 느낌은 남고 형태는 사라진다.)</p> <p>함이정: 오빠, 이쪽으로 나와요. 서연: (개울물을 건너가며) 난 이제 저쪽으로 간다. 함이정: 서연 오빠……. 서연: 넌 나중에 건너와. 함이정: (손을 흔든다.) 그래요, 오빠…… 먼저 가요. 나는 나중에…….</p> <p>(서연과 함이정, 잠시 개울물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㉔ 조승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 중이다. 개울물 건너편, 눈부시도록 밝아진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함이정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들어온다. 그는 피아노 옆을 지나 개울물을 건너간다./ 크리스(물부처)를, 개울물을 건너가는 서연을 배웅하듯이, 따라가듯이, 마중하듯이, 서연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며 간다. 개울물 저쪽, 눈부시도록 빛이 밝다. ㉕ 함이정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들어온다.)</p>	<p>서연, 장난스럽게 개울물을 마치 눈덩이처럼 뭉치는 동작을 한다.</p> <p>함이정: 오빠…… 뭘 하는 거죠? 서연: 물부처를 만든다. 함이정: 물부처요? 서연: 돌로도 부처님을 만드는데, 물이라고 안 될 건 없지.</p> <p>㉔ 서연, 흐르는 물속으로 들어가 물로 만든 부처를 세워 놓는다. 부처의 느낌은 남고 형태는 사라진다.</p> <p>함이정: 오빠, 이쪽으로 나와요. 서연: (개울물을 건너가며) 난 이제 저쪽으로 간다. 함이정: 서연 오빠……. 서연: 넌 나중에 건너와. 함이정: (손을 흔든다.) 그래요, 오빠…… 먼저 가요. 나는 나중에…….</p> <p>서연과 함이정, 잠시 개울물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㉔ 조승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 중이다. 개울물 건너편, 눈부시도록 밝아진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함이정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들어온다. 그는 피아노 옆을 지나 개울물을 건너간다. 크리스(물부처)를, 개울물을 건너가는 서연을 배웅하듯이, 따라가듯이, 마중하듯이, 서연과 함께 어우러져</p> <p style="text-align: right;">277</p> <p>01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㉑ 유미 눈중은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이다. ㉒ 가설 추리는 가장 개연성 있는 가설을 찾아가는 추론의 과정이다. ㉓ 유미 눈중에서 대상 사이의 유사한 특성이 많을수록 논증의 개연성은 높아진다. ㉔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명백한 비유사실을 제시하는 것은 유미 눈중을 가장 효과적으로 논박하는 방법이다. ㉕ 가설 추리는 어떤 사실의 발생 원인을 추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범칙이나 관측 사례, 수집된 자료를 배제하는 추론이다.</p>

〈'독서'의 연계 예시〉

평가원이 연계 출제한 지문과 문제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지문
<p style="color: #4CAF50;">(2016학년도 수능 B형 29~30번)</p> <p>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이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라 한다.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 의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밀도가 서로 다른 구 모양의 물체 A와 B를 공기 중에 고정하였다. 이때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더 크다. 물체 A와 B를 놓아 주었더니 두 물체 모두 속도가 증가하며 상승하다가, 각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계속 상승하였다. (단, 두 물체는 공기나 다른 기체 중에서 크기와 밀도가 유지되도록 제작되었고, 물체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체의 흐름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가정함.)</p>	<p style="color: #4CAF50;">(2017 수능 특강 '문학' 205쪽)</p> <p>하지만 모든 물체는 낙하 시 속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속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게 된다. 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이다. 즉,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인 중력과 공기가 물체에 작용하는 저항력이 같아질 때, 물체는 더 이상 가속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한다.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중력가속도를 곱한 값이므로 물체의 낙하 시 일정한 값을 유지하지만, 떨어지는 물체에 작용하는 공기의 저항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왼쪽 그림은 영화 촬영 중인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비행기를 장악한 악당들이 한 여성을 비행기에서 밀어 버려서 그녀가 추락하고 있다. 낙하산을 등에 맨 쌍둥이 형제 A와 B가 추락하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악당의 시차를 두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그들이 낙하하는 장면을 카메라맨이 촬영하고 있다. (단, 네 사람 모두 종단 속도에 도달할 만큼 충분한 높이에서 뛰어내렸다고 가정함.)</p>

나. 과목별 학습 전략

1) '화법'

'화법'은 말하고 듣는 전략과 방법에 관한 과목이다. 수능에서 '화법' 과목들의 출제 요소가 되는 이론은 그다지 심오하거나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만 주의를 기울여 기본기를 닦아 두면 실수를 하지 않는 한 크게 애를 먹이지 않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BS 수능 개념 강의와 교재를 통해 기본적인 이론들을 이해해 둔 뒤, 시험에서 반복되는 전형적 문제 유형들마다 효과적으로, 즉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기르려는 노력을 하면 쉽게 정복할 수 있다.

'화법' 과목에서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자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 몇 가지를 보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말하기 방식 파악	듣기 전략 파악
<p>1. ㉠~㉔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상대방의 뜻에 동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통해 부정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③ ㉢: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것을 통해 겸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㉔: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표현하면서 부탁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㉔: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여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 들었음을 드러내고 있다.</p>	<p>4. 다음은 어느 학생이 [A]를 들으며 메모한 내용이다. ㉠~㉔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듣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p> <p style="text-align: center;"><서미의 기록></p> <p>① 첫 번째 기능: 벽과 기둥 보요. - 울과 나무가 물에 익하기 때문임. ②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발표자가 반복함. - 내가 사는 여포트에서는 중요한 기능이 아니겠군. ③ 두 번째 기능: 계절에 따른 실내 열조절 조절. - 여름과 겨울의 태양 고도 차이를 이용함. ④ 겨울에는 태양이 낮게 뜬 / 겨울에는 햇빛이 천정에 들리지 않음. ⑤ 모두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고려했음.</p> <p>① ㉠로 보아,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p>



화법 참여자의 계획 이행 및 효과적 수행 여부에 대한 평가

3. 다음은 '영우'의 발표 계획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ㄱ.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발표 순서를 안내해야겠어.

ㄴ.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려는 대상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직접 인용하여 제시해야겠어.

ㄷ.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이 청중에게 분명하게 인식되도록 다른 대상과의 차이점을 부각해야겠어.

ㄹ. 발표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설명하려는 대상과 관련된 나의 경험을 제시해야겠어.

ㅁ.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을 청중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며 발표를 마무리해야겠어.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3. 다음은 배심원이 작성한 평가표의 일부이다.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계	평가 기준	표본자	평가 내용
인본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가?	찬성 1	친구와의 관심사 공유, 인간관계의 확장은 팬덤 활동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한 것이므로 타당함.....①
		찬성 2	문화 실천의 주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은 팬덤 활동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한 것이므로 타당함.....②
		반대 1	팬덤 활동의 배타성, 스타에 대한 맹목적 숭배는 팬덤 활동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한 것이므로 타당함.....③

문제와 선지의 진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화법' 과목의 문제들은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수험생 대부분이 맞힐 수 있는, 상식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실제 수능에서 '화법' 과목의 성패는 대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정답을 빨리 찾아내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작문'

'작문'은 글쓰기의 절차와 요령에 대해 공부하는 과목이며, '화법'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심오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화법'의 공부 요령처럼, EBS 개념 강의와 교재를 통한 기본 개념 이해, 그리고 전형적 문제 유형에 대한 숙달을 목표로 삼으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작문'의 경우 특히 작문의 과정, 즉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의 단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작문'의 전형적 문제들은 대개 작문 과정의 각 단계마다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작문의 특성 파악하기	작문 전략 파악하기
<p>6. (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글쓰기 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배경 지식은 배제한다.</p> <p>② 의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와 소통하려는 활동이다.</p> <p>③ 글의 화제는 개인적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격도 지닌다.</p> <p>④ 내용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체 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p> <p>⑤ 일상생활에서 파악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다.</p>	<p>6. 학생의 초고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현재의 문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사례로 든다.</p> <p>②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의 심각성을 부각한다.</p> <p>③ 현 상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한다.</p> <p>④ 논지의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의 정책과 자신이 내세운 대안을 비교하여 제시한다.</p> <p>⑤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화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한다.</p>

자료 수집 및 활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조건에 따라 표현하기**

7. (나)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자료를 제시한 후, ㉠을 바꾸어 쓰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4년 국외 문화제 파악 현황>

<국외 문화제 환수 현황>

그래프에서 국외 문화제 분포를 살펴보면 국외 문화제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그래프에서 문화제 환수 주체의 상대적 비중을 보면 현재까지 문화제 환수가 정부 주도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조 건>

○ (가)의 ㉠과 관련하여 향토 음식의 가치를 제시할 것.

○ 속담을 적절히 활용하여 (나)의 ㉠을 유도할 것.

① 향토 음식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음식으로서 현재의 식문화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다. 따라서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향토 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보완 방안의 적절성 평가하기 **고쳐쓰기 방안의 적절성 평가하기**

8. <보기>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국외 문화제를 들여오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여와서도 보관과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하면 국외 문화제를 꼭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국외 문화제 환수 비용 내역을 추가하여 국외 문화제 환수가 어려움을 부각해야겠군.

8. (나)의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하여 '부착될'로 고친다.

② ㉡: 피동 표현이 중복되었으므로 '나뉘다'로 고친다.

③ ㉢: 문장의 연결 관계가 어색하므로 '그런데'로 고친다.

④ ㉣: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기준의'로 고친다.

⑤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실천하는'으로 고친다.

화법과 작문 분야에 관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해 두기로 한다. 2018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의 경우, 화법과 작문이 결합된 네 문제짜리 세트형 문항이 출제되기도 하였

[4~7] (가)는 학생들이 발명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이고, (나)는 이를 참고하여 '학생 1'이 '학습 활동' 과정에서 작성한 설명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안녕하세요? 학생 발명가이신 선배님께 궁금한 게 많습니다. 먼저 발명이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발명가: 네. 발명은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롭게 생각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학습 활동]

1.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발명 동아리 소식지에 글 쓰기

2. 상호 평가를 통한 고쳐 쓰기

(나)

학생들은 발명을 어려워한다. 그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다. 이것은 아이디어를

이런 경우는 문제 풀이에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매우 늘어나므로, 문제의 난도 자체가 높지 않더라도 고득점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화법, 작문 분야의 신유형 출제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 대비의 핵심은 역시 본질적인 기능 숙달이다. 복잡해 보이는 세트형 문항일 지라도 각 문제의 바탕을 이루는 출제 요소는 결국 기존의 문항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므로 실전 상황에서



과도하게 겁을 먹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위에 예로 든 전형적 유형들마다의 효율적 해결 전략이 완전히 몸에 익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평소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놓도록 하자.

3) '문법'

'문법'은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공부하기도 싫어하는 과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독서'와 더불어 상위권 등급 변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정도로 중요한 분야이므로 확실히 공부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문법'은 개념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그 어떤 과목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화법'이나 '작문', 심지어 '독서'나 '문학'보다도 체계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엄격한 과목이기 때문에, '문법'에서는 모든 탐구와 적용에 기반으로 작용하는 개념이나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일차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법'의 열개는 대체로 '국어의 구조', '국어의 규범', '국어의 역사'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국어의 규범'은 각종 어문 규정의 이해와 탐구, 올바른 문장 표현의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고, '국어의 역사'는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로 오면서 우리말이 각 단위에서 겪은 주요 변화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국어의 규범'과 '국어의 역사' 부분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어의 구조'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어의 구조'는 다시 음운, 단어, 문장, 담화, 의미에 대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거의 모든 내용은 이 '국어의 구조' 단원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어의 구조' 단원을 이루는 주요 개념들(음운의 개념과 체계, 음운의 변동, 형태소 및 단어의 개념, 단어의 구조와 종류, 각 품사의 특성, 문장 성분의 기능과 특성, 문장의 종류,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의 종류 및 특성, 종결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부정 표현, 담화의 기능, 의미의 종류와 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어문 규정과 올바른 문장 표현, 그리고 국어사의 주요 변화 등을 학습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주요 출제 요소와 관련된 전형적인 문법 문제 몇 가지를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음운의 체계와 변동 이해	단어의 구조 파악
<p>13.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p> <p>먼저 '집일[집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답만[당만]'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뜻하다[뜨타다]'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말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p>	<p>15. 다음의 ㉠에 제시된 파생 접사들을 이용하여 새말을 만든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선생님: 새말을 만들 수 없다면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도 부를 수 없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새말을 만드는 능력이 있지요. 만일 선생님이 '웃보'라는 새말을 만들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p> <p>지호: 잘 웃는 사람일 것 같아요.</p> <p>선생님: 맞아요. '-보'는 어떤 특성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파생 접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물에는 쓸 수 없어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파생 접사에는 '-보' 외에 '-지기, -꾸러기, -장'이 있는데 각각 쓰임이 달라요. 이 접사들의 뜻에 맞게 새말을 만들어 봅시다.</p>

품사의 특성 이해	문장 성분의 기능 이해
<p>12. <보기 1>을 바탕으로 ㉠과 품사가 같은 것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보기 1></p> <p>문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에 하는 ㉠달리기는 건강에 매우 좋다. ○ 나는 모임에 늦지 않으려고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p>설명</p> <p>㉠과 ㉡은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르다. ㉠은 '달리-'에 접미사가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은 '달리-'에 명사형 어미가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며 서술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p>	<p>12. <보기>를 바탕으로 '목적어'에 대해 탐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 내가 ㉡빵을 먹은 건,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면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주셨다.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같이 드시지 않겠냐고 여쭙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그럼, ㉤우유나 마실까?" 하면서 식탁에 앉으셨다.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는데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p> <p>① ㉠과 ㉡을 보니, 목적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으로 쓰이는군.</p>

문장의 구조 분석	문법 기능의 탐구
<p>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명사절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다음의 밑줄 친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알아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깔이 회기가 눈과 같다.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 ㉤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르다. <p>①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②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 ③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목적어로 쓰였다.</p>	<p>12.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선언말 어미 '-았/-었'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p> <p>(가) 오늘 아침에 누나는 밥을 안 먹었어요. (나) 들뜬에 안개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다) 이렇게 비가 안 오니 농사는 다 지었다.</p> <p>(가)에서와 같이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와 같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경우와 달리 (나)의 경우에는 '-았/-었'을 보조 용언 구성 '-아/-어 있-'이나 '-고 있-'으로 교체하여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다)에서와 같이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내기도 한다.</p> <p>① ㉠ [A: 어제 뭐 했니? B: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았어.</p>

담화의 분석	의미의 특성 이해
<p>15. 담화 상황을 고려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A: 어제 낮엔 많이 바빴니? 전화를 바로 끊더라. B: 아니야, 끊은 게 아니라 ㉠끊어진 거야. 바로 전화 못해서 미안해.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 A: 아니, ㉡저기, 심각한 건 아니고 어제 점심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기다려도 안 오길래 말이야. B: ㉢아차!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 A: ㉤자세히 말해 볼래? B: 동생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했거든. A: 그런 일이 있었구나. 동생은 좀 괜찮니?</p>	<p>1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단어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면서 ㉠중심적 의미가 ㉡주변적 의미로 확장되어 다의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일례로 자연과 관련된 단어가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중심적 의미로 쓰이다가 비유적으로 확장되어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p> <p>(가) 여름이 오기 전에 홍수를 대비한다. (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가)의 '홍수'는 중심적 의미로, (나)의 '홍수'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p> <p>① [㉠: 천체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관찰했다. ㉡: 어제 물리학계의 큰 별이 졌다.</p>

추론적 독해 - 구체적 사례에 적용	추론적 독해 - 적절한 사례 판단
<p>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보험사 A는 보험 가입자 B에게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p> </div> <p>①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p>	<p>13. ㉠에 따라 원인을 찾아낸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p> <p>① 아침에 두꺼비가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장대비가 내렸다. 따라서 두꺼비의 울음이 장대비의 원인이다.</p> <p>② 아이의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겼는데, 반점이 생기기 전에는 열이 있었다. 따라서 열이 붉은 반점의 원인이다.</p> <p>③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 직장인이 그 원인을 따져 보니 평소와 달리 그날 저녁에만 커피를 마신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커피가 불면의 원인이다.</p> <p>④ 신장 결석에 걸린 20명의 아이들이 먹은 음식물을 모두 조사해 보았더니 유일한 공통 요소는 A사의 분유였다. 따라서 A사의 분유가 신장 결석의 원인이다.</p> <p>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 시간은 평균 30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고, 같은 기간에 학력은 평균 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컴퓨터 게임 시간이 증가한 것이 학력 하락의 원인이다.</p>

비판적 독해 - 준거에 의한 비판의 타당성 평가	어휘의 의미 파악
<p>19. 윗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p> <p>②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p> <p>③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은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p> <p>④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p> <p>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p>	<p>19.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p> <p>① 가을이 되면 그 어느 때보다 하늘이 높다.</p> <p>②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p> <p>③ 이번에 새로 지은 건물은 높이가 매우 높다.</p> <p>④ 잘못을 시정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p> <p>⑤ 친구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름이 높다.</p>

한편 ‘독서’는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별 제재로 출제되므로, 각 분야별로 자주 출제되는 지문의 유형, 주제의 세부 분야, 대표적 문제 유형 등에 관해 알아 두는 것이 좋다. 예컨대 과학 분야의 지문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수학 등 자연과학 전반에 관해 폭넓게 다루되, 특정한 과학 현상의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글이 대부분이므로, 과학 분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지문 내의 개념이나 용어들 간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나 상관관계에 관한 정보에 유의하는 방식으로 독해하는 연습을 한다든지, 지문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문제의 <보기> 안에 들어 있는 그림이나 도표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연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또 수능 국어 시험의 ‘독서’ 지문은 대체로 특정한 몇 가지 논지 전개 방식 중 하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중심 화제에 해당하는 특정 대상의 변화 양상을 시대순으로 정리한다든지, 상반된 견해를 지닌 두 학자의 주장을 대비하여 소개한다든지 하는 식이다. 이때 이러한 지문의 특성은 사실적 독해 차원의 ‘논지 전개 방식 파악’ 문제 유형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은 물론, 지문의 효과적 독해 요령과도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평소 학습 과정에서 각별히 의식하면서 독해 연습을 해 두는 것이 좋다.

‘독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문 안에 담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본적 능력임을 잊지 말

아야 한다. 추론도 비판도 모두 거기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소 ‘독서’ 공부를 할 때는 무엇보다 지문 내 주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중심에 둘 필요가 있다.

참고로 알아 둘 것은 ‘독서’ 분야의 지문 구성 방식이 꽤 다채롭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의 경우, 4개 분야를 3개 지문으로 처리하는 지문 구성상의 변화를 선보였다. 인공 신경망의 학습 원리를 설명한 ‘기술’ 지문과, 유비 논증의 문제점에 대한 ‘인문’ 지문에 이어, 음악에서의 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설명한 지문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과학’과 ‘예술’을 결합한 6문제짜리 초대형 세트였다. 이른바 융합형 지문이 탄생한 것이다.

약기가 ㉠ 내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성인 음색은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즉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른음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타악기 소리는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소리 스펙트럼은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은 <그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세로 막대들로 나타나는 반면에 시끄러운음의 소리 스펙트럼에서는 막대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이러한 융합형 지문을 구성하는 경향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콘크리트를 매개로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을 엮어 기술과 예술의 융합 지문을 구성한 방식, 2017 수능에서 보험을 매개로 하여 법과 경제를 엮은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융합 지문은 독해에 걸리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의 난도도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융합 지문을 처리하는 별도의 요령을 익히려 노력하는 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 융합 지문 역시 근본적으로는 독서 분야의 지문 독해 능력을 극대화하는 본질적인 공부와 지속적 훈련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문학’

수험생들에게 ‘문학’은 공부하기가 상대적으로 재미있는 과목이긴 하지만, 수능 시험에서는 ‘독서’와 더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담되는 과목이자, 특히 낯선 작품을 시험에서 만났을 때 난감함과 막막함을 절감하게 만드는 과목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공부는 각 장르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감상 능력의 신장, 주요 문제 유형에 대한 숙달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우선 세트 구성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수능 국어의 ‘문학’은 크게 현대시, 고전 시가, 현대 소설, 고전 소

설, 극/수필, 이렇게 다섯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현대시나 고전시가 분야에서 두 작품 이상을 한 세트 로 묶는 지문 구성을 보일 때가 많으나, 현대시와 현대 수필 복합 지문, 고전 시가와 고전 수필 복합 지문, 현 대 소설과 시나리오 복합 지문, 현대시와 희곡 복합 지문 등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또 현대 소설 세 트에서 출제된 다음 문제에서 보듯, 단독 작품의 지문 구성일지라도 문제의 <보기>에 다른 장르의 작품을 추 가로 제시하여 비교 감상을 유도하는 형식으로도 출제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7. 윗글의 [도요세]와 <보기>의 [매화]에 대하여 감상한 내용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어리고 성긴 [매화]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 기약(期約) 능(能)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축(燭) 잡고 가까이 사랑할 제 암향부동(暗香浮動)하더라
 - 안민영, 『매화사』 제2수 -

*암향부동: 그윽한 향기가 은근히 떠돌.

① '도요세'는 인물에게 자신감을 주고, '매화'는 화자에게 자존 감을 상실하게 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개별 작품이나 장르에 대한 이해에 국한하지 말고 복수의 작품을 비교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세트의 구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극문학이나 수필이 출제되는 방식은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극문학이나 수필은 둘 중 하나만 출제되거나, 복합 지문 구성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 된다. 그러므로 극문학과 수필에 대한 공부는 다양한 출제 방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된 작품과 엮 어 읽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트의 구성 방식에 대해 알았다면 각 장르별 주요 출제 유형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장르 고유의 특성과 긴밀하게 결부된 것이므로, 장르별 감상 원리를 터득하는 공부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우선 운문 문학, 즉 현대시와 고전 시가의 경우에는 대개 '화자의 태도와 작품의 정서 이해', '시어의 의미와 기능 파악', '시상 전개 방식 파악', '표현상의 특징 이해', 그리고 작품 해석의 준거가 되는 내용을 <보기>에 제시하는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등등의 문제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세 문제짜리 현대시 세트는 다음 과 같은 발문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1.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현상 특징 파악)
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어의 의미와 기능 파악)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산문 문학 중 소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물의 유형과 성격 이해', '갈등의 원인과 종류 파악',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이해', '인물의 제시 방식 파악', '소재 및 배경의 서사적 기능 이해',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어휘 및 관용 표현의 적절성 평가' 등등의 문제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다음의 두 가지 예에서 보듯, 고전 소설 세트의 발문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성을 보이는 것이다.

1. [A]와 [B]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이해)
2. 윗글의 '승상'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의 유형과 성격 이해)
3. <보기>를 참고할 때,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4. ㉠의 화자에게 ㉡을 지닌 '승상'이 격려해 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및 관용 표현의 적절성 평가)

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물의 유형과 성격 이해)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재 및 배경의 서사적 기능 이해 +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이해)
3. <보기>를 참고하여 [A]~[C]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을 제외한 산문 문학은 극문학과 수필이다. 극문학의 경우는 '인물의 성격 파악', '갈 등의 구조 및 사건의 전개 양상 이해', '극적 형상화 기법의 적용' 등의 문제가 출제되며, 수필은 주로 '작가의 관점 및 태도 이해', '교훈적 주제 파악', '서술상의 특징 및 개성적 표현 이해' 등의 문제가 출제된다.

'문학' 과목에서 지문으로 선택되는 작품들은 워낙 폭이 넓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짓기 어렵지만, 대체로 장 르의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 주어 전범이 될 만한 작품, 또는 문학사적 의의가 뚜렷한 작품일 때가 많은 편이 다. 문제에 활용되었던 다음과 같은 <보기>들은 이를 뒷받침한다.

<보 기>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김광균은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다. 그는 상 실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에 회화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1950년대 후반의 시적 경 향을 보여 주는 박용래는 모더니즘의 기법에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결합했다. 그는 사라져 가는 재래의 것들을 회 화적 이미지로 복원하여 토속적 정취를 환기하고, 소박한 자 연의 이미지를 병치하여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 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보 기>

정지용과 이태준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서로 다른 방식으 로 표현한다. 정지용은 『조환』 같은 후기 시에서 자연을 초 월과 온도를 꿈꾸는 이상적 세계로 묘사하고 그에 대한 지 향을 드러낸다. 하지만 자연은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인해 그러한 지향이 좌절되는 공간으로도 나타난다. 한편 이태준 은 『파초』 같은 수필에서 자연물과의 교감을 시도한다. 그에 게 자연물은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이며, 그는 그것들에 대해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드러낸다.

따라서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들을 중심으로, 문학사적 비중이 큰 작가들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공부해 두 되, 앞서 얘기했듯 EBS 수능 교재의 연계 출제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분야가 문학이니만큼 <수능 특강> 과 <수능 완성> 같은 수능 연계 교재의 수록 작품은 특히 완벽하게 공부해 두어야 한다.

참고로, 문학 역시 작품 자체로만 지문이 구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문학 이론이나 문학사 서술에 해당하는 설명문을 문학 작품과 함께 지문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문 구성 방식은 201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험의 25~27번 세트에서는 고전 시가 두 편(『동동』, 『가시리』)과 함께 고려 속옥의 기원과 형성에 관한 설명문을 지문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문학 작품 텍스트 외에 문학 이론 지문을 제시하는 방식은 예전에는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유형 이다. 그러다 보니 세트의 첫 문항인 25번 문제는 지문의 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독서' 문제와 다름 이 없는 형태로 출제되었다.

한편 여러 종의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 대부분을 다루고 있는 <독해의 원리> 시리즈 교재를 수능 준비에 함 께 활용하는 것도 연계 교재 중심의 학습을 보완하는 현명한 전략이 될 것이다.



다. 시기별 학습 전략

1) 2월까지

2학년 가을 이후부터 수험생이 되는 해의 2월까지의 전국의 수험생 누구나 의욕에 넘쳐 열심히 공부하는 때이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 잘못된 전략과 방법으로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다.

본격적으로 수능 연계 교재가 출간되는 시기까지 일단 개념과 기출을 완성해 둔다는 각오로 공부하자. 1단계인 '개념'은 EBS 수능 개념 시리즈의 교재와 강의를 활용하여 충실히 다지고, 2단계인 '기출'은 <기출의 미래>, <수능 기출 분석 특강>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면 된다. 이 시기에 '개념'과 '기출'을 완성해 두는 것은 수능 고득점으로 가는 탄탄대로를 닦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심해야 한다.

2) 3월부터 6월까지

첫 번째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을 중심으로 학습해야 할 시기이다. 이때는 특히 화법과 작문, 문법, 독서, 문학 각 분야별로 단단한 기본기를 길러 두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수능 특강>을 공부하면서 이전에 해 두었던 개념 학습의 결과를 분야별로 점검 및 복습해 두는 것이 좋다. 만일 개념에 대한 학습을 이전에 충분히 하지 못했다면 <수능 특강>과 병행하여 분야별로 수능 개념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시기이다.

3) 7월부터 9월까지

6월 모의 평가의 결과와 출제 경향을 학습 전략에 반영해야 하는 시기이며, 무엇보다 연계 교재인 <수능 완성>을 중심에 두고 공부해야 하는 때이다. 이 시기에는 특히 여름방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야말로 독서의 과학 분야나 문학의 고전 시가, 문법 등등 자신의 약점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더 이상 그 분야가 약점이 아닐 수 있게 바꿔 놓을 마지막 기회이다. 또한 수시 모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그 때문에 수능 대비 학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4) 10월부터 수능까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모두 철저히 공부한 바탕 위에서 연계 교재 복습 정리와 실전 연습에 매진해야 할 시기이다. 연계 교재를 복습할 때는 특히 문학 작품과 독서 지문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이 시기는 자신의 실력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마무리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때이다. 연계 교재 공부를 못 끝낸 학생이거나 성적이 계속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학생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연계 교재 총정리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며, 연계 교재를 완벽하게 끝낸 상위권 학생이라면 <신유형 & 고난도 120제>, <천제의 약속>, <파이널 모의고사>, <만점 마무리> 같은 비연계 교재를 통해 실전 연습을 충분히 해 보는 것도 좋다.

이상에서 설명한 시기별 학습 전략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	대상	단계
~2월	수능개념	개념
	기출의 미래, 수능 기출 특강	기출
3월~6월	수능특강	실전
7월~9월	수능완성	
10월~수능	신유형 & 고난도 120제, 천제의 약속, 파이널 모의고사, 만점 마무리 등	복습, 연습

4.2 수학

가. EBS 활용 수학 학습법

1) 연계교재는 적어도 3회 이상 학습할 것

1회 학습할 때에 다시는 보지 않을 각오로, 장기기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복학습이 필수

자연계열 기준 연계교재는 수능특강(미적분Ⅱ,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수능완성이다. 책의 권수와 각 책의 분량까지도 많이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연계율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계교재를 더욱 열심히 봐야할 것이다. 대수능 전에 각 교재를 최소 3회 이상 볼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짜야 한다. 단, 1회 볼 때에는 다시는 보지 않을 각오로 확실하게 봐야한다. 다음에 또 볼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강 학습하게 되면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생기고, 그런 부분은 다음번에 학습할 때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기에 한번 학습할 때에 확실하게 해두고 가야한다.

시험이 다가오고 막바지로 갈수록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포기하게 되는 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되도록 처음 책을 접할 때 확실하게 학습해 두는 것이 좋다. 한편, 1회를 확실하게 학습했다라도 사람의 장기기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복학습이 필수적이다.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3회 반복, 경우에 따라서는 5회 정도 반복을 해주어야 당황스럽고 긴장 상태인 시험 당일이 되었을 때 연계된 수능문제를 서슴없이 풀 수 있을 것이다.

2) 기출문제를 통해 연계교재-대수능 연계방식을 잘 파악해 둘 것

문항의 축소·확대·변형의 방식으로 가장 많이 연계된 연계교재의 문제가 대수능에 연계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크게 개념·원리 활용, 문항의 축소·확대·변형, 자료·상황 활용 등으로 나뉘볼 수 있겠다. 이 중 문항의 축소·확대·변형의 방식으로 가장 많이 연계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 학생들은 가장 체감 연계율이 높기도 하다.

3) 개념은 여전히 중요하다!

개념-정리(공식)-증명-예제-유제를 잘 익혀두어야, 중요한 증명도 꼭 해볼 필요.

어떤 예제와 유제로 구체화 되는지까지 같이 연습수학에 있어 여전히 개념학습이 중요하다. 개념을 배제한 채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보면 처음 보는 생소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이 잘 안 된다. 수학에서는 개념-정리(공식)-증명으로 이어지는 조합에, 예제-유제를 잘 연결 지어 기억하고 연습해두어야 개념이 비로소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자칫 문제풀이 위주로 해야 한다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개념-정리(공식)-증명-예제-유제를 잘 익혀두어야 하며, 특히 중요한 증명은 꼭 해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다소 난이도 높은 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문제 출제자가 중요한 정리의 증명의 핵심 아이디어를 문제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학에서 예제가 없는 개념은 문제에 적용력이 떨어진다. 개념학습 시에 반드시 어떤 예제와 유제로 구체화 되는 지까지 같이 연습해두어야 문제가 나왔을 때에 개념을 떠올리고 비슷한 아이디어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4) 연습과 복습

문제풀이의 아이디어를 짜보는 것만도 훌륭한 연습, 복습은 마치 그림자를 밟아가며 가는 것처럼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일반적으로 수능특강, 수능완성 연계교재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할 때 연습을 해오면 좋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때 연습의 의미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쉬운 예제와 유제는 풀어보면서 개념을 되짚어 보고, 완벽하게 풀어들 수 있겠지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완벽하게 답까지 내면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씩 고민해보고 어떤 개념을 활용할지를 생각해오는 것 자체가 충분한 연습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문제풀이의 방법을 미리 고민해보고 오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해도와 응용력이 높아지고 기억 또한 오래가기 때문에,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고3 수험생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한편, 수학은 연습보다 복습이 훨씬 중요한 과목이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연습과 복습을 동시에 하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 수학과목만 공부하는 것은 아니기에 모두 할 수 없다면 복습을 탄탄히 하는 편이 더 좋다. 이때 복습을 하는 방법은, 그림자가 다 지나간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림자를 밟아가며 가는 것처럼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날 학습한 내용은 그날 반드시 복습을 하되, 소단원 1단원이 끝날 때 즈음 되면 2단원 진도를 나가면서 다시 1단원 복습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만약 3~4단원쯤 배울 때에 다시 1단원 복습을 하려고 보면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새로 공부를 하는 기분이 들 정도가 되겠지만, 보다 일찍 복습을 시작하면 복습의 효과가 배가 되고 복습 시간도 짧아진다.

5) 입과 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학습을 할 것!

다양한 감각을 잘 활용해 학습하다보면 나중에는 육감(수학적인 센스)까지 길러 탁월한 문제해결력을 갖추게 될 것!

수학은 매우 정직한 과목이기에, 어렵지만, 성실함과 꾸준함만 있다면 가장 잘하기 쉬운 과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만, 절대 수학은 눈으로만 하는 과목이 아니며, 반드시 손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쉬운 계산도 직접 끝까지 해야 한다. 특히 쉬운 계산 문제라고 눈으로만 학습하게 되면 긴장된 시험 상황에서는 너무 쉬운데 헛갈리거나 실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 입으로 반복하면서 남에게 설명해 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자신이 설명했던 풀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잘 잊지 않아 그 어떤 공부법보다 확실한 공부법이라 할 수 있다. 또 그만큼 확실히 알고 이해해야 입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정을 확실하게 하는 습관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감각을 잘 활용해 학습하다보면 그 기억을 머리가 다시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그 풀이를 다른 문제를 풀 때에도 적용하게 되고, 나중에는 육감(수학적인 센스)까지 길러 탁월한 문제해결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6) 과목 편식을 하지 말 것!

과목간의 편식은 절대 금물, 개인차에 따라 과목 간 학습 시간은 융통성 있게 계획 세워야 할 것이다. 수학 영역은 과목 별로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을 보인다. 2018학년도에도 미적분Ⅱ,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과목의 고른 출제가 예상된다. 정해진 짧은 시간에 세 과목을 모두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에, 자칫 한 과목에 치중해 학습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과목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30문제를 다 맞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목간의 편식은 절대 금물! 물론 개인차에 따라 과목 간 학습 시간은 융통성 있게 계획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하면, 1,2학년 때에 이미 학습한 미적분Ⅱ는 수능연계교재 위주로 매일 정해진 시간동안 복습을 꾸준히 하고, 가형 선택 학생이라면 2학년 2학기, 3학년 때에 처음 배우는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는 상반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나형 선택 학생이라면 3학년 때에 처음 배우는 확률과 통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내용을 마스터하고 연계교재까지도 섭렵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다.

나. 수학 Q&A

Q1.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개념이 등장하면?

A. 그냥 수학공부를 하는 것이라면 스스로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능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등장한다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이해하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개념을 끝까지 한 번 다 본 후 다시 처음부터 보면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등장하면 다시 한 번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지금 이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뒷부분의 개념이 오히려 쉬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한 번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공부하도록 하자.

Q2.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등장하면?

A. 5분에서 10분 정도 고민하다가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자신이 아는 만큼만 연습장에 적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한다. 오늘 풀어야 할 문제를 끝까지 다 풀어본 다음,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자. 그래도 안 풀릴 경우 강의를 참고하거나 해설지를 봐야 한다. 다만, 반드시 자신이 왜 그 문항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를 꼭 파악하고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

Q3. 기출문제는 어떤 것을 푸는 것이 좋나요?

A. 우리의 목표는 3월 학력평가도, 10월 학력평가도 아닌 '수능'이다. '수능'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출제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 즉, 평가원 모의평가와 수능 기출문제를 분석하도록 하자. 평가원 모의평가는 6월과 9월에 실기하기 때문에 6월, 9월 모의평가와 수능 기출문제만 제대로 분석해도 충분하다.

Q4. 문제집에 그냥 문제를 풀면 안 되나요?

A. 반드시 연습장에 문제를 풀도록 하자. 틀린 문항의 경우에 자신의 풀이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면서 왜 틀렸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문제집에 그냥 문제를 풀었을 경우 자신의 풀이를 본인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장에 문제를 풀고, 틀린 부분을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고난도 문항의 경우 연습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엇을 풀고 있는지 목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프 문제나 도형문제 역시 스스로 연습장에 그려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반드시 연습장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자.

다. 수학 (가)형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시험은 시험의 성격에 맞게 준비해야 그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수학영역에는 시험과목과 과목의 내용의 삭제와 추가가 있었다.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시험이 자리를 잡게 될지 주목하고 어떻게 수능을 잡아야할지 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다.

1) 평가원이 제시한 수학(가)형 학습법

평가하고자 하는 행동 영역으로는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해결 능력이 있다. 각 영역마다의 예시 문항을 통해 학습방법과 수능 문항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자.

- ① 기본적인 계산 원리나 연산법칙, 성질을 적용하기 - 좌표공간에서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에 대한 계산을 묻는 문제 (2016학년도 수능 수학B형 3번)
- ②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 평면곡선에서의 정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2016학년도 수능 수학B형 26번)
- ③ 수학적 언어(용어, 기호, 식, 표, 그래프 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B형 18번)
- ④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용하여 참인 성질을 이끌어 내거나 주어진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기 - 함수의 연속과 미분에서 연속, 극값, 미분가능성 등 주어진 조건에서 나타나는 성질을 이용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평가하는 합답형 문항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B형 16번)
- ⑤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빈 속에 알맞은 식을 구할 수 있는 능력 - 삼각함수가 포함된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B형 21번)
- ⑥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수학 문제 해결하기 - 벡터의 내적과 공간도형의 성질, 구의 방정식,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등 다양한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2016학년도 수능 수학B형 29번)
- ⑦ 실생활 문제를 수학적으로 관찰, 분석, 조직하여 문제 해결하기 - 통계에서의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신뢰구간의 뜻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2016학년도 수능 수학B형 13번)이나 집합의 분할을 이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아래 제시된 예시문항)

2017학년도 수능 수학(가)형 예시문항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여자 3명과 남자 4명의 출연자를 3개의 조로 나누려고 한다. 각 조에는 여자 1명과 남자 1명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할 때, 7명의 출연자를 나누는 경우의 수는?

- ① 32 ② 34 ③ 36 ④ 38 ⑤ 40

- ⑧ 하나의 상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문항이 포함되어, 주어진 상황을 보다 깊이 탐구하여 이해하고 해결하기 - 정적분을 활용하여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지와 도함수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세트형 문항(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B형 13 ~ 14번)으로 주어진 상황을 깊이 탐구하고 분석하여 서로 다른 내용 영역에서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학(가)형 학습법

① 개념을 확실히 하자.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다고 한다. 정말 맞는 말이다. 수학공부는 처음도 개념, 끝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학생들마다 다르다. 어떤 학생은 공식이 개념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공식을 안다고 해서 문제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념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알려진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개념이 잘 잡혀있다고 할 수 있다. 개념의 정도나 한계는 학생들마다 다르다. 그러나 모의고사에서 3점 정도의 문제를 가볍게 풀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기본은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여 수학적 사고력이 더해져야 개념이 단단해진다. 즉, 개념은 출제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보자.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디테일한 개념까지를 공부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② 과목 공부는 골고루 해야 한다.

수학(가)형의 시험문제는 세 과목에서 골고루 출제된다. 따라서 세 과목을 골고루 공부해야 한다. 시험 출제 문항수도 과목마다 10문항 출제가 원칙이다. 다만 과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까지 가감할 수 있다고 한다. 미적분Ⅱ는 증가, 확률과 통계는 감소될 확률이 높다. 시험과목이 미적분Ⅱ부터지만 미적분Ⅰ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은 되어있어야 한다. 시험 보는 것처럼 공부할 필요까지는 아니지만 빠르게 기본개념과 기본문제는 연습하고 시험과목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중하위권 학생들은 너무 어려운 문제는 넘기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쉬운 것부터 개념을 제대로 공부해서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면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공부를 지속하기 힘들다. 중하위권의 많은 학생들의 공부를 지속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③ 각 단원의 핵심유형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하라.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핵심유형문제를 풀고 또 풀어라. 다시 풀 때는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지? 더 간단히 계산 할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해보라. 계산이 복잡해질수록 틀릴 가능성은 더 많아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일단은 기본 유형들을 문제은행식으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문제와 유사한지, 어떤 내용을 써서 풀 수 있겠는지를 생각하여 적절한 해법을 찾아라. 이것이 더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답을 보지 말아야 한다. 답을 보지 않고 다른 문제와 비교, 검토하면서 공부하여야 시야가 넓어진다.

④ 고등학교 수학의 전 과정을 머릿속에 정리하라.

큰 단원이 어떤 것이 있고 각 단원 속에는 어떤 소단원이 있으며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마인드 맵 형태로 그려본다. 수학이란 논리적인 학문이고 단원의 구성도 논리적이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구조를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핵심유형문제를 익히는 것이 평면적 학습이라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입체적 학습법이다. 모든 과정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각 단원의 핵심은 무엇인지, 어떤 문제들을 다루었는지, 단원끼리는 서로 어떤 식으로 관련 되는지 등을 생각해보되 잘 안되면 교과서 차례를 펴놓고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훈련이 되어있으면 신경향의 문제나 단원통합형문제, 고난이도의 응용문제 등에 강해지게 된다.

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습관을 가져라!

누가 어떻게 풀고 있는가를 구경하는 학습은 학습이 아니다. 이런 자세로는 수능을 대비할 수 없다. 모의평가와 수능에 출제되는 신경향의 문제라도 교육과정의 내용을 묻는 것이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문제를 읽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개념, 알고 있는 지식들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과정을 충분히 연습해야 하며 이런 연습을 잘한 학생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⑥ 매일 일정한 학습을 하라.

하루에 몇 문제씩은 꼭 풀도록 하자. 수학은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풀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과목을 학습하는 날이라도 하루에 세 문제 정도는 꼭 풀면서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수학영역은 올바르게 공부하면 노력한 만큼의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니 성급한 문제풀이로 욕심내지 말고 개념을 철저히 익히되 매일 일정한 시간 이상의 학습을 하여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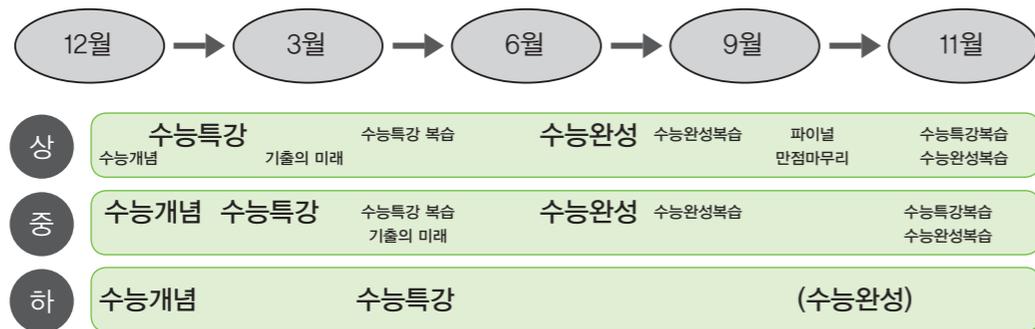
⑦ 연계교재 반복학습

특히 중위권 학생들은 수능 연계교재인 EBS의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을 어느 시기까지 어떻게 보아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몇 번 정도 반복해서 볼 수 있을지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야겠다. 연계교재 반복은 매우 중요하며 문제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핵심유형문제 연습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의 일부분을 해결하면서 4점짜리 문제를 공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4점짜리 문제는 물론 아이디어가 중요하지만 기본개념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공부가 수학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계교재 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명심하자. 다른 책을 보는 것보다 수능특강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

3) 수학(가)형 학습계획

예비 수험생의 경우 지금부터 수능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학교공부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아직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남아있으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고, 중간에 틈틈이 수학I, 수학II, 특히 미적분I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유형적인 문제를 연습해 두자. 위에 나열한 세 과목의 경우는 시험과목에 들어가지만 내용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적분II의 공부가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미적분I의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한다. 또한 확률과 통계의 경우는 미리 공부 하더라도 전혀 지장 없으니 EBS에서 제공하는 고3 커리큘럼에 있는 수능개념 또는 수능특강으로 미리 공부 해도 좋다. 이렇게 공부하면 누구보다 빠른 수험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수험생이 되면 일반적으로 아래 커리큘럼을 따라 공부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EBS에서는 중간중간에 약점공략, 수포자를 위한 특강, 7대합점 등등 틈새강의들이 많이 제공된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족한 내용들을 채워나갈 수도 있다.

4) 수학(가)형의 수준별 학습방법

① 중하위권 학생들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개념과 필수유형을 익히는 단계가 튼튼하게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단계의 학생에게 필요한 공부는 개념공부다. 개념을 확인하고 예제를 공부하고 유제는 스스로 풀면서 개념을 착실히 다지는 공부를 해야 한다. 급하다고 이 과정을 대충 공부하거나 이해가 아닌 암기식의 수학공부를 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개념과 예제, 유제를 공부해 가야한다. 이때,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면서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개념과 예제, 유제 중심으로 진도를 빠르게 나가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빠르게 진도를 나간 후 다시 한 번 반복하면서 공부할 때, 깊이 있는 개념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70~80점대까지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어려운 문제도 풀어야 하겠지만, 처음에는 진도를 나가면서 한 번을 끝내는 경험이 더 필요하다. 어려운 문제에 너무 오래 매달리게 되면 시간소비가 크고 진도가 느려져 페이스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 번에 완벽한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복은 반드시 필요하고 반복을 하게 될 때,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게 되며,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도록 머리 속에 남게 된다.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반복하며 개념공부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수 없이 많은 학생들이 노력을 통하여 실력과 성적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마음을 잡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공부의 마음자세와 공부의 습관이 잡히지 않아서 공부량 자체가 적고 공부를 하다가도 금방 포기하기 때문에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자신과의 약속, 다짐 등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거나 공부일기를 쓰거나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마음자세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재는 두껍지 않으면서 개념과 예제, 유제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수능개념, 수능길잡이, 수능스타트, 수능특강 등의 교재가 이런 형식을 따라가고 있다. EBS에 교재의 해설강의가 탑재되어 있으므로 강의를 활용하여 스스로 공부하기 어려운 개념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는 해설강의를 보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푸는 테크닉 등을 익히며 공부할 수 있다.

② 상위권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개념이 정리된 상황이므로 문제풀이 중심의 공부를 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기출문제집이나 수능완성같은 유형별 문제집을 공부하는 것이다. 수학공부는 '무엇'을 공부했느냐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먼저 고민하는 시간을 최소 5분에서 10분을 가진 후에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답지나 강의를 참고해서 그 문제의 풀이를 이해하고 그 후 스스로 백지에 다시 한 번 푸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거나 답지를 보고 적는 식으로 공부해서는 스스로의 사고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문제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나의 풀이 자체를 '음미하는 과정'을 거쳐 가면서 공부할 때, 더욱 깊이 있는 공부가 가능하다. 즉, 나의 풀이와 해설지의 풀이를 비교해보고,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다시 한 번 고민



해보고, 이 문제의 출제의도 등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음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때, 더 수준 높은 수학교육이 이루어진다. 쉬운 문제를 많이 풀기 보다는 양이 많지 않더라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공부를 할 때, 문제해결력이 길러져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된다.

4점짜리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는 공부, 풀고 답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음미하고 분석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고난이도 4점짜리를 풀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다. 가끔 공부량은 굉장히 많은데 그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하는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이다.

수학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는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양이 적더라도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시 한 번 풀이를 점검하고 나의 풀이와 다른 풀이도 찾아보면서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보는 그런 공부를 할 때, 수학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상위권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수능 기출문제의 유형들을 익히는 공부를 해 주어야 한다. 모든 시험은 사실 출제패턴이라는 것이 있고 수능도 마찬가지다. 수능시험도 결국은 유형이 정해진 문제가 80%이상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되는 그런 유형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그 유형들을 익히는 공부를 해야 한다. 비슷하게 매년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모아서 반복적으로 풀면서 대비를 해야 한다.

라. 수학 (나)형

1) 수학 (나)형 출제경향 분석

① 수학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수학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는 있다.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수학자처럼 공부하면 된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한 문제를 접했을 때 끝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습관이 수학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것이다.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공식이 나오면 그것을 유도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수학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다.

물론, 수학 공부를 잘하고 있다면 수학 시험에서 고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수학 공부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수학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는 있다. 시험이라는 것은 그 시험의 목적이 있고, 출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의 목적에 맞게 공부하고 출제자의 의도만 파악한다면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수학 공부에 소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고득점은 가능하다. 지금부터 '목표'를 바로 잡자. 내가 원하는 것은 수학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목표에 맞는 공부를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수학교육의 수능출제는 수년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어느 정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기출의 중요성이 다른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출제경향과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어떤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지, 그 개념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각 단원별로 핵심유형을 알 수 있게 된다.

② 세부 출제 경향

- √ 자주 등장하는 개념을 파악하자.
- √ EBS 연계를 이해하자.

지금까지 수능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개념의 반복 출제와 EBS 연계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만 잘 이해한다면 수능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과목	단원	기출문제	설명
수학 II	수열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2번 등차수열 $\{a_n\}$ 에 대하여 $a_8 - a_4 = 28$ 일 때, 수열 $\{a_n\}$ 의 공차를 구하시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6번 등차수열 $\{a_n\}$ 에 대하여 $a_1 = 2, a_3 = 10$ 일 때, a_5 의 값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5번 공비가 2인 등비수열 $\{a_n\}$ 에 대하여 $a_3 = 12$ 일 때, a_5 의 값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5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_n\}$ 에 대하여 $a_1 = 3, a_3 = 48$ 일 때, a_5 의 값은?	2016학년도 수능, 2015학년도 6월, 9월, 수능문제를 살펴보면 등차수열 또는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이 반복적으로 출제됨을 알 수 있다.
수학 II	지수와 로그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번 $2^0 \times 9^{\frac{1}{2}}$ 의 값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번 $8^{\frac{1}{3}} + 27^{\frac{2}{3}}$ 의 값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번 $5 \times 8^{\frac{1}{3}}$ 의 값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번 $8^{\frac{2}{3}} \times 9$ 의 값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2015학년도, 2014학년도 수능문제를 살펴보면 지수의 기본적인 연산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됨을 알 수 있다.
미적분 I	수열의 극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3번 $\lim_{n \rightarrow \infty} \frac{3 \times 9^n - 13}{9^n}$ 의 값을 구하시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3번 $\lim_{n \rightarrow \infty} \frac{5n^3 + 1}{n^3 + 3}$ 의 값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2번 $\lim_{n \rightarrow \infty} \frac{3n^2 + 5}{n^2 + 2n}$ 의 값을 구하시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번 $\lim_{n \rightarrow \infty} \frac{4n^2 + 6}{n^2 + 3n}$ 의 값은?	2016학년도 수능, 2015학년도 6월, 9월, 수능문제를 살펴보면 수열의 극한값 계산에 관한 문항이 숫자만 바뀌어 반복적으로 출제됨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이 있고, 따라서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반드시 정해져 있다. 평가원은 6월 9월 수능 이렇게 일 년에 세 번 모의평가와 수능문제를 출제한다.

우리의 목표가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의 출제기관인 평가원의 문제에 집중하자.

6월과 9월에 등장한 문제는 그 해 수능에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최근 수능에 등장한 문제도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기억하자.

기본적인 문항부터 고난도 문항까지 다양하게 연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계교재를 활용하여 공부한다면 반드시 고득점이 가능하다.



2) 수학 (나)형 과목별 학습 전략

① 수학 I

수학 I 은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과목은 아니지만, 수학 II 와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되는 개념과 함께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홀히 여긴다면 고난도 문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을 제대로 정리하고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학 II 와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면서 수학 I 의 내용이 등장하면 그때그때 제대로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② 수학 II

집합과 명제, 함수 단원은 최근에 수능에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잘 선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수열과 지수와 로그 단원은 최근의 기출문제를 참고하는 것이 좋으나, 계차수열, 알고리즘과 순서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에 관한 심화 기출문제는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다.

③ 미적분 I

미적분 I 은 2012학년도 이후의 평가원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좌극한과 우극한에서 기호가 변경되었고 중간값의 정리가 사이값 정리로, 정적분의 기본 정리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용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것만 잘 기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확률과 통계

기존의 교육과정과 바뀐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잘 활용하여 공부한다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확률과 통계 과목은 실제 자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개념을 바로 잡은 다음 다양한 유형과 상황에 따른 문제를 많이 다뤄 보는 것이 좋다.

3) 수준별 학습방법

① 상위권 학생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이 스스로 학습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공부 방법을 잘 유지하면서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항상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할 시간을 확보한 후, 고난도 문항과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쉬운 수능'의 기초가 계속 유지된다면 특히 기본적인 개념과 계산에서 실수를 한다면 오히려 어려운 문항은 다 맞추고 쉬운 문제에서 틀려서 1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부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쉬운 문항과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하는 시간도 정해놓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학적 사고력을 요하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항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 고난도 문항의 경우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직접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지만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문항 또는 두 문항 정도는 고난도 문항을 스스로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② 중위권 학생

중위권 학생의 경우 자신이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 중위권 학생의 경

우 대다수의 학생이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지만, 자기 자신은 스스로 고난도 문항에 대한 유형별 연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중위권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정말 고난도 문항인지, 아니면 개념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념이 부족하다면 개념부터 제대로 잡고 고난도 문항에 관한 유형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식을 아는 것과 개념을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다르다. 반드시 개념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한다.

③ 하위권 학생

문과 학생의 경우에 수능에서 수학점수의 평균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자. 난이도가 매우 쉬웠다는 2014학년도 수학 A형의 경우에 4등급 컷이 67점, 5등급 컷은 39점이고, 2013학년도 수학 A형의 경우에는 4등급 컷이 48점, 5등급 컷은 30점이다. 공부를 한다면 등급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자.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자주 등장하는 기출문제를 정리한다면 충분히 3~4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다.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힘이 든다면 EBS의 수능개념 강의를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 시기별 학습 방법

수능 공부는 4학기로 기억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수준에 상관없이 수학공부는 반드시 단계별로 하는 것이 좋다. 급하다고 문제부터 푸는 것은 절대로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개념만 제대로 잡아도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계별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1학기 - 기본 개념 공부 학기 (수능개념 강의 활용)

2학년 겨울방학기간을 수험생 1학기 보듯 하면 좋다. 이 시기에는 기본적인 개념을 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 개념공부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다. 수학 II → 미적분 I → 확률과 통계 순서대로 개념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BS의 수능개념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수능은 내신과는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능개념강의로 수능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고, 사고의 틀을 잡아가는 것이 좋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활용하여 개념을 제대로 잡도록 한다. 개념을 잡을 때는 물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지만,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등장할 수 있다. 이때는 표시를 해 두고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개념 공부는 한 번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공부할 때 전 단계에서 부족했던 개념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② 2학기 - 유형 및 기출문제 분석 학기 (수능특강, 기출의 미래)

6월 모의평가 이전을 2학기 보듯 하면 된다. 이 시기에는 개념이 한 번 정리가 되었다면 기본 개념에 따른 유형별 문제를 풀고, 기출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공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개념이 등장하면 개념강의로 돌아가서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다시 공부하도록 한다.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가 되었다면, 그 개념을 이용하여 기출문제를 분석하도록 한다. 기출문제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녹아있는지, 어떤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념을 알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공부하기 전에 개념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③ 3학기 - 유형 정리 및 실전 연습 (수능완성)

보통 6월 모의평가 이후에서 9월 모의평가 이전까지의 기간을 3학기로 보면 된다. 이 기간에는 세 과목을 매일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세 과목이기 때문에 매일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루에 두 과목씩이라도 번갈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수학Ⅱ, 미적분Ⅰ, 화요일에는 확률과 통계, 수학Ⅱ, 수요일에는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와 같은 식으로 돌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수능완성을 공부하면서 수능특강을 복습하고, 기출문제도 다시 한 번 분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자.

④ 4학기 - 무한 복습 및 부족한 부분 보완 (약점공략, 최종점검)

9월 모의평가 이후 수능까지의 기간을 4학기로 보면 된다. 9월 모의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자신이 잘 아는 것과 부족한 부분을 구별한다. 부족한 부분은 약점공략 강의를 활용하여 제대로 보완하고, 최종점검 강의를 통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전 연습용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도 좋다. 다만, 이때 연계교재와 기출문제는 계속 복습할 수 있도록 하자.

4.3 영어

가. 영어 절대평가

EBS 교재와의 연계정책과 쉬운 수능이라는 큰 기조를 2019학년도 대수능 영어영역에서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8학년도부터 평가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는 점과 다양한 대별 반영 방식에 대해 알아두어야겠다.

1) 영어 대수능 절대평가

문제유형이나 유형별 문항 수에 있어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절대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다.

• 수능영어 ‘절대평가’

- 일정 점수 넘으면 모두 같은 등급 (100~90점 1등급, 89~80 2등급, 79~70 3등급, ...)

- 총 45문항(듣기 17, 읽기 28), 시간 70분

• 수능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준보다 쉬워진다? 아니다. 난이도가 절대적이다. 안정적인 난이도를 유지하려 하겠지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에 따라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실제로 2016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90점 이상을 받아 절대평가 1등급에 해당되는 비율은 9%를 조금 넘는다. 이는 현재 1,2등급의 합(11%)보다 훨씬 적은 수치이다. 등급컷은 늘 똑같지만, 난이도는 늘 일정하지 않음을 명심하자. 절대평가 관련 교육부의 공식

보도 자료에 ‘수능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해서 단순히 쉽게 출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문구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내가 몇 등급 나오는지 만큼이나, 목표로 하는 대학의 반영비율이 더 중요하다. 최근 대입의 추세는 정시에서 수시 쪽으로 이전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영어 절대평가가 실시되는 2018 대입과 맞물려 일부 대학들이 발표한 2018 대입전형계획은 이러한 성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시대의 변화는 수시전형을 통하여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쪽으로 결정 난 듯하다. 수능영어 점수가 113개 대학에서 수시 최저학력기준 반영에 포함된다는 것을 볼 때 그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수능영어 ‘절대평가’ 대비방법

과거에 비해 절대평가 영어에서 상대적으로 1등급을 받기가 쉬워진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영어공부를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쉽다는 것은 도달할 수 있는 학생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지, 학습을 하지 않아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나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모든 학습의 기본이다. 예비수험생의 경우, 어휘와 구문의 기본실력을 기르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단어는 단순 암기보다는 어원이나 맥락 있는 예문을 통해 익히고, 품사에 따른 형태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어휘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야 한다. 독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문장이나 단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떨쳐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짧고 쉬우면서도 재미있는 영어책을 읽어보자. 가능하면 2~3번씩 반복해서 읽어보자.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다수의 영어책을 읽는다면 영어지문의 부담감이 자신감으로 바뀔 것이다. 또한, 절대평가가 수능영어에 도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내신영어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내신문제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하고 지필 평가 이외의 수행평가는 물론, 정규 수업 이외의 교내활동(동아리활동, 방과후 활동 등)에서의 활발한 활동도 더 중요해 질 수 있다.

고3 수험생의 경우, 자신의 기본기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어휘력과 구문실력을 충분히 다진 후에 EBS 연계교재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수능에 70% 이상 출제되는 EBS 연계교재 속의 지문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내용을 반복학습 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해야 할 것을 어떻게 해낼 것이냐가 중요해졌다. 결국 계획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불필요한 강좌나 수업들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정해진 학습량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행하는 것이 수능 영어를 대비하고, 더불어 다른 영역에 필요한 학습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나. 영어영역 파트별 만점 공략법

1) 듣기

듣기는 체감 연계율이 매우 높다! 듣기의 경우, EBS 연계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EBS 교재를 기본으로 출발하자. 여러 권의 교재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기 보다는, 연계교재의 듣기 문항들을 반복적으로 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잘 들리지 않는 부분들은 스크립트를 확인해 보고, 몰랐던 표현들은 듣고, 쓰고, 말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한다.

듣기는 습관이다! 매일 규칙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0분이라도 매일 듣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등하교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과 같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는 만큼 들린다! 무조건 많이 듣는다고 들리는 것은 아니다. 여러 번 들어 귀에 익숙한 팝송도 멜로디만 기억할 뿐, 끝내 가사는 따라 부르지 못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 표현을 알고 있어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 익힌 구어적 표현들은 따로 정리해두고 틈틈이 읽어보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The More You Speak, The More You Hear! 스크립트를 보고 읽으면 아는데, 귀로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 했다면, 이는 단어의 발음, 연음 현상, 혹은 억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며, 스크립트와 비교하며 확인한 뒤에 소리 내어 말해보는 것이 좋은 공부가 된다. 내 입으로 제대로 된 발음과 억양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 귀에 들린다.

2) 어휘

어휘력은 필수! 기본적인 어휘 학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본적인 어휘력이 없으면, 문맥을 통해 의미를 추론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틈틈이 어휘를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짧게 여러 번 반복! 전날 공부했던 단어를 잊어버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한 단어를 오래 붙들고 있기 보다는, 짧게,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단어와 마주치는 것이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하교길 등 틈나는 대로 시간을 쪼개서 눈으로 익히고 또 익히자. 쉽게 외워지지 않는 단어들만 형광펜으로 체크해서 다음에 볼 때에는 그 단어들만 보고 또 넘어가는 식으로 무한 반복한다. 수첩에 손때가 묻어 갈수록, 독해에도 속도가 붙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어휘 학습 방법을 선택하라! 어휘집을 활용한 공부의 경우, 활용도가 높은 어휘를 중심으로 정리해 놓은 데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어휘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문맥 속 어휘의 쓰임을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지문 속 모르는 어휘를 정리하는 경우,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휘를 익힐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어휘를 공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중하위권 학생의 경우, 어휘집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속도감 있게 어휘를 학습해나가며, 자신이 공부했던 단어들이 독해 지문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복습해보는 것이 좋고, 상위권 학생의 경우, 문맥 속 어휘 학습의 비중을 높게 두는 것이 좋다. 독해를 할 때 모르는 단어들을 마주쳤을 경우, 바로 사전을 통해 그 뜻을 확인하기 보다는 앞뒤 글의 흐름을 통해 그 의미를 추측해 본 뒤 단어 뜻을 찾아보자.

3) 어법

기본 개념에 충실하자! 먼저 짧은 구성의 교재나 강의를 통해 개념을 잡는 것이 좋다.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독해를 위한 기본 구문 학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문법을 공부해 나간다. 또한, 교재 한 권을 모두 공부한 뒤에도, 반드시 동일한 교재를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복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출을 정리하라! 어법 문제 훈련에 있어서는 기출문항들을 제대로 분석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해마다 반복 출제되는 개념과 번갈아 출제되는 개념들이 있으니, 최근 3개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들을 통해 기본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본다.

출제 의도를 읽어라! 선택지 하나하나가 요구하는 어법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출제자의 안목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본서나 강의를 통해 자신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한 어법 문항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이해와 문항 접근법 학습이 모두 끝난 뒤에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어 보면서 실력을 가다듬어 보자.

4) 구문독해

구문독해는 독해의 출발점이다! 문법은 규칙이고, 어법은 쓰임이며, 구문은 문장이다. 즉, 영어에서 문장이 구성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문장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구문독해이다. 구문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복잡한 문장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며, 독해 전반의 속도를 향상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 구문독해 연습의 목표는 최소한의 의식적인 노력만을 기울이고도, 자동적으로, 문장을 술술 읽어내가기 위함이다. 따라서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동일 구문을 이용한 새로운 문장에도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5) 지문독해

독해는 '읽고 이해'하는 것이지 '우리말 번역'이 아니다! 각 독해 지문을 통해 기본적 어휘를 익히고, 중요 구문을 공부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글의 논리적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의 중심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논지를 펼치고 있는지 등을 간략한 마인드맵을 통해 정리해보는 것도 글의 구조를 읽는 좋은 연습이 될 수 있다.

연계 교재 내의 지문들은 완벽히 학습하라! 연계교재의 지문은 정답을 확인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지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이해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정확히 읽는 연습에서 시작하여, 점차 시간제한을 두고 문항 수를 늘려가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다. 연계 교재 내의 독해 지문들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 보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글의 주제, 요지를 파악한다.
- ② 문장들 간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파악하고, 글의 논리 전개방식을 이해한다.
- ③ 핵심 구문을 점검하고, 필요한 어휘들도 정리하도록 한다. 이때, 각 지문 마다 글의 내용도 간단히 요약해두고, 주제문은 밑줄로 표시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연계교재의 지문들은 두 번, 세 번 다시 읽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이 느낀 체감 난이도도 별도로 표시해 두면, 시험이 임박하여 어려웠던 지문들 위주로 빠르게 복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 풀이,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불안한 마음에 무조건 많은 분량의 문제를 풀려고 한다거나, 연계 교재의 문항들을 '정답 찾기'식으로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언급한 단계별 독해법이 익숙해지고 난 뒤에, 시간 조절하는 연습을 조금씩 해나가면 된다. 처음부터 독해 전 문항을 한꺼번에 풀기 보다는 짧게는 4-5문항, 조금 길게는 10문항 씩 시간을 재면서 호흡을 점점 길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 영어영역 등급별 맞춤 학습전략

1) 1-2등급

진단 영어의 기본기가 비교적 튼튼하며, 각 유형에 대한 전략과 시간관리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다. 하지만 자신의 실력을 맹신하며 영어공부를 소홀히 하다가, 6월 모의고사 이후 급격히 점수가 휘청거리며 슬럼프에 빠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안정적인 1등급, 더 나아가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인 만큼, 점수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다 세심한 학습 전략이 요구된다.

처방 3점 빈칸 추론 문제에 의해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평소 추상적, 철학적 소재의 고난도 지문을 꾸준히 접하며 글의 논리전개를 파악하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또한, 어법성 판단, 문장삽입, 단락 순서 추론, 요약문 완성 등 오답률이 높은 문항을 집중 공략하여 표준점수를 높이는데 주력한다.

학습전략 연계교재를 공부할 때, 설혹 틀리는 문항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꼼꼼히 풀어보며 실제 수능에서 확실한 시간 절약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지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연계출제 유형을 예측해보고, 주요 어휘와 구문을 정리하고, 오답 소거의 과정을 점검하는 등의 공부를 통해 실수의 여지도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시간분배 전략 문제 구간별로 세심하게 시간을 배분하고, 독해의 강약을 조절하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 즉, 쉬운 유형의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고, 여기서 확보된 시간은 어려운 유형의 문제를 푸는데 투자함으로써 정답률을 높이는 전략을 취한다.

2) 3-4등급

진단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나 기본 어휘 등은 갖추어져 있지만,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면 해석이 뒤죽박죽 얽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유형별 전략을 완전히 숙지하고 연습하지 못한 채 감에 의존해서 시험을 친다거나, 시간 조절에 실패하여 시험을 칠 때마다 점수가 들쭉날쭉한 수험생들이 많다. 하지만 어설픈 수준의 어휘실력과 어법실력을 가지고 수능에서 고득점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처방 여름방학 이전까지는 시간단축에 연연하지 말고, 문장 단위에서 정확히 해석하기 위한 구문독해 훈련부터 시작하도록 한다. 또한, 각 연계교재의 해설지에 수록된 주요 구문 분석을 활용하여, 복잡한 문장도 정확히 읽어내는 연습을 한다.

학습전략(어휘) 어휘의 부족은 지문을 읽을 때 부정확한 추론을 하게 하여 오답률을 높이고, 시간을 부족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반드시 하루에 30~50개의 어휘를 외우고, 주요 어휘들은 예문을 통해 문맥상 쓰임도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한다.

학습전략(독해) 정해진 문제수를 규칙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단순히 정답만 확인하는 식의 공부는 지양해야 한다. 각 유형별 접근전략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고, 정답을 놓친 문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고과정을 거쳐 오답을 고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해석에 있어 부정확한 부분은 없었는지, 해석은 정확했지만 글의 논리 전개를 잘못 이해한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자신의 약점

을 극복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학습전략(듣기) 듣기 문항을 모두 맞지 못 하면 1, 2등급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각오로, 일주일에 듣기 모의고사 1회 분량은 반드시 풀고, 등하교 시간을 활용하여 틈틈이 듣는 습관을 갖는다. 또한, 어려운 문항의 경우 받아쓰기를 통해 꼼꼼히 점검하고,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재생하여 들어본다.

3) 5-9등급

진단 너무 늦은 것을 아는지 마음만 초조하고,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라 막막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럴수록 모의고사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조급한 마음으로 결과를 바라지 말고 멀리 바라보며 공부해야 한다. 나의 최고 성적은 수능 성적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버리자. 반드시 노력한 만큼 철저히 보상받을 것이다.

처방 이 교재, 저 교재 기웃거리거나, 연계교재 출시시기에 조급해하기 보다는, 1~2개월 정도는 기본개념을 확실히 다지는데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 그 다음에는 연계교재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가며, 유형별 접근법, V. 2018학년도 대수능 영역별 고득점 전략 지문 분석 및 주요 구문까지 차근차근 공부해간다면 연계문제 뿐 아니라 비연계문제까지 모두 챙길 수 있을 것이다.

학습전략(어휘) 영어 공부의 출발점으로 어휘학습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 실제 5등급 이하 수험생들의 경우, 어휘력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휘력 보강만으로도 상당한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어휘 공부는 질보다는 양이다. 어제 외운 단어가 오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같은 단어를 최소한 10번은 다시 보겠다는 각오로, 매일 일정 분량을 꾸준히 암기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는 학습법을 실천한다.

학습전략(독해)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우리말로 매끄럽게 번역하겠다는 미시적 시각을 가지고 독해에 접근하여,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기본기가 약한 상태에서 이런 접근법을 취하면, 연계교재의 앞부분만 공부하다가 지레 지치기 쉽다. 따라서 처음에는 지문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고, '주제문만큼은 정확하게 해석해보겠다.'는 목표로 독해공부를 시작하여, 점차 세부적인 부분까지 완성해나가는 전략을 취하도록 한다.

학습전략(듣기) 듣기 유형을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독해보다는 듣기가 시간투자 대비 점수 상승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EBS 듣기 연계교재의 음성파일을 등하교시간과 일과 시간에 매일 매일 반복적으로 듣는 것을 습관화하고, 모르는 표현을 노트에 정리하고, 듣기 스크립트도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한다.

라. 영어영역 시기별 학습전략

1) 겨울방학부터 3월 모의고사 전까지

이것만은 꼭!

- 영어공부에 필요한 필수 개념을 다진다.
- 문장 단위 독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본격적으로 연계교재에 입문하기 전 수능의 기본 개념을 다지는 시기이다. 급한 마음에 무작정 문제풀이에 돌입하기 보다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독해, 구문, 어휘, 듣기의 각 영역별 기초 개념을 철저히 다져놓아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고, 연계교재 학습을 한창 진행하다가, 연계지문 분석과 학습속도에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뒤늦게 후회하는 수험생들이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독해에 있어서는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또한, 기출되었던 어법의 기본 개념들을 문법 기본서로 확실히 보완해두어야 한다. 평소 소홀히 했던 어휘와 듣기의 경우 일정한 학습 분량을 정해 매일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위권 수험생들의 경우, 기출문제풀이를 통해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좋다. 단, 기출문제를 푸는 의의는 단순한 정답 확인이 아니라,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패턴을 제대로 분석해내는 것에 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몇 번 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출제의 의도를 분석하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3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6월 모의고사 이전까지

이것만은 꼭!

- 수능연계교재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내신시험 준비에도 완벽을 기한다.

이제까지 정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능연계교재 공부에 입문하는 시기이다. 무엇보다 3월 학력평가에서 드러난 듣기와 독해의 취약점에 대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기는 또한 다가오는 6월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공부한 <수능특강>의 주요 지문들을 스스로 요약·정리해보고, <영어듣기> 교재를 통해 정리해 둔 주요 표현들도 복습해보는 것이 좋다.

3) 6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여름방학 이전까지

이것만은 꼭!

- '6월 모의평가'의 출제경향을 분석한다.
- '6월 모의평가'를 통해 드러난 자신의 약점을 분석한다.
- 부족한 부분은 다시 '기본 개념서'를 통해 반드시 보완한다.

6월 모의고사는 수능 준비과정의 중간 점검이자 앞으로의 공부에 있어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직접 주관하는 시험이며, N수생들도 함께 응시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시험의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모의고사를 지금까지의 공부에 대한 피드백으로 여기고,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BSi 사이트에 있는 6월 모의평가 풀서비스를 활용해 취약한 영역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그 원인을 분석한다. 채점서비스, 오답노트, 오답률 통계 및 등급컷 등을 확인하면 자신의 현 위치에 대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및 분석특강을 시청하며 출제 유형 및 난이도에 대해 분석해 보고, 어떤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보자. 그 다음 꼼꼼하게 오답노트를 만들며 그 동안 나의 연계 교재 학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3월 모의고사 이후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제대로 해결되었는지를 파악한다. 이때, 또 다른 취약점이 드러났다면 기본서를 통한 개념점검 및 반복학습을 통해 확실히 보충한다.

4) 여름방학부터 9월 모의고사 이전까지

이것만은 꼭!

- 연계교재 공부에 속도를 낸다.
- 수능특강부터 체계적인 복습을 시작한다.
- 어법, 빈칸 등 자신의 약점유형을 집중 보완한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기가 수험생들에게는 극적인 성적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밀렸던 연계교재의 공부에 조금 더 속도를 내며, 한 학기 동안 학습한 내용을 총 정리하고 그동안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보완하는 시기이다.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빈칸추론, 단락순서 추론, 어법성 판단, 요약문 완성 같은 유형의 경우는 [등급업 특강] 등의 강의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그동안 공부했던 연계교재를 두 번째 읽을 때에는, 각 지문의 요지를 정리하고, 주제문과 주요 구문에는 색깔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새로이 공부하는 연계교재 학습에 있어서는,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읽기 위한 구문독해의 기술을 바탕으로, 전체 문단의 논리 전개를 읽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 본다. 또한, 정독할 부분과 속독할 부분을 구별하는 연습을 통해 시간을 단축하는 과정도 병행해야 해야 할 것이다.

5) 9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대학수학능력 시험 전까지

이것만은 꼭!

- 전체 연계교재를 복습한다.
- 실전문제풀이로 실전 적응력을 완성한다.
- '9월 모의평가'를 통해 드러난 자신의 약점을 분석하고 보완한다.

이제는 최종 마무리를 할 때이다. 지금까지 구문독해와 유형별 접근법을 꾸준히 학습을 해왔다면, 이제부



터는 실전문제풀이로 실전 적응력을 완성하고, 시간 안배 훈련을 통해 시간에 대한 부담감을 떨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한 세트의 시험지를 정해진 시간 내에 집중해서 푸는 연습을 매주 실행한다. 한 문제씩 끊어서 풀 때는 맞출 수 있는 문항도, 집중력 저하와 지구력의 부족으로 여러 문항을 이어 풀 경우 틀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처음의 집중력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지구력, 시간 배분 등을 위해 서라도 반복적인 실전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때, <수능완성>, <7030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만점마무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새로운 문항들로 실전감각을 익히는 것만큼이나, 지금까지 공부했던 연계교재를 꼼꼼하게 반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시기에는 급한 마음에 무조건 많은 문제만 풀다보면 오히려 혼란과 심리적 부담감만 커질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지문 요약과 주제문 중심으로 연계교재를 되짚어보며 주요 구문 등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듣기는 실전감각 유지를 위해 정상속도(1배속)로 꾸준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 급한 마음에 빠른 속도로만 듣는 연습을 할 경우, 오히려 수능 당일 정상속도에 적응하지 못 해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마인드 컨트롤과 체력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그동안 밤낮이 뒤바뀐 공부 습관을 유지해 왔다면, 실제 시험시간에 맞추어 반드시 수면패턴을 조정하도록 한다. 또한, 긴장감, 심리적 압박감을 잘 조절하고, 수능 당일 편안한 상태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자.

마. 영어 EBS 활용법

따로 또 같이! 연계 교재를 교재만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내용이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면 강의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다. 연계 교재와 강의의 진행 순서는 [EBSi 연간커리큘럼]을 통해 확인해보자. 또한, 연계교재 학습에 아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기본개념>이나 <수능개념> 강의를 통해 반드시 보완하도록 한다.

선택은 중요하지 않다? 선택 이후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 같은 교재를 다루는 강의라 할지라도, 강좌별, 강사별 특성에 따라,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강의를 개설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강의를 선택할 것인가는 반드시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주변의 이런저런 어설픈 조언에 휩쓸려, 이리저리 갈팡질팡할 시간이 없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여 판단하고, 결정한 이후에는 자신의 선택이 최고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배울 ㄴ만큼이나 익힐 ㄴ정도 중요하다! 드라마를 시청하듯 가만히 강의를 보는 것만으로는 극적인 성적향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예습을 통해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 문장이 앞의 주제문과 무슨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이 단어가 이 글에서는 무슨 의미로 쓰였지?', '이 문장은 정확히 어떤 의미이지?'와 같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 또한, 강의를 듣고 난 뒤에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복습하여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집중하여 강의를 들어라! 온라인 학습은 철저한 자기관리 없이는 끝까지 지속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가능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강의를 듣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검색창 등 강의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강후기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과제를 규칙적으로 올린다거나, 선생님과 유대를 쌓아가는 것도 끝까지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Know-Where! 이제는 know-how만큼이나,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에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know-where가 중요시되고 있다. EBSi(ebsi.co.kr) 사이트를 수험생활을 함께 해줄 길잡이로 삼아보자.

- 입시정보 > 수능/학평 풀서비스 지난 학력평가, 모의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지 및 해설지 뿐만 아니라, 각 문항별 해석강의, 등급컷, 오답률 정보까지 모두 얻을 수 있다.
- EBS 교재 > 영어지문 MP3 다운로드 / 연계교재 다운로드 연계교재의 PDF파일 뿐만 아니라, 연계지문의 MP3 파일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각 연계교재 별 단어장도 함께 제공되고 있으므로, 출력하여 들고 다니며 틈틈이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92
- 강의별 Q&A 및 자료실 교과 전문 선생님들이 Q&A에 상세한 답변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각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학습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들을 [자료실]에 수시로 탑재한다.

바 영어 FAQ

Q. 시험을 볼 때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부족의 문제는 무조건 빨리 읽는 연습을 하겠다는 일차원적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이 다각적인 접근법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자.

- ① 연계효과 누리기 연계교재를 통해 이미 공부했던 지문은 당연히 익숙하지 않은 지문에 비해 그 독해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계지문을 평소 제대로 분석하며 공부해두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 단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 ② 전략적인 시간 배분 비교적 쉬운 유형은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고, 남은 시간을 고난도 문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문항 구간별 시간을 조절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본다. 또한,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무조건 문제지의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 나가기보다는, 시간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자신 있는 유형의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 ③ 근본적인 독해실력의 향상 어휘 및 구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독해의 흐름이 끊기게 되면 이는 곧 시간 부족이 정답률 하락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평소 영어 문장의 구성 원리를 공부하고, 이를 다양한 문장 독해에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 근본적인 독해실력과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유형별 접근법과 지문의 논리전개 방식 이해 각 유형별 접근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지문의 논리도 대체로 몇 가지의 정해진 방식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더해진다면 독해 속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Q. 외워도 자꾸 잊어버려요.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단어학습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단어를 '공부'하려 하지 말고, 통학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틈틈이 시간을 내어, 짧게 여러 번 단어와 의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 ② 문맥 속에서 연습하라! 짧게 여러 번 보며 그 의미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단어들은 다양한 예문을 통해 문맥 속에서 연습하여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Q. 빈칸 추론 문제를 거의 다 틀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① 반복되는 핵심어를 찾아라!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 지문의 핵심어이며, 핵심어는 반복되어 나타난다. 다만, 동일한 표현이 아니라, 문맥상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어휘(유의어, 반의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②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는다! 빈칸 유형은 고난이도 문제라는 생각에 지레 겁을 먹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문 안에는 정답에 대한 단서와 논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Q. 기출문제 공부와 연계교재 공부의 비중을 어떻게 두고 공부해야 할까요?

- ① 시간이 부족하다면 연계교재에 집중하라! 대수능 이전까지 연계교재를 공부하고, 충분히 복습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우선 연계교재 공부에 집중하자.
- ② 기출문제가 아직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공부의 시기를 조금 뒤로 미뤄라!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고, 연계교재를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기출문제에 도전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느껴진다면, 공부의 시기를 9월 모의평가 이후로 미루는 것도 괜찮다. 스스로 분석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기출문제를 가지고 정답만 확인하는 식의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연계교재 공부가 완성된 시점인 9월 모의평가 이후 실전대비능력을 기르는 차원에서 기출문제를 활용할 것을 권한다.

Q.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다 해석해야만 안심이 돼요. 이렇게 공부해도 괜찮을까요?

- ① 강약 조절을 하며 읽어라!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쉬운 수능의 기초 속에서, 지문의 일부분만을 읽고 답을 찾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다만, 핵심과 부연의 강약 조절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히려 오답의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Q. 영어도 오답 노트 정리가 필요한가요?

- ① 오답을 도출하게 된 사고의 과정을 역추적 하라! 모의평가에서 단순히 무슨 유형을 몇 개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보다 오답의 함정에 빠지게 된 사고의 과정을 역추적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다. 즉, '내가 선택지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잘못알고 있어서 오답을 골랐구나.', '이 단어와 저 단어가 문맥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걸 눈치 채지 못해서 정답을 찾지 못 했구나.'와 같이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오답을 골랐는지를 역추적하면, 남은 기간 무엇을 보완해야하는지가 보인다.
- ② 어법은 오답노트가 필수이다! 문법성 판단 유형의 경우, 동일한 핵심 개념들이 반복되어서 출제되므로, 한 권의 노트에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분사구문'에 대한 문제를 틀렸다면, 기본서를 참고하여, '분사구문'의 기본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여 적어보고, 틀렸던 문장을 적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4.4 한국사

보통 다른 과목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실시된 전국연합 학력 평가 문제 난이도 보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출제되는 문제의 난이도가 더 높다. 하지만 한국사 과목의 경우 1,2학년 때 출제된 문제의 난이도랑 고 3, 그리고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난이도는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고등학교 1,2학년 6월, 9월 학력평가와 같이 시험범위가 전체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세세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결론은 수능 필수 한국사는 '개념'과 '흐름'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출제된다.

가. 2017 수능 한국사 시험의 특징

- 먼저, 한국사 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한국사 기본 지식의 이해 정도와 역사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 수능 필수과목 지정에 따라 2017학년도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수능 한국사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상위권 학생 변별을 위해 고난도 문항을 일부 출제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2017학년도부터는 모든 문항을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쉽게 출제한다.
 - 또한 학교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2017 대수능 한국사 필수에 따른 출제방향 공개, 교육부, 2014.4.11)

-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로 운영되는 한국사 영역은 4교시에 탐구영역과 함께 실시되며, 문항 수는 20문항이고 시험시간은 30분이다. 한국사 영역이 포함됨에 따라 4교시 시험시간은 6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 한국사 영역의 성적은 상대평가에 따른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급을 제공하는 타영역(과목)과 다르게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제공한다.
 - 한국사 영역의 만점은 50점이며, 등급을 분할하는 원점수는 1등급과 2등급의 분할점수인 40점을 기준으로 5점씩 낮아진다. 9개 등급을 분할하는 원점수는 아래와 같다.

〈 한국사 영역 등급 분할 원점수 〉

등급	1	2	3	4	5	6	7	8	9
분할 기준	50점	40점 미만	35점 미만	30점 미만	25점 미만	20점 미만	15점 미만	10점 미만	5점 미만
(원점수)	40점 이상	35점 이상	30점 이상	25점 이상	20점 이상	15점 이상	10점 이상	5점 이상	0점

(2017 대수능 기본계획, 교육부, 2014.9.2)

나. 한국사 FAQ

Q. 필수 한국사 시험의 성격은 어떤 것이죠?

수능 한국사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한국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사 기본 지식의 이해 정도와 역사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Q. 점수 체제는 어떻게 되나요?

수능 한국사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9개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상대평가에서는 다른 학생의 성적과 비교되어 등급이 결정되지만, 절대평가에서는 본인의 성취 수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Q. 문항 난이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절대평가의 취지에 맞추어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이한 문항이 출제되므로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은 수능을 대비해야 한다는 큰 부담감 없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국사 수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통해 기른 한국사에 대한 소양만으로도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 필수 한국사 문제는 쉽다. ▲ 필수 한국사는 절대 등급이다.(40점 이상이면 누구나 1등급) ▲ 필수 한국사는 반타작만 해도 4등급이다.

다. 필수 한국사 학습방법

우선 수능 한국사는 만점을 받기 위한 처절한(?)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등급 컷만 통과하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시모집 때 최저 등급으로 한국사 과목은 인문·사회 계열 3등급, 이학·공학 계열은 4등급을 지정했기 때문에 원점수 기준으로 3등급은 30점까지고, 4등급은 25점인 반타작만 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정시모집 때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나 일부 대학에서는 1등급(40점) 만점을 정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대학의 경우 미리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문제의 난이도는 쉽다. 그래서 한국사 교사들은 “한국사 공부를 즐기라!”고 말한다. 즐기는 공부만 해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3등급 또는 4등급을 통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즐기라”는 표현은 고1과 고2에 더 적절하다. 고3에겐 즐길 여유는 없을 수 있다. 고3에겐 즐기라는 표현보다는 시간을 줄이는 효율적 공부를 하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한국사를 공부해야 할까? 중요 개념을 알고, 흐름을 익혀라. 아주 상세한 사실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 해당 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무엇인지 정도만 알면 된다. 그리고 그 개념이 어느 시대에 나오는지만 알면 된다. 이걸 ‘흐름’이라고 한다. 이렇게 중요 개념과 흐름만 잡고 있다면 한국사는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개념과 흐름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는 11월말 <수능개념 한국사> 강좌가 오픈될 예정이다. 암기에 대한 부담과 편견을 가지지 말고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들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난이도가 낮다고 해서 이른바 ‘찍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황당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아무리 쉬운 한국사라해도 개념 자체를 모르면 그 문제는 풀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비 고3이기 때문에 <수능개념> 강좌를 듣기 전에는 역사 관련 대중서를 본다거나, 역사 관련 프로그램, 역사 영화를 보면서 역사를 마음껏 즐길 필요가 있다. 쉬운 한국사 수능을 표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라. 수능 필수한국사는

- 1) 쉽다.
- 2) 40점 이상이면 1등급이다.
- 3) 많은 대학에선 인문 3등급, 자연 4등급 이상이면 만점 처리할 것이다.
- 4) 주요 개념과 흐름 위주로 공부하라.
- 5) 그러니 역사를 즐겨라.
- 6) 본격적 수능 공부는? 고2 기말고사 끝나고 EBS <수능 개념 한국사>와 함께 하시라.

4.5 사회탐구

가. 달라진 사회탐구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를 포함, 총 3개의 시험을 치러야하기에 수험생의 학습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영어 절대평가제, 쉬운 수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사회탐구가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탐구 영역은 ‘쉬운 수능 기초’에 따라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수험생들이 사회탐구 만점 1등급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더욱 고득점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탐구 영역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수능형 문제 유형은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답을 구하기 어려운 문항들과 자료 분석이 까다로운 문항들이기 때문에 ‘이해’ 중심으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만점을 위해서는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문항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통계 자료, 그래프, 지도나 사료 등을 분석하는 문항들은 고난도 문항의 패턴으로 굳어졌으며, 고난도 기출 문항들을 모아 꾸준히 패턴을 익힌다면 만점 1등급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나. 사회탐구 과목 선택 방법

국어, 수학, 영어에 비해 사회탐구의 배점과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쉬운 수학, 영어 출제 구조가 유지된다면 입시에서 사회탐구의 중요성은 배가될 것이며 대학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10개의 사회탐구 과목 중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며 수험생들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1) 학교 내신과 연결되는 과목을 수능에도 선택하라.

학습 시기와 관련하여 가장 추천할 만한 사탐 선택 SET은 2학년 2학기 내신으로 공부한 사탐 과목 하나 + 3학년 1학기 내신으로 공부할 사탐 과목 하나 조합이다. 2학년 2학기 내신 공부로 기본 개념을 한번 끝낸 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개념 복습과 3학년 1학기에 공부할 나머지 사탐 한 과목의 개념을 공부할 수 있다. 서울 상위권 대학 합격자들의 80% 이상은 3학년 3월 학력평가 이전에 사탐 2과목의 개념을 끝낸다는 것을 명심해라.

만약 2학년 내신으로 공부한 과목이 맞지 않는다면? 3학년 1학기 내신 한 과목은 반드시 포함하고 또 다른 내신 과목 or 내신 과목은 아니나 선택한 과목과 연결된 과목 조합으로 해라. 3학년 내신은 반영 비중이 높으므로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한 과목은 내신 과목과 일치시키고 나머지 한 과목은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은 과목이지만 선택한 과목과 교과 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선택하라.

2) 교과 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선택하라.

학습량을 줄이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라. 교과 간 연관성이 높은 사탐 SET은 다음과 같다.

■ 교과 연관성 높은 사탐 SET

- 한국지리 - 세계지리 : 기후, 지형, 인구, 도시 등 개념 원리가 동일하여 학습량 대폭 감소
- 윤리와 사상 - 생활과 윤리 : 생활과 윤리의 고난도 문제가 윤리와 사상에서도 그대로 출제되므로 어려운 사상이 주제를 한 번 공부하면 두 과목의 고난도 문제 해결 가능
- 세계사 - 동아시아사 : 중국사, 일본사 등 동아시아사의 내용이 세계사 내용과 겹치므로 학습량 대폭 감소

3) 평소 선호하는 과목을 선택하라.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1,2학년 내신 공부할 때 재미있게 공부했던 과목이나 학교에서 배우지는 않지만 독서 등 간접경험을 통해 평소 관심이 많았던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대학 진학 후 공부해야할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응시자 수가 많은 과목은 그 이유가 있다.

1~3의 조언에도 딱히 선택하고픈 사탐 과목이 없다면, 수능 응시자 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라.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 순으로 응시자 수가 많고 이 3개 중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응시자 수가 적으면 응시자의 성향(응시자 중 자사고, 특목고생 비중 높음)에 따라 등급 예측이 힘들기 때문이다.

다. 과목별 학습법

1) 일반사회계열

① 수능 출제 포인트! 빈출 주제가 정해져 있다.

사회문화, 법과 정치, 경제는 수능 문제가 출제된 부분에서 계속 나온다. 단원별 출제 문항 수도 거의 정해져 있다. 사회문화를 예로 설명하면 I~IV단원의 비중이 매우 높다. I~IV단원은 단원별로 4문제 정도씩 출

제되며, V~VI 단원에서 각 2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지난 3년간 기출문제를 토대로 수능에 출제되는 빈출 주제를 뽑아보면 대략 30개 내외로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단원별, 단원별 중단원명과 중단원별 핵심 개념을 살펴보고 이 체계를 안 보고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하여 단원별 마인드맵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마인드맵을 기출 문제 평가 요소와 대입하여 단원의 체계 속에서 빈출 주제, 주제별 중요도를 수험생이 스스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② 기출을 보면 문제의 패턴이 보인다.

수능이 수년간 치러지면서 문제 유형 및 패턴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 3년간 기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대략의 문제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지위, 역할, 역할 갈등을 묶어 묻는 방식이나, 청소년 관련 법률을 사례 속에서 파악하는 방식 등 핵심 개념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 패턴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념 공부가 되었다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고득점을 위해서는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나 표 분석 등의 문제 유형을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문화의 표 분석은 IV단원 계층 표 분석으로 문제의 형식이 고정되어 있으며, 법과 정치는 상속이나 선거제도 등의 문제 형식 또한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수능의 출제 경향! 6월 모의평가에 답이 있다.

2015학년도 수능까지 사회문화의 고난도 표 문제는 '빈곤의 유형'에서 출제되었지만, 2016학년도 수능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출제되었다. 물론 고난도 문제 주제는 그 해 치러진 두 차례의 모의고사를 통해 예측 가능했다. 모의평가는 그 해 수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6월 모의평가를 통해 고난도 문제 주제는 물론이고 신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2017. 6월 모의평가에서는 3단원 '문화 변동', 4단원 '대중매체'를 새로운 문제 형식으로 물었다. 그간 매우 쉬운 문제로 출제되던 개념이 문제 유형을 새롭게 함에 따라 고난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6월 모의평가는 성적이라는 결과보다 문제와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매우 새롭게 보이는 문제 유형이라도 반복적해서 보고 분석한다면, 수능에서는 어렵고 생소한 문제가 아닌 등급을 올리는 전략 문제로 작용할 것이다.

2) 지리계열

① 개념 학습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나 사회탐구는 개념 학습이 정말 중요한 교과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사회, 윤리와는 달리 지리 과목군의 학습 방법은 조금 다르다. 지리는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정작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개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제에 제시된 자료를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리의 경우 자료를 분석하는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고득점을 얻기가 어렵다. 특히 학습한 개념과 다양한 자료를 연결시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자원, 공업, 서비스업 등은 다양한 통계 자료들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는 주제들이다. 각 주제들과 관련된 핵심 내용들을 알고 있더라도 자료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한다면 정답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개념 학습과 함께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자료를 통해 학습한 개념들을 도출해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한다. 또 해안 지형의 경우 주로 지형도를 통해 출제된다. 해안 지형의 각 지형을 개념 따로 지형도 자료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도에서 각 지형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개념과 자료를 연결하여 한 번에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최근 들어 백지도를 이용한 문항들의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 개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지도에 제시된 지역의 지명이나 지역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꾸준한 백지도 학습을 통해 이런 문항들에 대비해야 한다.

② 출제된 곳에서 계속 출제된다.

지리 과목은 윤리 과목이나 사회문화 과목에 비해 교육과정 상의 학습량은 분명 많은 편이다. 물론 세계사나 한국사 등의 역사 과목이나 법과 정치에 비해서 학습량은 적은 편이다. 그런데 지리 과목군은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고 비슷한 선지들이 반복해서 출제되므로 실제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탐 과목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골고루 살펴보는 것보다는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의 주요 출제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리 과목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출 문제 분석이다. 적어도 최근 3개년도 6월,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 기출된 문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요 출제 주제를 정리하고 주제별 출제 유형을 익혀야 한다. 이미 기출되었던 선지들을 정리해두는 것도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한국지리에서 기후의 지역 차, 자원, 주요 공업의 분포, 인구 등의 주제는 1등급을 결정짓는 고난도 문제이면서 반복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주요 유형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세계지리의 경우에는 세계 기후 지역, 기후 단원과 지형 단원의 연계 문항, 에너지 및 식량 자원, 경제 협력체, 인구 등이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유형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③ 연계교재의 중요성이 높다.

지리 과목은 100% 자료를 통해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묻고 있다. 다른 과목에 비해 특히 자료가 중요하며 매년 연계교재인 수능특강, 수능완성의 자료를 조금 변형하여 평가원 모의고사 및 수능에 출제한다.

특히 글 자료에 비해 지도나 그래프가 연계될 경우 연계 교재로 공부를 했다면 매우 쉽게 수능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지리 과목의 연계 체감률은 높은 편이다.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여 연계교재 중 어떤 자료와 문항이 연계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확인하고 연습하자. 지리 과목은 다른 사탐 과목에 비해 꼼꼼한 연계교재 학습으로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연계 교재를 단순히 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계 교재에 실려 있는 다양한 문항과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하며 변형에 대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3) 윤리계열

① 윤리다운 기본

- 공통분모 활용: 현재 교육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선택할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두 과목 각각의 특징을 구분해서 알기 전에 이 점을 짚어보자. 이들은 태생적 공통분모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윤리교과 전반의 교육 목표와 평가 방향이 같기 때문에 방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성이다. 때문에 두 과목의 수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윤리영역 평가 문항의 특징을 알면서 수능 학습을 시작하는 것은 탄탄한 기본을 세우는 방법이다.

- 득점조건은 유추하는 사고력: '전통윤리'와 '윤리와 사상'을 포함한 '윤리'에서 '윤리와 사상'으로 변화, 개정교육과정에서 '생활과 윤리'가 신설되면서 변치 않는 기본은 바로, 각 사상·사상가·입장의 핵심적 주장을

근거로 출제자가 변형하여 제시한 한 문장의 선택지에 유추하는 사고력을 묻는다는 것! 따라서 유의할 점은 각 사상가의 이름, 각 입장의 핵심용어를 아는 것은 개념학습의 시작에서 꼭 필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득점의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핵심 개념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소나 긴 문장을 선택지 한 문장으로 축약, 핵심 개념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단어를 선택지 분량의 문장으로 늘이기, 그 필수적 단어를 동일한 의미의 다른 단어나 맥락의 문장으로 변형한 방법의 정답지, 반대로 그 단어와 다른 의미의 단어나 맥락의 문장으로 변형한 오답지에 대해 학습한 개념에 근거하여 유추하여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지름길은 개념의 논리적 이해: 그러려면 개념학습 때부터 그 입장(사상)이 강조하는 바를 결론이라 한다면, 그 지향점과 대립된 방향이나 해당 사상들의 입장, 그 이유와 근거를 논리적으로 조직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단독 제시문, 갑을 대화문, 순서도, 벤다이어그램 등 어떤 문항 형식에서든 기본은 특정 주제에 대해 두 사상가 이상을 비교분석하는 것. 따라서 여러 입장들의 각각의 특성, 차이점, 공통요소들의 질서 정리도 필요하다. 반복학습을 통해 공을 들여야 하는 방법이지만, 2018년 11월에 승부가 나는 장기 레이스를 위해서는 탄탄한 기본을 무시하지 않는 이 방법이 지름길이다.

② 생활과 윤리 만점 학습법

- 문항 속의 맥락과 논리로 득점할 수 있는 주제 학습법 (난이도 下)

과목 특성이 드러나는 생운 기출 문항의 대표 유형은 '논쟁·토론·찬반양론'의 대립 구도가 드러나는 문항 장면이다. 실제 문항 형식도 토론이나 논쟁의 삽화, 구조화, 그러한 '갑·을'의 대화이다. 특별히 이 형식에 잘 담기는 단원은 삶과 죽음(의학 관련), 생명과학, 과학기술, 정보, 예술, 종교관련 주제 등이다. 이 단원의 특징은 학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 그렇다고 의학·과학·예술 등의 전문 지식을 묻는 심층적인 문제이거나 바람직한 방향을 묻는 당위적 문제이기보다는 해당 주제에 대한 대립적 입장들의 논리와 맥락을 잘 따라가면서 선택지의 서술에 유추해서 답하는 유형의 출제가 자리를 잡았다. 이 단원의 개념학습 시에는 그런 서로 다른 입장들의 논의에 친숙해지는 거다. 하지만 의견의 대립요소 파악에만 치우치지 말고 공통요소도 이해해야 한다. 문항에서 진위여부를 묻지 않는 개념이나 용어들을 외우려들지 않는 것도 똑똑한 방법이다.

- 비교적 명확한 개념이 필요한 주제 학습법 (난이도 中)

아직 고난도로 출제되지는 않은, 다른 입장과의 비교 분석이 어렵게 부각되기 보다는 명확한 그 입장의 학습이 요구되는 문항이 있다. 다양한 윤리학적 접근, 다문화 정책, 인권존중과 공정한 사회, 의식주와 윤리, 전쟁과 평화 등의 단원이다. 신생 단원도 역시 들어있는데 처음부터 어렵게 묻지는 못했지만 해당 개념 학습이 필요했다. 의외로 자세한 부분의 사실 판단도 요구되었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문적으로 난해한 주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각 주제들을 정확한 용어로 반복해서 익혀두는 학습이 도움이 된다.

- 입장·사상을 알아야 득점할 수 있는 주제 학습법 (난이도 上)

환경윤리,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약소국 원조, 사회윤리, 직업윤리, 삶과 죽음(사상 관련) 단원을 위 항목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수험생들은 생운의 고득점 출제 포인트를 간과한 것이다. 기출 문항은 한 사상(입장)부터 세 사상을 조합한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공통 주제(주어)를 놓고 비교 분석하는 선택지로 묻는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싱어·슈바이처·레오폴드를 제시문에 두고 '갑, 을, 병은 식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선택지에 답해야 한다. 따라서 개념 학습 시에 '도덕적 지위'라는 기본 개념 용어부터 잘 이해하면 서, 그 용어를 주제로 각 사상가들을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를 어디까지

지로 보았는지 재구성해 보는 것이다. 단, 여기서도 각각의 특성이나 차이점 외에도 공통된 주장이 될 만한 요소도 정리해 두면 의외의 오답지를 피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

③ 윤리와 사상 만점 학습법

① 사상의 전반적 특징으로 득점할 수 있는 문항 대비 학습법(난이도 下)

주제로는 주로 1번으로 출제되는 삶의 태도·인간의 특성이다. 여기에 동양 대표 사상들, 고대 서양사상가가 번갈아가며 출제되고 있다. 형식으로는 ‘서술형 평가 답안지’에 담긴 유형의 문항이다. 따라서 어떤 단원이 꼭 이렇게 비교적 쉽게 출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20문항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단원으로는 사회사상의 공동체주의·자유주의 비교 문항이 비교적 수월한 패턴인데, 이 단원이나 유형은 사상의 전반적 특징과 지향점을 명확히 학습함으로써 해결한다.

② 선택지가 어려운 문항 대비 학습법(난이도 中)

모든 단원이 해당된다. 어떤 사상가의 입장을 정리하고 복습할 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게 되더라도, 꼭 기출문항과 연계교재 문항의 선택지, 연계교재와 교과서 진술문 등을 토대로 검열 할 것!! 자기화시키는 이해와 학습은 즐겁지만, 수능의 언어를 간과하지 말아야 득점으로 이어진다. 간단한 예로 “맹자는 인간을 착하다는 식으로 본거죠?”라고 자기식의 이해와 정리로 묻는 학생은 “인간은 인의 예지라는 사덕을 본성으로 지니고 있어서 선하다고 주장했다.”라는 진술을 반복적으로 읽고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맹자는 사덕이 내재적인 것이라고 본다.”라는 선택지는 옳고 “맹자는 수양을 통해 사덕을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를 오답으로 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개념 학습의 초반에 하는 각 사상가 특징 정리가 지나면서 그들이 누적되는 과정에 ‘각 사상가들 간에 뭔가 비슷하거나, 비슷한데 뭔가 또 다른’ 지점이 나온다. 막상 헛갈리는 그 지점이 출제의 포인트다. 그 포인트와 마주했으니 올게 왔다는 마음으로 잘 정리해 둔다. 각 사상들의 특징, 차이점, 하지만 각 사상들 간에 계승되는 공통점이나 공통된 지향점은 단순화시켜버리거나 이분법화 시키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공자가 인(仁)과 효제(孝悌)의 실천, 덕치(德治)를 강조한 것은 공자의 특징이지만 공자만의 특징이 아니라 뒤의 유학자들에게도 이어진다. ‘맹자는 효제(孝悌)의 실천을 인(仁)의 근본으로 본다’라는 선택지가 틀리지 않지만, 수험생들의 오답률이 높은 이유다. 서양사상에서 에피쿠로스학파는 경험의 결과를 스토아학파는 이성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기에 차이점을 위주로 학습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는 지속적 쾌락에 대한 판단을 위해 이성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선택지가 틀리지 않지만 오답률이 높은 이유다.

③ 제시문도 어려운 문항 대비 학습법(난이도 上)

윤사 문항 풀이 첫 단계는 제시문을 통해 어떤 사상가인지 유추해 내는 것이다. 여기부터 막히는 문항이 있다. 주로는 고대 동양사상, 한국 성리학 등이 그렇다. 이런 문항은 키워드 중심으로 개념 학습을 빠르게 넘겨버린 수험생이 꼭 틀린다. 예를 들어 ‘법(法), 형벌=법가’라고 키워드로 단편화시켜버린 학습은 유가가 ‘도덕적 교화를 위한 법과 형벌’을 논하는 맥락의 제시문이 나오면 틀린다. ‘인의예지=유가’라는 단편적 이해는 ‘인의예지는 하덕(下德)’이라고 비판하는 니앙스의 도가 제시문을 해석해 내지 못하는 식이다. 따라서 개념학습시에 그 사상가가 강조하는 방향과 이유를 논리적으로 학습해 두어야 한다. 다른 학파에서 나오는 핵심 용어의 주제를 이 학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입장인지 비교분석해서 이해해두기. 차이점이 아닌 것은 단편화시켜 분리하지 말기. 윤리영역고난도 문항 공통 사항이다.

논리적인 구조를 반복적으로 이해하고, 읽다보면 그 속의 키워드를 알맹이로 남겨 암기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 다시 그 키워드 알맹이로 완성된 문장으로 늘렸다, 줄였다, 다른 단어로 교체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오류가 없는지 검증하는 것이 최종단계다. 무엇보다 이러한 학습 방법과 유의사항들을 녹여낸 것이 개념강의이다.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바로 개념 강의를 만나 좋은 지침서로 삼는 것이 실수 없이 만점의 방향을 잡는 방법이다.

4) 역사계열

① 역사 과목의 시너지 효과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세계사 과목은 역사 과목군으로 공부 방법도 비슷하고 각 과목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내용을 동일하게 겹쳐서 배우게 된다.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가 되면서 수능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은 한국사 공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동아시아사에서 배우는 개념과 한국사에서 배우는 개념의 약 30% 정도 겹치기 때문에 수능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선택했을 경우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학업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다르게 말해서 동아시아사를 수능 과목으로 선택해서 공부하면 한국사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아도 3~4등급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또한 세계사에서 배우는 개념과 동아시아사에서 배우는 개념의 약 60% 이상이 겹치기 때문에 수능 선택과목으로 세계사를 선택했을 경우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동아시아사를 같이 선택하면 학습량은 급격히 낮아져서 학업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학업 부담의 경감뿐만 아니라 역사 세 과목을 같이 공부 하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동아시아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역사를 이해하는 폭이 상당히 넓어지게 된다. 또한 동아시아사는 주제사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세계사를 통해서 시간 순서대로 역사를 먼저 배우고 난 뒤에 동아시아사를 배우면 동아시아사를 매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한다.

② 역사 과목의 특징

- 노력한 만큼 나오는 정직한 과목

역사 과목은 외울 것이 많다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많은 수험생이 기피하는 과목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해서 역사적 사실을 다른 학생들보다 더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 학생은 무조건 다른 학생들보다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정직한 과목이다. 따라서 수능 시험이 쉽게 출제가 되든지 어렵게 출제가 되든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다른 선택 과목들 보다 적은 안정적인 과목이라는 장점이 있다.

- 역사는 암기? NO. 이해~!!

교과서에 등장하는 사건 하나하나를 따지면 다른 과목에 비해 암기량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 공부는 사건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인과 관계가 명확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되는 것이다. 여기에 재미를 느끼게 되면 암기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 따라서 수험생 혼자 교과서나 수능 연계교재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힘들다. 역사 공부를 할 때에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강의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③ 역사계열 공부 방법

- 동아시아사 공부법

최근 수능에서는 동아시아사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었다. 그런데 2017 수능 원 점수 기준 50점 만점에 1등급이 48점 이상으로 동아시아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하는 학생이 많이 있는 과목이기도 하다. 특히 상위권을 변별하는 고난이도 문제로는 상세한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따라서 동아시아사를 수능에서 선택하는 학생들은 일단 큰 흐름 안에서 기본 개념을 익힌 뒤 반드시 연표를 중심으로 새롭게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 세계사 공부법

세계사는 공부량이 가장 많은 사회탐구 과목 중 하나이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비인기 과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세계사를 선택하는 학생 중 세계사의 개념을 전부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많다. 그러다보니 세계사 문제는 함정을 만들어서 어렵게 출제하기 보다는 다른 과목에 비해 상당히 평이한 문제가 출제 되는 편이다. 따라서 세계사를 선택했다면 작년 수능처럼 50점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의 역사들을 보다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시험에도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사를 공부할 때에는 교과서와 수능 연계교재에 있는 개념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하고 반복해서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2019학년도 대수능 과학탐구 출제 경향 예측

- 전반적인 난이도

평가원의 출제 방향은 쉬운 수능을 지향하고 있으나, 과학탐구 영역은 매년 난이도가 다소 높게 출제되었으므로, 2019학년도 대수능에서도 쉽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학탐구 영역을 선택한 학생들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난도 문항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 출제 유형

최근 몇 년간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유형 변화의 폭이 매우 작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수능 및 모의평가, 연계교재에 제시된 그림, 그래프, 표 등을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과학탐구 학습 전략

1) 응시할 과목을 최대한 빨리 결정하자..

수능 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할 과목의 선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미 고2 과정을 거치면서 과목 선택을 마친 학생도 있을 것이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학생도 있을 것이다. 최선의 경우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과에 진학하였을 때, 도움이 되는 관련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자신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차선책으로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과학탐구영역 과목 선택 요령 ■

- ①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라.**
관심 있는 과목을 학습할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게 학습하는 과목, 능동적으로 공부하고픈 욕구가 많은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 ② **응시 인원수가 많았던 과목을 선택하라.**
안정적 등급 확보를 위해선 응시생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응시 인원이 적은 과목일수록 난이도나 상위권 학생의 과목 편중 정도에 따라 등급 구분 점수의 변화가 심하다. 따라서 상위권 수험생이 선호하는 과목을 선택할 경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은 탐구영역 과목 간 난이도 조절과 만점자 비율 유지를 위해 최상위권 수험생이 편중되는 과목 문항은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렵게 출제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수능이 상대평가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국,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과목과 응시인원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 ③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고려해 선택하라.**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선택한다면 내신 준비와 수능학습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이 이루어진다. 수험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와 개념 반복학습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
- ④ **지원 대학의 반영과목을 확인하고 대학별 고사까지 고려하자.**
수험생이 지망하려는 학교에서 필수 선택과목이 지정된 경우가 있는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과목이 있는지,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의 대학별 고사 즉 논술이나 면접 등 유리한 과목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판단하여 관련성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서울대나 연세대 자연계열에 지원하려면 과학탐구 네 과목 중 서로 다른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를 응시한 학생은 해당 대학에 원서를 넣을 수 없다. 특히 2017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과학탐구영역 두 과목을 모두 II로 응시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므로 소수점으로 합격 여부가 갈리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가산점에 유의해야 한다.

4.6 과학탐구

가. 2019학년도 대수능 과학탐구

1) 2019학년도 대수능 과학탐구 기본 체제

2019학년도 대수능에서 과학탐구 영역은 다음과 같이 현재 대수능과 동일한 체제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응시 과목	8개 과목(물리 I · II, 화학 I · II, 생명 과학 I · II, 지구 과학 I · II)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 응시
구성 (과목당)	- 문항 수 및 총점 : 20문항 50점 만점 체제 - 배점 : 2점 10문항, 3점 10문항
시행	-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시행 - 1과목 응시자는 2과목 응시자가 첫 번째 선택 과목을 푸는 동안 대기 - 첫 번째 응시 과목 종료 후 시험지 수거 시간 2분

2) 교과 개념을 확실하게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교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료 해석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과 개념을 우선적으로 이해한 후에 자료 해석 능력을 키우는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능에서는 단원별 교과 개념을 통합적으로 묻는 문항도 출제되니 단원 간 개념을 연관 짓는 연습이 필요하며, 하나의 자료(그림, 그래프, 도표)를 가지고 다양한 단원의 내용을 물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한다.

3) 기출 문항(수능, 모의평가 등)을 분석하여 대비하자.

수능 및 모의평가 기출 문제를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교재를 선택하여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파악하여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수능에서는 문제의 유형은 거의 변함없이 기출 문제의 자료가 응용·변형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크므로,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기출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문제 자체를 암기하는 식의 학습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문항이 어떻게 변형 또는 응용될 것인지 고민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좋다.

4) 자료 분석 및 해석 능력을 키우자.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과 실험·탐구의 설계 및 수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이 많이 출제되는 편이다.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자료나 실험·탐구 내용 등은 그 자체로도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하며, 어떻게 변형되거나 응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과정을 수반하도록 하자.

5) 연계교재를 꼼꼼히 공부하자.

과학탐구의 경우 수능 연계교재는 각 과목별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각 1권이며, EBS 연계 유형에는 개념 및 원리, 자료 및 지문, 문항 변형이 있다. 연계란 그 문제를 똑같이 내겠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EBS 연계 교재를 공부할 때는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해설을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료와 개념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물을 수 있는지, 자주 묻는 개념이 뭘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같은 자료(그림, 도표,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묻는지, 이미 기출되었던 <보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제별로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다. 과학탐구영역 과목별 학습 전략

1) 물리

물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공부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공식을 공식이라 외우지 말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을 정리한 것으로 생각하며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공부해야만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는 어떤 공식이 적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내신 문제처럼 수능을 준비했다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물리 I에서 물리적 기본 개념을 묻는 대화형 문제가 단골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나름대로 전체 난이도 조절을 위한 문제로 여겨진다. 최상위권 학생을 겨냥한 문제는 2~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길을 잡으면 시간만 허비하고 엉뚱한 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EBS 연계교재인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소개된 문제로 연습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 화학

① 빨리 시작해라.

화학의 개념은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념이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주어진 자료를 124 분석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그만큼 화학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많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빨리 시작해서 개념을 완성하느냐가 화학 고득점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② 개념이 답이다.

‘화학은 개념이 중요하므로 개념을 먼저 공부하라.’라고 하면 무작정 암기부터 하는 학생들이 있다. 화학의 개념은 암기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해를 해야 한다. 따라서 혼자 공부하는 것은 금물.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인강을 들으면서 하나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한 후 필요한 부분을 암기하는 것이 좋다.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 단순 암기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수능과 같은 중요한 시험을 치를 때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면 일 년 넘게 열심히 외워 왔던 것들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이해가 선행된 학생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해가 동반되지 않고 단순 암기 방식의 학습을 한 학생이라면 지난날의 시간과 노력은 모두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

개념 학습을 할 때는 어떤 개념이 수능에서 다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이 교육과정 해설서이다. 하지만 혼자 교육과정 해설서를 읽으면서 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평가원 기출 문제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③ 기출문제에 적용해라.

개념 학습을 한 후에는 그 개념을 기출 문제에 적용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원 기출문제는 철저하게 교육과정을 따른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1차적으로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이 학습한 개념들 중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교육과정 속의 개념이 어떻게 자료화되어서 문제로 만들어지는지 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문제는 기출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을 보면 대부분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들이 실려 있다. 심지어 학력평가나 모의평가, 수능까지도 기출에 있었던 자료를 변형하여 출제하기도 하므로, 기출문제만 꼼꼼히 분석하고 풀어보기만 해도 수능 공부의 2/3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출 문제를 풀 때는 단원별로 어떤 유형의 문항들이 출제되었는지, 고난이도 문항은 어느 단원에서 어떤 유형으로 주로 출제가 되어왔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능 또한 그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④ 자신만의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라.

아마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자신만의 단권화 노트. 필요성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권화 노트는 처음

에 개념 학습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개념을 공부하고 기출 문제를 풀어본 후에 소단원 별로 수능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개념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정리한다. 이후 학력평가나 모의평가를 치르면서 특히 자신이 취약한 부분이나 틀린 문제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정리해 놓는다면 수능 바로 직전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트가 될 것이다. 간혹 시판되는 요약 정리집을 구입해서 단권화 노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나의 단권화 노트가 아니라 그들에게 최적화된 단권화 노트임을 명심하라. 수능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보는 것이다.

⑤ 자신만의 기본서를 가져라.

화학은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개념을 복습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마치 이야기책을 읽듯이 기본서를 읽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마다 연초에는 EBS 연계 교재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개념서 및 문제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 중 자신에게 적합한 기본서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일이다. 그러나 어떤 책이든 화학의 기본 개념을 동일하게 신고 있기 때문에 그 중 자신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정리가 잘 된 책을 골라서 수능까지 자신의 기본서로 활용을 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서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면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교과서 중에서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3) 생명과학

① 개념 학습의 암기는 필수사항이다.

과학탐구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 학습’이다. 이는 생명과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생명과학의 경우 물리나 화학과 같이 복잡한 계산 문제 보다는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타 과목에 비해 개념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

생명현상을 다루는 학문인만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으나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 주요 용어 및 기본 원리에 대한 숙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매 단원을 공부할 때 각 단원 별 용어나 기본 원리를 훑어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집요하고 철저하게 암기를 해줘야 한다. 이를 간과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량이 누적되고 이에 대한 부담이 커져 결국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므로 개념정리는 최소 6월 모의 평가 전까지는 끝내는 것이 좋다.

② 개념의 정리, 그 다음은 자료 해석이다.

과학탐구 영역에서 출제되는 대부분의 문제 유형은 자료해석, 분석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즉 누가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읽어내는가가 고득점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자료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연계교재(<수능특강>과 <수능완성>) 내 내용 영역 및 문제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교재 외에 새로운 자료가 출제될 수도 있지만 그 자료 역시 교육과정을 벗어날 순 없으므로 연계교재 내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면 어떤 자료를 뽑아도 놓아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일단 살펴볼 것은 연계교재 내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그러한 자료들이 연계교재 내 문제에 어떻게 문제화되어 출제되어 있는지, 해당 문제에 해당 자료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묻고 있는지,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묻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모의평가에선 연계교재의 어떤 자료나 문항이 어떻게 실전문제에 변형되어 출제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본다.

③ 양질의 문제로 실전에 대비한다.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연계교재 수업을 통해 자료 분석 연습을 하였다면 이제 양질의 문제를 정해진 시간에 풀어보는 시기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능 유형에 맞는 양질의 문제들을 선택하는 것과 시간 부족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일단 양질의 문제란 그해 발행되는 연계교재(<수능특강>, <수능완성>)와 평가원 기출 문제라 보면 된다. 평가원 기출 문제는 수능 출제 기관이 출제했다는 점에서, 연계교재는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로 그해 수능에 70% 연계 출제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가능한 평가원 기출문제는 시기에 따라 문제 풀이 형식을 달리해 주는 것이 좋다. 기출 문제를 처음 풀 때는 단원별로 나눠서 풀어보고, 다시 풀어 볼 때는 실제 수능 시간에 맞춰 모의고사 회차별로 풀어보도록 연습한다.

④ 계산문제는 꾸준히 반복한다.

생명과학 I이나 II에 계산형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 생명과학 I에서는 유전단원에서 생명과학 II에서는 진화에 따른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등에서 출제되는데 이것이 변별력을 주고자 하는 문제에 단골로 나온다. 계산형의 문제는 소요시간이 많은데다 난이도의 조절이 용이하고 문제의 변형이 쉬운 편이기에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계산형의 문제는 이해를 기반으로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수학처럼 눈과 손에 익숙해진다. 그러니 따로 요령부터 찾아본다거나 아예 포기하려 하지 말고 덤덤한 마음으로 꾸준히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 풀고 또 풀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잊지 말자.

4) 지구과학

① 개념학습 시 전체의 스토리를 따라 가며 줄거리를 파악하라.

탐구 과목은 모두 저마다 개념학습을 강조한다. 지구과학도 예외 없이 개념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체 스토리를 따라 가면서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지구과학의 스토리들은 우리 주위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상, 환경들이기 때문에 스토리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스토리가 그려지면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다. 혼자서 그런 스토리를 그려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교과서를 읽은 것이 제일 좋고, EBS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② 기출을 토대로 개념을 다져라.

개념을 확실히 이해했다면 이제는 이를 문제에 적용해야한다. 기존에는 개념의 이해 정도로만 고득점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유형과 함정 유도 문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자료 분석 능력 그리고 심화 문제 풀이 능력까지 갖추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누구나 처음에는 쉽지 않다. 평가원 기출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익히고 반복 훈련하도록 한다.

③ 자료와 사례에 개념을 적용하여 응용력을 향상시켜라.

지구과학에서는 그림, 도표, 그래프가 주어지는 자료 해석 문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념을 정리할 때 자주 출제되는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개념을 적용시켜 학습하면 아주 효과적이다. 또한 지구과학 I의 경우 ‘지질재해’,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은 현상 중심 개념으로 사례가 많이 활용되므로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라. 과학탐구영역 수준별 학습 전략

1) 상위권 학생

- ①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자료 분석 및 해석, 탐구 설계 및 수행 능력 등이 잘 갖추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제 풀이를 통한 실전 적응 연습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 ② 실전 적응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개념이 파악되면 바로 개념 정리 부분으로 돌아가 확인한 후에 문항을 다시 풀도록 한다.
- ③ 상위권의 경우 기본 실력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므로, 고난도 문항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난이도가 낮은 문항에서 실수를 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따라서 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야 하지만,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
- ④ 마무리 단계에서는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 자주 출제되는 문항 유형이나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하도록 하자. 수능에서는 자주 다루는 내용, 자료, 유형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므로 문제 풀이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내용, 자료, 유형을 기억해두면 수능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2) 중위권 학생

- ① 중위권의 학생들은 개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나 완벽하게 이해하는 수준은 아니면서 자료 분석 및 해석 능력과 탐구 설계 및 수행 능력이 상위권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문제 풀이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부족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시간을 우선 투자해야 한다.
- ② 개념 이해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중·고난도 문항 풀이 과정을 차례로 거치면서 개념을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더불어 부족한 개념을 파악하여 재학습하고 자료 분석 및 해석 능력, 탐구 설계 및 수행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 ③ 마무리 단계에서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 자주 출제되는 문항 유형이나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하도록 하자. 수능에서는 자주 다루는 내용, 자료, 유형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므로 문제 풀이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내용, 자료, 유형을 기억해두면 수능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3) 하위권 학생

- ① 하위권의 학생들은 개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자료 분석 및 해석 능력과 탐구 설계 및 수행 능력 또한 매우 떨어지는 수준이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중위권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학습하는 것이 좋다.
- ② 우선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구입하여 완벽하게 학습하도록 한다.(교재 구입 시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교재에서 다룬 내용, 문항 유형 및 풀이 방법 등을 암기할 정도로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기본기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③ 6월 모의평가 결과 중위권에 진입하였다면, 난이도가 좀 더 높은 교재를 선택하여 위와 같이 학습하도록 한다.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보고 최소한 중위권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난도 문제집과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최대한 고득점을 얻기 위한 연습을 하도록 하자.

마. 과학탐구영역 시기별 학습 전략

1) 겨울방학부터 3월 모의고사 전까지

이 시기는 1년 수험 생활 중 가장 열정과 의지가 높은 시기이다. 개념에 집중하여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는 최적의 시기여야 한다. 개념 교재와 강의를 통해 수능에 필요한 최적의 개념이 무엇인지 배우고 익히도록 한다.

특히 강의를 토대로 하여 개념 교재를 자신의 말로 풀어 다시 정리하는 일종의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 볼 것을 권한다. 특히 각 단원에 있는 자료, 실험 등 다양한 유형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교재에 있는 용어를 자신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선생님이 쉽게 풀어 해석한 용어로 적어 기억이 오래 유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강의를 정리하는 것과 정리된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병행되어야 한다. 무작정 외우면 금방 잊어버리고 변형된 문제는 손도 못대게 된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개념 완성의 시간을 줄이는 지름길이란 것을 명심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하는 것에 노력해야 한다.

2) 3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6월 모의평가 전까지

이제까지 정리한 개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능 연계교재 공부에 돌입하는 시기이다. 무엇보다 3월 학평에서 드러난 약점 단원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러한 약점 단원을 보완하여 6월 모의평가에 대비하는 학습이 필요한 시기라 보면 된다.

수능 특강의 자료나 실험 등 다양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정리하여야 하며 앞서 단권화 노트를 제작했다면 추가로 연계교재 속에 새로운 자료나 선생님께서 전달 받은 핵심 포인트 등을 추가로 기록하여 단권화 노트의 내실을 더욱 튼튼히 다진다. 또한 지금까지 개념들을 연계교재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를 풀 때는 속도나 양 보다는 정확하고 꼼꼼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해당 문제가 어떤 개념에서 나온 것인지,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변형되었는지 등 분석하며 푸는 훈련을 강의를 통해 배우고 복습을 통해 다시 한 번 연습해 보도록 하자.

3) 6월 모의평가 이후부터 여름방학 이전까지

6월 모의평가는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직접 주관하는 첫 시험으로 재학생 및 N수생도 모두 참여하는 시험인 만큼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가늠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 또한 이 시험의 결과를 통해 앞으로 남은 수능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 준비해야 할지 준비할 수 있다. 다만, 시험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공부에 대한 반성 및 앞으로의 학습 전략수립에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단은 EBSi 사이트에 준비되는 해설 강의를 통해 6월 모평의 총평 및 난이도 분석, 연계의 실제 등을 확인하고, 3월 학평 이후 드러났던 문제점은 얼마나 극복되었는지, 6월 모평을 통해 새롭게 나타난 문제점 또는 아직도 극복되지 못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틀린 문제는 다시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신이 해왔던 방식대로 오답노트를 만들어 수능 전 다시 풀어 볼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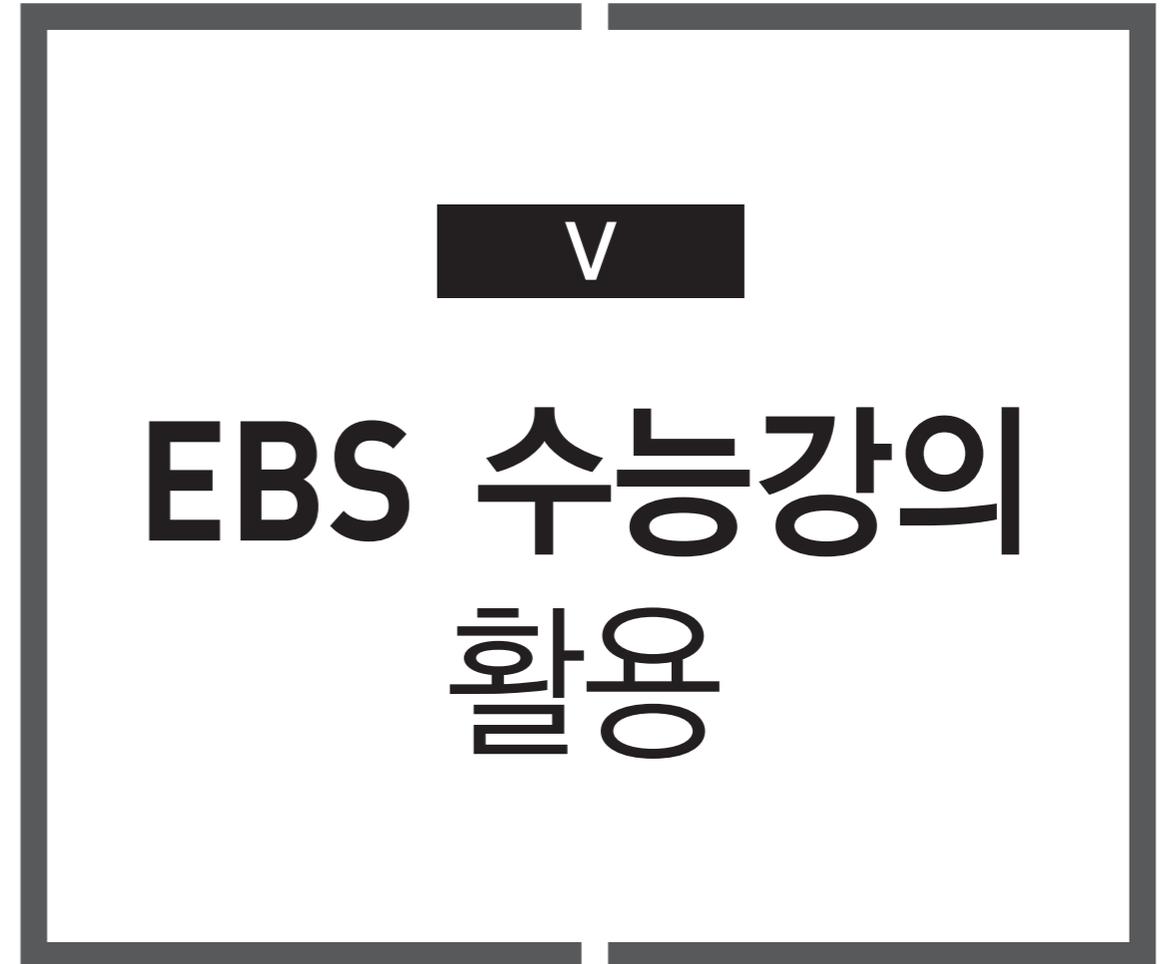
4) 여름방학이후부터 9월 모평까지

이 시기는 수험생에게는 무더위와 싸워야 하고, 슬럼프를 넘어야 하는 가장 힘든 시기일수도 있으나 수시 원서 접수이전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하여 성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개념보다는 지금까지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문제 적용 훈련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마지막 연계교재인 <수능완성> 및 평가원 기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실전 문제 적응력을 기르고 틀린 문제를 통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춰 학습해야 한다.

5) 9월 모평 이후 수능 시험일

무엇보다 그동안의 땀과 노력을 믿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아야 할 시기이다. 또한 수시 원서 접수와 맞물려 있는 만큼 시간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일단 두 번의 모평(6월과 9월)을 통해 보여준 신 유형 및 문제 난이도, 연계 유형 등을 점검하자. 개념을 다시 한 번 복습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강의나 교재를 가지고 준비하기 보단 지금까지 보았던 개념 교재 또는 단권화 노트로, EBS에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핵심 마무리 요약 강의를 통해 개념의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최근 탐구의 경우 시간 안배가 아는 것만큼 점수 변화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시간안배 훈련을 꾸준히 하되 너무 어려운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다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정도의 교재를 통해 실제 수능 날에 보게 될 시간에 맞추어 집중력 있고 빠르게 풀 수 있는지를 연습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체력관리와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하다. 시험장에서의 느끼게 될 압박감, 긴장감 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평소 마음의 준비를 갖고 긴장을 풀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들을 생각해보며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EBS 수능강의
활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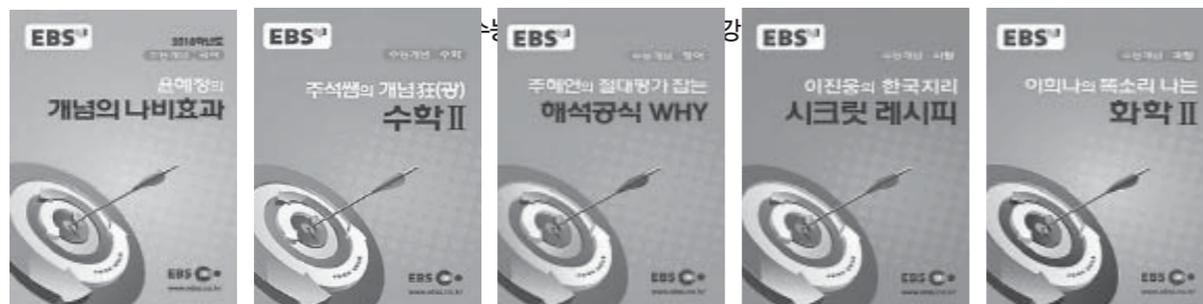
EBS 수능강의 활용

5.1 2019 수능 대비 EBS 대표 시리즈 안내

가. 기본개념

1) 저자직강 <수능개념>시리즈에서 나만의 EBS 대표강사를 찾아라!

<수능개념>은 대표적인 '기본개념'시리즈다. 수능 대비 EBS 연간 커리큘럼 중 유일하게 강사들이 직접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하는 저자직강 시리즈인 만큼 강사의 모든 것이 들어 있는 결정체이다. 교재는 200쪽 안팎, 강의는 30장 남짓으로 설계돼 학습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2010년에 처음 개설된 이후 수험생들이 연중 끊임없이 수강하는 시리즈로 자리 잡았다. 주목할 대목은 <수능개념>시리즈를 맡은 강사들 상당수가 이듬해 <수능특강> 해설 강좌를 담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수능개념>으로 개념을 '완성'한 다음, <수능특강>으로 수능실력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 본인에게 맞는 강사를 정한 다음, 완강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수능점수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2) <수능길잡이>, <수능의 감(感)>으로 기본을 다지자

<수능길잡이>는 수능을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들이 자습서로 활용 할 수 있는 교재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 한하여 교재를 발간하고, 해설 강의를 제공한다. 개념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문항까지 함께 제공되어 기초부터 실전까지 준비 할 수 있다. <수능개념>과 함께 학습한다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능의 감(感)>은 내신형 문항에 익숙해져 있는 수험생 또는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 동일한 소재의 수능형 문항과 내신형 문항을 비교·분석하고 수능형 문항의 풀이 전략과 방법을 제시한다. 자학자습이 가능한 수준별 문제집으로, 겨울방학동안 개념과 문항의 수준을 학습기간을 감안하여 분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수능길잡이>와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수학과목이 발간된다.



3) 수능 기출 유형 공략에 최적화 된 <기출의 미래>

2016년 12월에 발간된 <기출의 미래>는 수능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단원별, 주제별 문항이 분류되어 있음은 물론, 신경향 분석까지 추가되었다. 기출문항과 N제(EBS 우수 문항)를 통합하여 구성되며 특히 세부유형분석과 관련 개념, 난이도 정보 등은 과목별로 분권되어 발간되는 수학영역에서 수험생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보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3이 된 다음 처음 치르는 3월 학력평가는 수능 성패의 중요한 가늠자로 인식된다. 겨울방학동안 '개념'을 얼마나 학습했는지, '실력'을 얼마나 다졌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3월 학평은 중요한 첫 모의고사임에 틀림없다. <수능개념>, <수능길잡이>, <수능길잡이>, <기출의 미래>를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3월 학평 성적표가 1차적으로 증명해 줄 것이다.





나. 실력완성/문제풀이

1) 2019 수능 대비 연중 학습계획의 기준점, <수능특강>, <수능완성>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은 EBS의 대표적인 수능연계시리즈다.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의 모든 영역, 모든 과목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특히 <수능특강>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꼭 봐야하는 필수강좌로 자리 잡았다. 체계적인 교과서 내용분석과 그에 따른 필수 점검문항을 수록하고, 핵심내용을 대표강사들이 영역별·수준별로 해설한다. 수능에서 수능연계 시리즈가 '수능특강, 수능완성' 2가지로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수능특강>시리즈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수능완성>은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수능대비 종합판이다. 주제 유형별로 핵심개념을 쉽게 정리하고 자료를 분석해주며,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수험생들이 핵심개념을 보다 폭넓게 이해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능 출제경향 분석에 근거해 개발된 다양한 문제를 균형 있게 풀어봄으로써 수능에 대한 응용력과 탐구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 특히 실제 수능과 동일한 배경의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함으로써, 내용파악과 약점을 보완하고 수능시험을 실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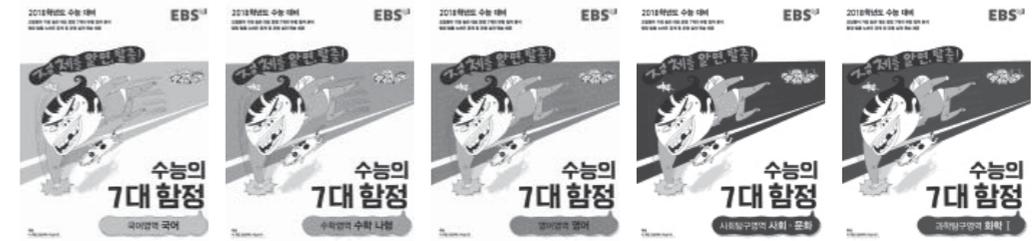
2) 영어영역 절대평가 대비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은 수능 연계교재의 중요어휘를 총망라하고 있다. 단순히 해당 어휘에 대한 뜻만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교재의 지문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데 유용하다. 더불어 수능, 모의평가 기출문항을 예시문항으로 담고 있어 실제 수능문항을 푸는 듯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수능특강>, <수능완성>의 어휘를 교재 한권에 담았으며, 수능연계교재와 동일한 순서로 구성되어 학습효율을 높여준다. 휴대용 단어카드, 셀로판지를 제공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3) 연계교재 집필진이 준비하고 EBS 대표강사가 해설하는 <수능의 7대 함정>

2017 수능대비용으로 처음 선보이는 <수능의 7대 함정>은 교과별 함정 유형을 7가지로 분류하여 수험생의 실수 패턴을 진단하고 분석한다. 수능 및 모의평가 기출 문항에서 교과별로 수험생들이 실수하기 쉬운 오답률 높은 문제, 고난도 문제, 신유형 문제 등 함정 문제만을 엄선하여 구성하고, 이를 대표강사들이 해설한다. 수험생들은 <수능의 7대 함정>을 통해 본인의 함정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과 가이드를 제시받을 수 있다.



4) 수능만점을 위한 <천제의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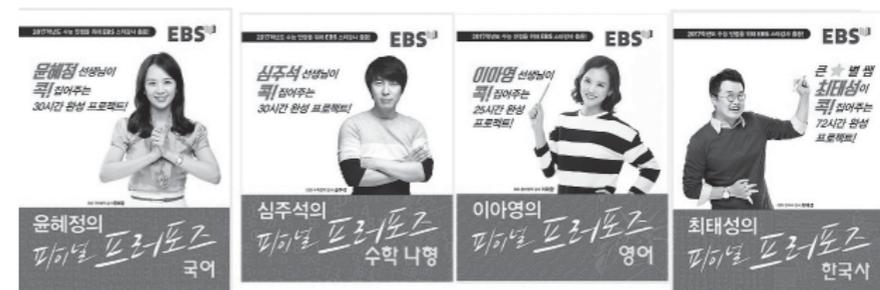
수능연계교재 중 우수문항들만 모아 만든 <천제의 약속>. 최근 3년 치 연계교재의 에센스 문항 1000개 이상을 엄선하여 국어, 수학A형, 영어 과목을 각각 단권으로 제작했다. <천제의 약속>에 실린 수능연계교재 문항들은 모두 수능출제기관인 평가원에서 검증을 마친 만큼 한치의 의심 없이 믿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더욱이 수능 기출에 필적하는 우수문항들만 모아왔으니 수능 만점을 위한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는가? 기출 문제 풀이만으로 부족한 수험생, 검증된 문제들로 마무리 훈련이 필요한 수험생 모두를 만족시킬 수능대비 '끝판왕' 학습서라고 볼 수 있다.



다. 최종마무리

1) 고득점 마무리, EBS 스타강사와 함께! <파이널 프리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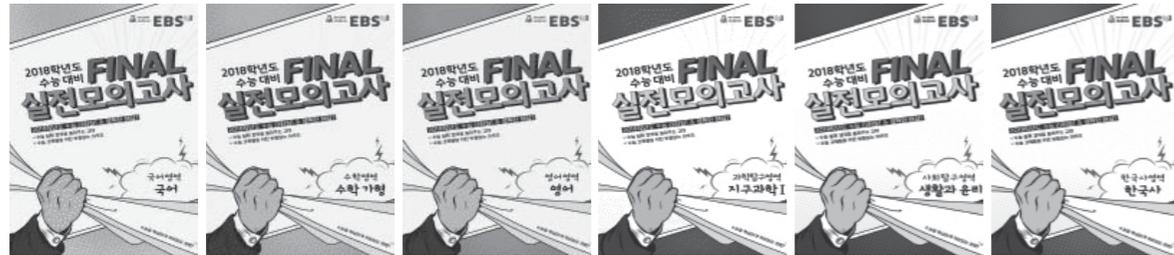
윤혜정, 심주석, 이아영, 최태성! 그 이름만으로 믿음이 가는 EBS 최고 실력과 선생님이 수능 최종점검의 길을 안내한다. 수험생이면 누구나 슬럼프에 빠지기 쉬운 한 여름! 반대로 '30일의 기적'을 연출할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다년간의 EBS 강의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스타강사진이 아낌없이 풀어낸다. 스타강사의 학습가이드를 따르기만 하면 본인도 모르게 고득점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2) 실전 모의고사로 2018 수능 완벽대비!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실전모의고사>는 수능과 동일한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수험생들은 실전감을 익히고 부족한 개념을 보완할 수 있다.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풀어보고 해설강의를 통해 완벽히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항을 실제 수능과 동일한 배점과 난이도로 만들어 놓은 실전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부족한 개념과 문제풀이 적응력을 마지막으로 점검, 보완할 수 있다.



3) 수능직전, 최종 실력 점검! <만점 마무리-봉투형 모의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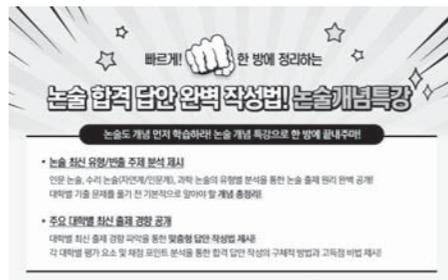
실제 OMR카드, 실제 시험지와 같은 판형으로 실제 수능을 미리 치러보자. <만점 마무리 봉투형 모의고사>는 실전모의고사 3회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학습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실전감과 적응력을 높여 실제 수능에 대한 긴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 논술/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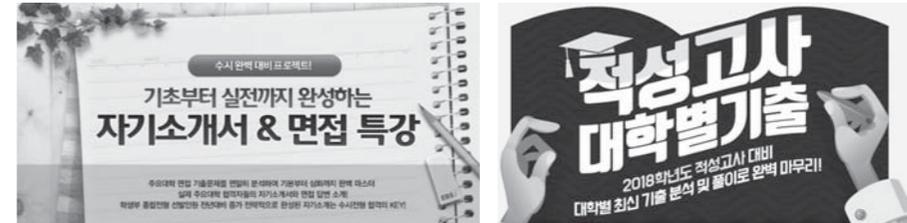
1) 논술 준비의 모든 것 <논술개념>, <논술특강>

논술전형의 인원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유효한 통로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학별로 상이한 논술 출제 유형에도 흔들림 없는 작성능력을 키우고 싶은가? 논술 기초과정을 들으면 된다. 논술에 꼭 필요한 개념 필독서가 궁금한가? 논술 개념이 있다. 논술 특강은 대학별 맞춤 합격답안을 위한 논술대표 개념서로 합격답안을 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고득점 비법을 제시한다.



2) 학생부종합전형, 적성전형 대비와 특목대 기출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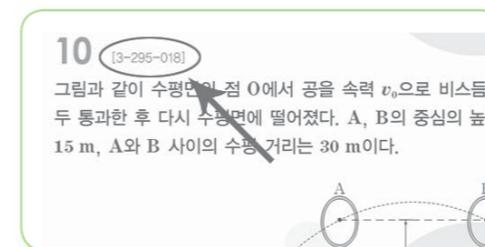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한가? 남들과는 다른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하고 싶은가? 이를 위해 자기소개서 특강이 준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대, 사관학교 등 특목대 기출특강 및 대학별 입학사정관에서 면접, 적성 대비 강좌 등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어 수시 전형 준비의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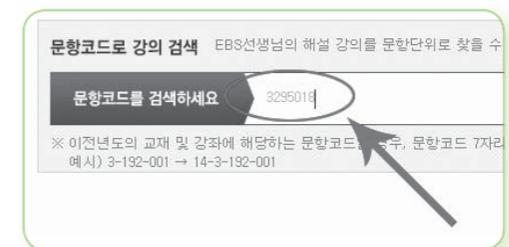
5.2 EBS 수능관련 서비스

가. 모르는 문제만 공부하자, 문항검색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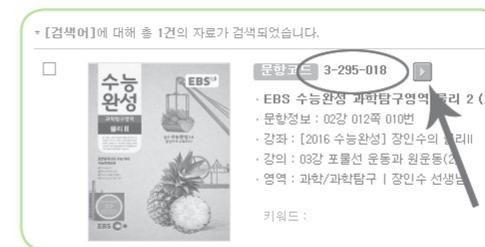
스스로 공부하는 수험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생들은 모든 강의를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항번호를 통해 모르는 문제만 해설을 들을 수 있다.



① <문항별 문항코드 확인>



② <문항코드로 강의 검색>



③ <검색된 문항 확인>



④ <내가 검색한 문항만 모아서 학습>



나. 마치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EBS 입시설명회> 다시 보기

공부는 결국 진학과 연결된다. 자신이 흘린 땀과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EBS에서는 다양한 분석 정보 및 설명회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입학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가? EBS 입시설명회 영상을 통해 입시를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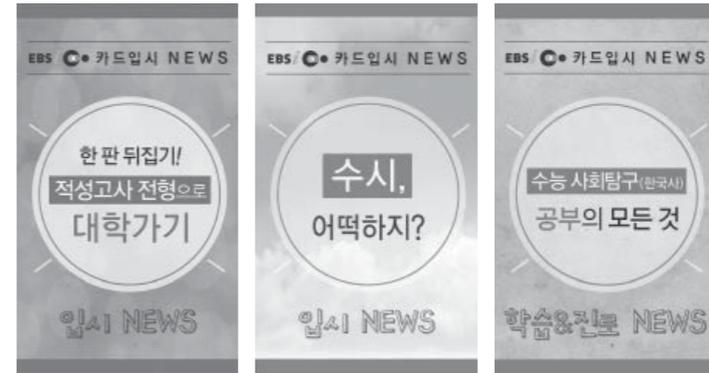
다. 입시진로 고민 해결! 합격으로 통하는 1:1 맞춤 상담 <EBS 대입 상담실>

공부할 시간이 빠듯하여 진학에 대한 정보를 접할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가? 진학하고 싶은 학과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가? 각 지역의 대표 진로진학전문가 선생님들이 대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EBS 진학상담실이 있다. 15시간 이내의 답변을 목표로 하는 진학상담실은 여러분의 진로에 나침반 역할을 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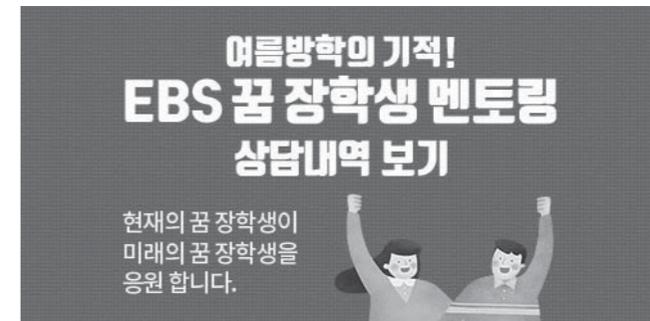
라. 대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시 뉴스>

입시가 궁금하지만 하나하나 검색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발맞춰 꼭 알아야하는 정보, 정확한 뉴스들만을 가져와 알려주는 유용한 수단으로 입시 뉴스가 있다. 입시 뉴스의 항목에는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입시 뉴스> 뿐만 아니라 이해가 어려운 것들, 혹은 공부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입시 카드 뉴스>가 있다. 어려운 글로 가득찬 뉴스가 아닌 사진과 쉬운 글들을 사용하여 수험생들의 빠른 이해를 돕고 있다. <입시 카드 뉴스>는 PC는 물론 모바일기기에서 볼 수 있으며 간결하게 정리한 지식들이기에 시간부족에 시달리는 수험생들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다.



마. 선배들의 합격 노하우 이어받기 <꿈 장학생>

입시를 준비를 하는 친구, 선배들의 노하우를 알 수는 없을까? 두나공감은 친구, 선배, 후배들을 위한 공간이다. 현재 EBS 꿈 장학생들이 미래의 꿈 장학생을 위해 회원 누구에게나 공부법, 진로, 진학, 슬럼프 탈출방법, 교대입시, 면접 등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대답해준다. 두나공감에서는 나의 꿈을 미리 걸어갔던 선배들의 꿈 스토리,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던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학습칼럼, 힘들 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공감영상 등을 볼 수 있으며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이다.



바. 성적 올리는 공부법은 무엇일까? <EBS 공부의 왕도>

성적을 올리고 싶은데 '나의 공부법'에 대한 의문이 드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전국 최상위권 성적을 기록한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일까? 선배들의 공부법을 참고하자. 그리고 나만의 공부법을 완성하자.





사. 수학에 포기란 없다! <희망수학 캠페인>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수학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수포자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처럼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EBS는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수학 때문에 자신의 꿈과 목표를 잃지 않도록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2017년부터 EBS는 <수학 날개>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각자 수학 실력에 맞는 강좌를 추천, EBS강사와 1:1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희망수학 캠페인>에서는 <수학 날개> 뿐만 아니라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수학진도를 역행하여 모르는 지점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수 있도록 기본 수학부터 고난도 수학까지를 아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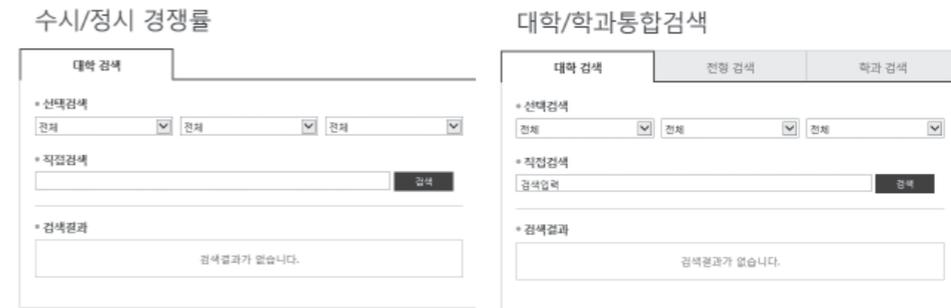
아. 대입의 최고의 수를 제시해 주는 <최고수>

나에게 딱 맞는 입시 전형이 뭘까? 대한민국 입시 최고수가 모였다! EBS에는 대학 입시 최고 강사들이 대입을 대비해 최고의 수를 제시해주는 강의 <최고수>가 있다. 대입 및 수능분석, 대입 예측, 대학별 모집 요강 핵심전략, 서울 수도권 주요 15개 대학별 전형분석, 수도권 주요 20개 대학별 전형 분석, 전국 주요 20개 대학별 전형 분석 등 수험생들이 어려워하고 궁금해 하는 모든 것들이 모여있다. 현재 10명의 입시 최고의 강사들이 질문의 해답을 제시해준다.



자. 주요 대학의 정보들을 모두 모은 <대학별 입시정보>

대학교 하나하나 검색하며 시간낭비 하던 시절은 이제 그만! 더 쉽고 편리하게, 소중한 수험생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EBS 대학별 입시정보 서비스를 찾아보자. 대학별 입시정보에는 대학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대학/학과 통합검색>, <모집요강>, <수시/정시 경쟁률>, <대학별 기출문제>가 있다. 목표 대학 또는 목표 학과를 설정하면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대학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2019 대입 성공전략” 2019 입시설명회 자료집

발행처 : EBS

발행일 : 2017.09.01

기획 : 김철홍(EBS 수능교육부장)
안성식(EBS 입시정보담당 ECP)
김용민(EBS 입시정보담당 ECP)
김진화(EBS 입시정보 매니저)

집필 : 이금수(EBS 진로진학 전속교사, 중대부고)
최은경(EBS 진로진학 전속교사, 상계고)
정동완(EBS 진로진학 전속교사, 김해울하고)
남공민(EBS수능 국어영역 전속교사, 호평고)
심주석(EBS수능 수학영역 대표강사, 인천하늘고)
최은진(EBS수능 수학영역 전속교사, 수택고)
윤장환(EBS수능 영어영역 대표강사, 세화여고)
주혜연(EBS수능 영어영역 대표강사, 성동공업고)
김준우(EBS수능 한국사 대표강사, 신일고)
박 불(EBS수능 사회탐구영역 대표강사, 수택고)
이진웅(EBS수능 사회탐구영역 대표강사, 청담고)
강승희(EBS수능 사회탐구영역 대표강사, 동화고)
변춘수(EBS수능 과학탐구영역 대표강사, 면목고)
김진화(EBS 입시정보 매니저)
박정문(EBS 입시정보 조연출)
천재인(EBS 입시정보 조연출)

※ www.ebsi.co.kr에서 PDF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대입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BS